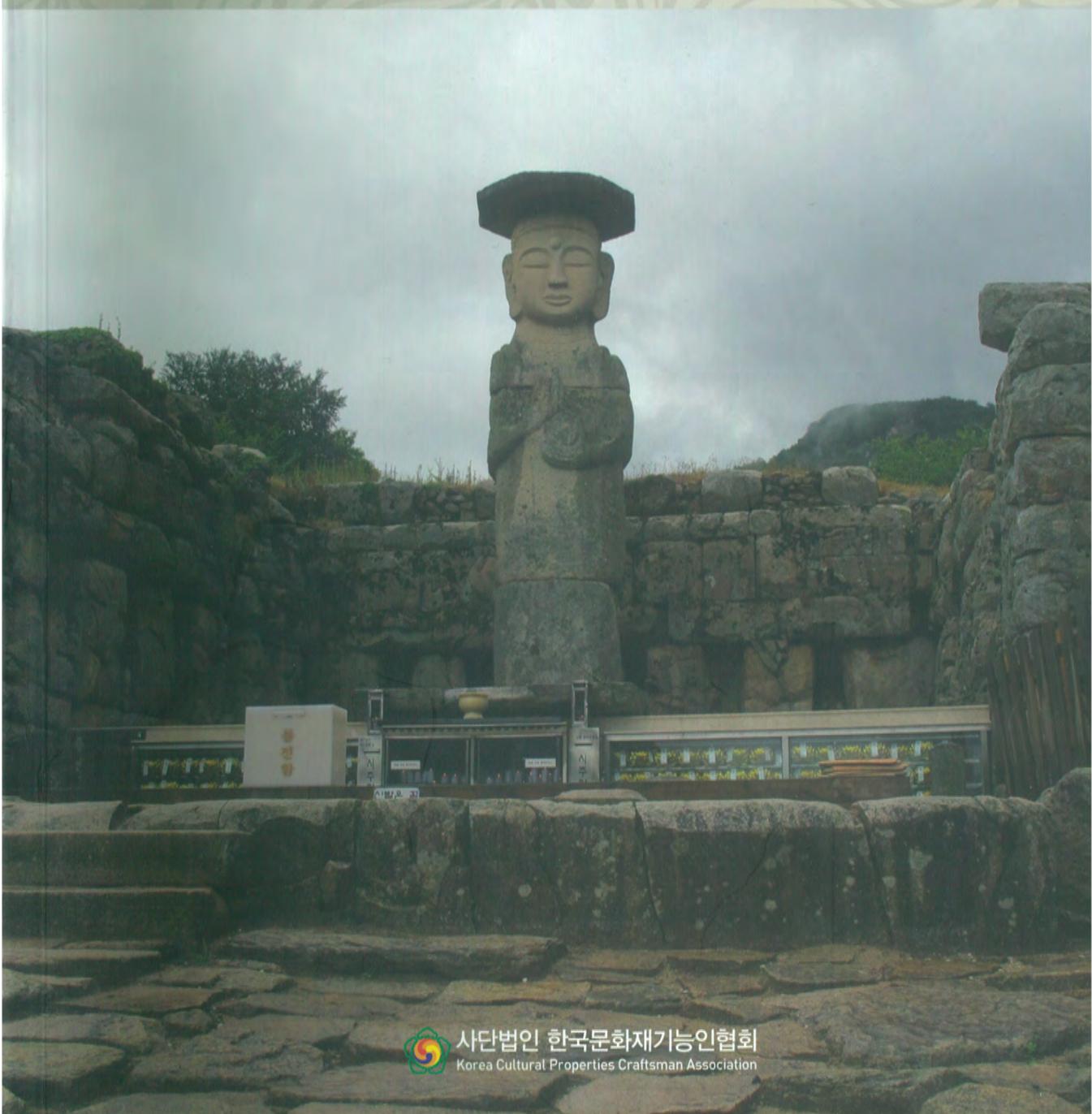


文化財技藝의脈

문화재기능의 맥
제12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Korea Cultural Properties Craftsman Association

文化財技能의 脈

문화재기능의 맥

제 12 호

文化財技能의 脈 제12호를 펴내면서

작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 이계순

2002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올해로 어느덧 열두 번째 『문화재기능의 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기능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재기능의 맥』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책임지는 기능인들의 작품 활동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분야 간의 교류와 정보를 전함으로써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우리 기능인들의 마음과 머리와 기량이 오롯이 담겨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기능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고품격 전문지로 성장해왔습니다.

매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기획부터 원고감수까지 애쓰신 분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 소장과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정영호 관장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 넘치는 진솔한 글과 회원들의 현장 이야기, 그리고 문화재를 지키는 장인 탐방과 문화재단체 및 회원들의 소식 등 읽을거리 볼거리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문화재기능의 맥』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신라시대 장인의 대담성과 꼼꼼함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동현

신년 초에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라니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며 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50여 년간 문화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는 것을 두서없이 말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54년간 이 일에 종사했지만 크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고만 생각합니다. 당시 어려운 시기에 학비도 없고 생활하기에 어려워 은사님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부탁드렸더니 국립박물관의 임천(林泉)선생님을 소개해 첫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문화재 실측과 도면 작성, 그리고 문화유적발굴, 보존과학 등 모든 것이 문화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건축문화재의 일을 주로 해왔지만 13년간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살면서 신라유적 감은사지, 불국사,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지 등의 발굴과 정비에 참여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신라는 한마디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마음에 간직할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992년간 56대의 왕이 다스렸던 8년 모자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로마제국인데 그 나라는 1056년 지속되었습니다. 신라보다 64년 더 오래 견디었지요. 실상 로마는 잘 알지만 신라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깐요. 저는 신라 유적을 발굴하면서 그 곳에서 신라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을 발굴하면서 왜 신라는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발굴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일까 하면서 그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천마총은 직경이 47m, 높이가 12.7m이고 황남대총은 쌍분으로 장축이 120m, 단축이 80m, 높이가 23m, 바닥 면적이 약 3,000평인 거대한 고분으로 무덤이 아니라 조그마한 산과 같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데 그들 무덤에서 나온 출토유물을 보면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귀걸이에 붙여진 세공물이었는데 귀걸이 맨 밑에 달린 심엽형(心葉形 : 하트형) 금판(金板)에 붙인 금알이었습니다. 이 금알은 크기가 꼭 좁쌀알 정도인데 지름이 약 0.4-0.5mm였고 그런 알을 금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 없이 많이 붙였는데 한알도 떨어진 것이 없었고 출토된 후에 깨끗하게 하려고 칫솔로 싹싹 문질러 닦아도 한알도 떨어져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붙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붙인 곳이 지저분하지고 않고 깨끗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누금술(鍍金術)이란 세공기술로 세공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한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동해안에 있는 감은사지(感恩寺址) 삼층서탑에서 나온 사리장엄장치(舍利莊嚴裝置)에 장식한 장식물입니다. 이 유물은 석탑을 해체하면서 발견되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유물을 수습했는데 주변에 흩어진 파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주변의 흙을 전부 수거하여 연구실로 옮겨 채로 쳐서 조사하였는데 그 흙속에서 아주 작은 유물들을 발견해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 유물들은 사리장엄구에 붙어있던 장식품이었는데 그 크기가 쌀알보다 작은 풍탁(風鐸 :鐘모양의 작은 장식물)로 보통 건물추녀 끝에 다는 풍경)으로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작았습니다. 수습할 때 그대로 지나쳤다면 영영 얻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집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되는 신라는 정말 꼼꼼한 민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감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무대왕을 위한 원찰(願刹)로 역사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감은사 앞 동해에는 수중릉인 대왕암(大王岩)이 있고 감은사 위쪽 이견대(利見臺)가 있는 신라사람들의 성지였습니다. 문무대왕은 서기661년에 신라 30대 왕으로 즉위하여 681년에 돌아가셨으니 꼭 20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唐軍)을 몰아내어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를 완성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생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거대한 무덤을 만들면서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죽으면 곧 화장하여 그 유골을 동해구(東海口 : 감은사 앞 바다)에 산골하라. 그러면 내가 해룡(海龍)이 되어 왜적을 물리쳐 주겠노라' 하셨습니다. 681년 문무대왕이 승하하자 아들 제31대 신문왕(神文王)은 낭산(狼山) 아래 능지탑(陵之塔)에서 신라왕으로서 최초로 화장하고 그 유골을 동해구 앞 대왕암에 수장하고 문무대왕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을 위해 원찰 감은사를 짓고 참배의 장소로 이견대(대왕암을 보면 이롭다는 뜻)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기록하고 위대한 일이었던가요. 그 후 증손자(曾孫子)인 제35대 경덕왕(景德王) 재위 때인 751년 유명한 석불사(石佛寺 : 현재 석굴암)와 불국사(佛國寺)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신라유적이 당시 김대성(金大城)이란 사람의 전생의 부모와 현세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이라 생각하지

만 저는 이것들이 모두 경덕왕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석불사는 전대의 왕들을 위한 원찰과 같은 것이고 불국사는 경덕왕이 다스리고 있는 신라와 신라백성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34대 효성왕(孝成王)이 742년 승하하자 왕으로서는 두 번째로 화장하고 역시 동해구에 그 유골을 수장하고 그 충격으로 문무대왕인 증조부와 친형이었던 효성왕을 위해 동해구가 보이는 쪽에 석불사를 지었다고 봅니다. 불국사는 신라를 극락세계로 만들어 그 곳에서 신라인들이 살기를 기원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이와같은 일을 한 경덕왕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일개 재상(宰相)인 김대성의 전생, 현세부모를 위한 일로 역사에 남긴 것은 신라왕들의 생각의 위대함이라 보지 않으시는지요. 신라왕들 중에는 이러한 위대한 왕들이 많았음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라는 8년이 모자란 1000년을 이어온 강점이라 생각됩니다. 고구려나 백제도 신라 못지 않게 강점이 있어 고구려는 705년간, 백제는 678년간 나라를 이어 왔으나 고구려는 대담성은 뛰어났으나 꼼꼼성이 신라보다 못했고 백제는 꼼꼼성은 뛰어났지만 대담성이 신라보다 모자란 듯 합니다. 한 국가나 개인도 위대한 생각을 하며 대담성과 꼼꼼성을 겸비해야 위대한 국가, 훌륭한 인생을 성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많은 국가들 중에 독일이나 곁에 있는 일본을 보면 대담성 있고 꼼꼼함을 갖춘 국민을 가진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강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세계대전 발발은 이 두 나라를 빼놓을 수 없고 그들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바로 대담과 꼼꼼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도 이러한 피가 틀림없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세들이 선조들의 훌륭한 DNA를 되살려 멋진 한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산 속에는 배워야 하고 찾아내야 할 무수한 정신세계와 교훈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 속의 모든 곳에는 당시의 기능인의 정신과 정성, 그리고 피와 땀, 숨씨가 아로새겨져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2012년 1월 13일 13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한국기능인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대략 정리한 것임

문화재기능인여러분은 국가문화창달에 초석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은사님이신 황수영 박사님은 작년 2월 초하룻날 춘추 94세이셨는데 세상을 떠나셨고, 이 방면 고고학 쪽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불교미술 등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인데 1957년부터 몇 년 모시고 있다가 회갑을 넘기지 못하고 59세에 돌아가시고, 동빈 김상기 선생님, 남운 이홍직 선생님, 김원룡 선생님, 최순우 선생님, 진홍섭 선생님은, 황수영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제 은사님은 저와 똑같은 말띠로 12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백말띠가 되어서 잘 달리나보다”고 우스개 말씀도 했지요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관장 정영호

저는 사실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6.25전쟁 말기였고, 학도병으로 잠깐 근무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공부는 1952년 부터니까 이력저력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포부도 크고 희망도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아주기를 바라며, 가방 옆에 큰 사전과 함께 독일의 사회민주당사라는 책을 호기심에 비싼 책을 사서 몇 부리며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2년 선배가 불러 “당신 빨갱이나”고 지적하길래 깜짝놀라서, 몇 부리려 사서 한번도 읽지 않고 들고 다녔던 책이 화근이 될 것 같아 바로 그 책을 버리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해 봄철에 역사학과와 문화답사를 경주로 갔지요

1952년에서 53년 봄, 가을 서울수복 이전까지 경주 불국사와 다보탑, 석가탑 특히 동해안의 감은사지를 그때 갔었죠.

그렇게 문화 답사를 인솔한 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문화연구를 개척하시고, 1964년 가을 공주에 있는 석장리 발굴을 처음 시도한 손보기 박사님이십니다.

그때 다보탑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거기서 많이 걸어 동해 감은사 탑도 보고 했죠. 그때 ‘감은사 탑의 높이 한번 재보라’ 선생님이 지시 했으나 누가 감히 탑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 내가 탑 옆에 버들유씨라고

하시는데 그 어른 집에 가서 사다리1개 가져와 올라가는데 한 개 가지고 안돼 2개를 놓고 올라가서 그 무섭지도 않은지, 신발 벗고 탑을 재었죠. 그때 그 사진을 누군가 줘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손보기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탑에 대해서나 또는 불교 미술에 대해 나는 모른다. 나는 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 공부하려면 서울 수복 해서 서울 올라가게 되면 황수영 선생을 소개 해줄테니까” 하셨죠. 그것이 늘 머릿속에 남아서 1953년 서울 수복 후 9월1일 새학기 되었을 텐데 참 고마운 은사님이세요. 첫 강의를 마치고 이제 황수영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때 황수영 선생님은 동경제대 출신에 이와나미 문고 편집부장이셨고 하얼빈에 파견, 해방되어 나오셔서 6.25전까지 국립박물관 학예감으로 김원룡 선생님과 두 분이 계셨지요. 그리고 진홍섭 씨는 개성 박물관에 계셨죠. 관계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분이 첫 강의를 하니까 아~ 이 분이 황수영 선생님이 구나 하고 강의 끝나면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강의 후 뒤따라 나가니까 벌써 문이 열리면서 밖에 손보기 교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이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 학생이라 소개 해주시자 ‘아~ 이 학생이 그 학생이구만’ 인사를 하고 셋이서 복도를 지나며 열심히 잘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부터 선생님 강의라면 앞에 앉아 열심히 듣게 되었던 거죠.

그 해 가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의리 미천곡이라 하는 골짜기에 있는 선림원 절터에서 1947년 숲 구우러 갔던 사람이 땅을 파는데 그 안에서 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 숲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금속이 상하지 않고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 숲을 잔뜩 집어 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발굴할 때 절터나 발굴하는 곳에서 숲이 나오면 옛날 아궁이 자리이거나 그 안에서 불상이나 금속류가 나오거든요. 발굴 해보면...

종이 나오니까 종을 국방부를 통해서 상원사에는 종이 있으므로 월정사에 가져다 타종하였어요. 그런데 그 종이 6.25때 터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6.25사변전에 황선생님께서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애길 듣자니 그제 6.25때 터졌대더라 그걸 조사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어른이 친상을 당하셨어요. 그래 문상을 갔는데 “난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겠네 혼자라도 다녀올 수 있겠나?” “네 저 혼자라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혼자 가게 되었지요.

청량리 까지 전차타고 가서 청량리에서 양평까지 트럭에 매달려 가고, 양평에서 자고 다시 짚차 얻어 타고 진부까지 가서 자고, 2박3일만에 월정사에 도착해보니 아무 것도 없는 재바다인 거예요. 거기는 일제시대때 우리아버지가 강원도 평창군 대화라는 곳에 금융조합 이사였어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대화에서 진부로해서 월정사까지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소학교 다닐때란 말이죠. 그때 기억과 6.25사변 겪은 후 의 기억은, 정말 그땐 건물도 많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통 재바다인거라. 그런 재바다를 바라보니

한탄스럽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탑이 우뚝 서있는데 그게 만약에 목탑이었다면.. 벽돌로 쌓아 올린 전탑이었다면 그대로 남아있었을까.... 타버렸을 것이다. 석탑이기에 임진왜란 때 좀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구나~ 한참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뭇땀에 왔지, 하며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종이 깨져서 24조각 난 것 중에 몇 조각을 찾아 냈죠.

그래서 사진 찍고 날이 저물어서 동네 이장집을 찾아 자려하는데, 여기 온 사유를 물어 종이 이야기 등을 하자 양양에서 오신 이장님이 계신다 해서 그 밤에 찾아갔죠. 그 이장님은 종이 처음 출토될 당시에 양양의 황이리 이장이었지요. 그 분이 나보다 두 살 위 85세 이신 이춘우 이장님이세요. 지금도 봄 가을에 두 번 꼭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오는데 아주 고마운 분이세요.

그 당시 일을 소상히 증언 해 주셔서 기록해 놓은게 지금도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 이춘우씨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은사님이 그분 만나야겠다 해서 만났죠. 서로 몇십년 만에 만나니 아주 반가워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난 이제 이 방면으로 불교 미술 공부 해야겠구나 한거죠.

그때 월정사에 가서 탑이 서있었을 때 저 탑이 돌이기 때문에 남아있었지. 역시 나는 석조미술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맘이 굳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 이 내용은 2012년 3월 29일 14시부터 약2시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대략 정리한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내가 8남매 맏이고 장손인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때 나는 숙명여고 역사교사로 근무할 때였죠. “너희 아버지가 8남매 애들이 학교 훈장이나 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판, 검사 나오고 다 야단인데. 우리집 녀석들은 저 모양이라고 선생이나 한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원했는가 해서, 제가 사실은 어디가서 이야기 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해보려고 서울대 문리대 정치과에 다시 들어갔죠. 그때가 숙명여고에서 월급타니까 자급자족되고, 총각이겠다. 정치과에 시간 있을 때 마다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정치과 나온 사람들 보니까 한껏 해박야 국회의원 비서로 취직된 게 최고야. 국회의원 비서 해박야 뭐하나. 판검사야 고등고시 법대를 가야만 하는건데.. 그래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해 보라 하셔서 아버지께 졸업장 갖고 가서 앞에 놓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원 대로 정치과 나왔지만 전 미술사 이방면에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너를 지도하는 분이 계신다는데 누구냐?”

“동국대 교수로 계시고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황수영 교수님 이십니다.”고 말씀드리자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죠. 그때 저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국민은행 종로지점장이셨을 텐데 아버지 짚차를 타고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 후 국립 박물관장을 하셔도 그 당시 20만원 안암동 전세집에 사셨어요. 두 분 만나시고 한 30분 되었을까 나오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중암동 집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 “역시 동경제대 출신답더구나 아주 한 말씀 한 말씀이 말씀마다 널 믿고 있고 제자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라며 기대가 크시더라. 네 뜻이 그렇다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 승낙을 하신 거예요. 해서 불교미술사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동생들과 서울에서 공부하려면 집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구호주택 큰집 두 채를 하라며 200만 원주셨는데, 100만 원으로 집 한 채만 사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유시장에 가서 좋은 카메라 흑백 칼라 2대와 필립등을 사고 나니까 70만 원이 남아요. 그래 일본에서 나온 최신행 3단짜리 자전거 한 대 사서는 방학 40일동안 남한 일주 하면서, 그때 상당히 많은 유적을 혼자서 보기도하고, 적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지요. 그때 그 사진들이 지금 그렇게 유용할줄 몰랐죠. 그때 필름을 다가지고 있어요. 다 이해하시는 우리어머니 아버지 참 고마운 분이죠. 제가 이제 집 한채를 들어먹고 이 방면을 시작한거죠. 아주 구체화시킨거죠.

한 번은 아버지가 춘천 전무이사로 계실땐데 서울에 오셨는데 약주 한잔 대접해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남한일주를 하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 어디 구경 한 번 하지꾸나 ” 그당시 천연 슬라이드니까 해서 쪽 보여드리며 여기는 오대산인데 그때 그것이 불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해

안은 이렇고 통영은 이렇고 하며 자료를 쪽 보여드리니까 1시간도 채 안되었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하하...

그 이튿날 아침에 “문서는?” 하셔서 문서를 보여드리니 “문서 또 하나는?”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려고 자전거 하나 사고 카메라도 사고 40일동안 남한일주 하느라 다 썼습니다” 실토했다.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니 “그럼 이것만은 틀림없이 네 집이었다” 그래 그 집이 하나 남은 거죠.

폐일언하고 모든 역경을 딛고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특히 은사님이 모두 저를 믿어 주신 덕입니다.

그때 자유당때던 어떤 일이 있었나면 은사님이 저한테 “저기 경상북도 칠곡의 팔공산 서쪽 기슭에 송림사가 있는데 전답을 해체하게 됐다. 하여 내가 참관하게 됐는데 방학때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나”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기차를 타고 경부선으로 대구를 거쳐 송림사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때 송림사 현장감독이 임천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업자는 기술진이라고 하지요.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양철수씨’ 양철수씨와 임천 선생님과 가까워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 밑에서 문화재 수리하면서 가방모찌라는 걸 하신 분이예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기록이나 실측하면서 하는 거죠. 현장감독은 임천선생이고 그것을 맡은 사람은 양철수 사장입니다.

처음으로 문화재를 전면으로 해체 수리 하는데 참여하고, 기록 남기고, 하나 하나 검토할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처음으로 탐이 해체되고, 그 안에서 처음 사리장엄이 출현한 게 바로 송림사 5층전탑 사리장엄입니다. 그때가 1959년도인가 그렇죠.

사리장엄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장엄을 서울 조계사에서 공개 친견해야겠다, 친견법회를 열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니까 사리장엄보 안의 밖이 돌로 만든 거북이야.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보자기 그 안에서 순금으로 만든 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여니 순유리 로만 그라스라는 그 귀한 신라시대 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순유리로 만든 병이 나오고 그 안에서 진신사리 4과 출현, 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계사에 갖다 놓고 친견법회를 여는데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진정이 오기를 이겨 우리도 친견법회하고 싶은데 순회 법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해서 1년 동안 주욱 모시고 사리장엄해서 남한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양철수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집 팔아 먹게 생겼어” “아니 왜요?”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복원작업이 1년 동안 보류됐다는 말이었어요.

사리장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수리하는데 제일 골탕 먹는 것이 문화재가 산속에 있고 산꼭대기 있는 것은 둘째 쳐 놓고 탑 가운데서도 전탑입니다. 벽돌탑이예요.

그때 제가 가보니까요 이 어른이 얼굴이 까맣게 돼가지고 여간해서 심정을 잘 얘기안하는 참 착한 양반인데 “정선생 여기좀 보쇼 100장을 만들어 놓아서 100장을 구우면 벽돌이 100장 건지기 어렵다 이거야. 그것도 그렇더라도요, 열심히 만들어 구었는데 100장 가운데 찌그러진 거, 갈라진 것 색깔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색깔 벽돌 구우려니 10장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1,000장 구워서 10장 건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탑은 수리해야겠고 그래서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망한거죠. 그 양반 집 있는 거 팔아먹고 전셋집 들어갔어요.

뭐 남의집 가정 이야기 할것 없겠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끝나서 어려움 겪고, 탑은 올리게 되었는데 진품은 밖에 뒤야겠다. 그래 좋다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지정해서 두고, 그것을 그대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북이들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임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모셨죠.

그리고 제가 현장 탑 꼭대기 2층에 모시고 있는데, 저 밑에서 뭘 쫓아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주스님이 “아~ 창랑댁이다 창랑댁” 창랑 장택상 전 국무총리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장택상씨 둘째딸 장병초라는 아이가 제가 숙명여고 2~3학년 때 가정방문을 2번 간 적 있었어요. 그래 그 인연으로 지금 창랑 장택상 기념사업회가 생겨서 나도 이사로 위촉 되어 있어요.

그동안 문화재 사랑하는 관료들 중에 가장 문화재를 사랑하는 분이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포도문 향아리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다 양보해서 보냈고, 불상 등 탑이니 이런 것들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부산시대에 국무총리 했었잖습니까! 6.25사변 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신탁통치반대 미소운동위원회 청위 이태가지고 반대 데모하고 그럴 때 이 어른이 수도청장이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문 앞에서 쪽하니 나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박수치며 하~ 어찌고 그랬는데 그런걸 생각해서 부산서 이 어른이 국무총리 할 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난 학교로 올라가고 판잣집으로 올라가고 이 어른은 국무총리니까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데 난 학생의 몸이지만 반가워서 그때는 각하입니다. 그래 “각하 안녕하십니까”인사를 했죠. 저를 기억하실리 있겠어요? 난 알지만 “학생인가?” “네 서울대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하시며 악수 청하셔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분은 가시고 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국무총리와 악수했다며 자랑하고 친구들 손도 못잡게 하고 웃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간에 팔공산 송림사 전탑에서 내려다 보니 저~~기 창랑댁 일행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주지스님이 내려가니까 부인이 온 거예요.

부인이 순은으로 순은판으로 명함처럼 10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두 양주하고 아들딸들 하여튼 10명 이름이 쪽 음각되어 있었어요. 그걸 법당에 가지고 가서 예불 드리고 오더라구요. “올라오세요” 하자 ‘제가 어딜 올라갑니까?’ 하며 주지스님께 드리니 주지스님이 가지고 탑에 올라와 펴보니 10개 더라구요

사리장엄이란 것은 사리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외에는 넣지 않는

것이죠. 불법이거든요. 이걸 모시는 가마 있지않습니까. 사리함에는 사리장엄을 봉안하고 함에다 불가에서 여러 가지 의물을 넣는데 불가에서 쓰던 글도 넣고 항목도 넣고 다 넣고는 돌로 된 함에 넣는데 함에는 아주 돈독한 신도들의 불심에서 나오는 의물들. 지금 창랑덕에서 가져온 10개의 은판 시주하느라 가져온 그런 것들을 봉안하는 거죠.

지금까지 2번 경험했는데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것과 탑에서 출현한 것 하고 문종이로 여러겹 싸놓은 걸 벗겨보니 5겹정도 썼는데, 거기서 아낙네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아낙네는 자기넨 시주할 게 없어, 여자가 머리를 몽텅 잘라서 넣는다는 건 최선의 성의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2번 봤을땐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하면 누런 금반지 몇 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 보니까 장택상 국무총리 사모님이 끼고있던 이것을(가락지)몇개를 쭉쭉 빼더니 다 집어 넣더라고요. 그건 사리장엄을 모시고 함에 넣을 때는 넣을 수 있죠. 납반지도 있고 은반지도, 은비녀도 있고, 우리가 탑 해체해 보면 사리공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각색 의물들. 반지 나오고, 가락지, 비녀, 동곳, 거울 등 뭐 별개다 나오지요. 그걸 넣고 뚜껑을 닫고 강회로 완전히 바르고 다짐을 해서 그다음에 2층 3층해서 전체 탑을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송림사 전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전탑을 수리하는데 차라리 모전 석탑 같으면 돌을 치석해서 괜찮은데, 벽돌을 구워 하다 보니 색깔이 다 다르죠. 벽돌탑을 보게되면 색깔부터 조사하게 되는데, 5가지 색깔이 다그러면 이것은 5번 최소한 5번 수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 전탑을 살펴보면 벽돌이 4가지가 있을거예요. 벽돌을 조각한 것도 있고, 문양이 다른 것도 있고, 색이 다른 것도 있고, 문양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적어도 4번 이상을 해체 수리한 거란 말이죠.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돌도 힘이 드는데 벽돌이야 하물며 수천 수만 개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양철수 씨가 첫 번째 이때 녹아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양철수 씨가 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경복궁안에 그대로 있지만 원주에서 일제시대 일본사람이 서울로 가져와서 그대로 동경에 가져간 게 있는데 바로 원주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현묘탑' 원주군 부론면 법천리의 큰 절터 법천사의 시조는 지광국사입니다. 지광국사현묘탑비는 현지에 있고 탑이 아주 아름답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그걸 몽땅 들어서 배에 실어 동경가서 어느 고관 대작집에 내려 났는데, 한국에서 모두 다 야단 치고 그러니까 귀국하여 경복궁으로 가져다 났죠. 경회루 앞에 앞쪽에 났는데 6.25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 당시 자유당때 문화재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걸 현지 감독할 사람이 임천 씨밖에 없는거예요. 일제시대때부터 문화재

손 보고 수리한 사람은 양철수 씨 밖에 없었어요. 정보경 씨나 임덕창 씨 이런분들은 아주 후배예요. 잘알죠? 정보경 씨도 잘 알고 돌아가신 임덕창씨도 잘 알지만 연배로 봤을 때 연차로 봤을 때는 양철수 씨가 일제시대부터 손을 댔으니까 일제시대때 양철수 씨가 현장감독도 하고 현장일 했을 때에 그걸 마지막 한 것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제가 이야기 듣기로 그걸 마지막으로 양철수 씨가 하고 해방이 된것이죠. 그때 연곡사 주지가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증언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 완전 망한 것이 '지광국사현묘탑'. 이것이 직격탄을 맞아 12,000조각이 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면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시절 고딘디엠 월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경희루를 구경하고 가는데 폭삭 주저앉아 산산조각 나 있는 지광국사현묘탑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게된 거예요 "이걸 왜 고치지 않고 이대로 뒀는가" 하자 "네 금방 고치려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이 떨어져 즉각 수리하게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때 양철수 씨는 숙명여고 학부형이었으므로 더욱 가까웠음)정말 12,000조각 틀림 없어요. 왜냐하면 조각이 있는 것은 조각 있는 대로, 작은 조각은 작은 조각대로 몇날 몇일을 세었죠. 가운데서 나온 조각, 조각없는 것은 그것들대로 모아놓고 조각이 있는건 그것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12,000조각인데, 이 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전국을 다 조사해 보니 황등돌하고 강화돌인거라 가져오기 쉬운 황등돌, 강화돌 이렇게 해서 조각은 조각대로 배치하고 조각을 딱 놓고선 가지고온 돌과 깨진돌하고 믹서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땀질은 한겁니다

누가 했느냐? 임천 선생님이 땀질을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기엔 뻘지르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맨 땀질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관리국자리 맨앞에 지금의 고궁박물관 자리에 겨~우 옮기는데 그때 상당히 혼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때 산산 조각이 나는 거예요. 옮겨보니까 이 이상 여기서 다른 곳에 옮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 탑과 석등이 다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용산 국립중앙 박물관에다 모두 옮겼지만 이 탑만은 옮길 수가 없어요. 옮겼다간 다 산산조각날텐데요. 그래서 그 탑만은 지금도 고궁박물관 북쪽 옆 잔디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야기길 하길래 "아유 난 책임못진다 그거 다시 옮긴다면 다 산산 조각이 나서 다시구제 불능이다" 석조물 하는 사람 모두 와봐야 모두다 구제 불능이다. 그래 그 옆 북관대청비 옆에 그대로 서 있죠. 그 탑 외에는 모두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실어 갔죠. 지금 지광국사현묘탑 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 원주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원주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어 원래 위치에 세웠으면 좋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경남 창영 봉림사 진경대사탑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탑하고 비를 똑같이 모조품 허가를 받아 모조품을 만들어 공원에 그걸 놓고,

다 적었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정식신청 해보라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보게 되면 소상히 설제도 하고 했지만 설계변경 이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설계변경 해 봐야 변경한 만큼 비용이 나오나요?

그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돈 나오는 것이 자체에서 돈이 나왔거든요. 자체에서 자금자족 하게 돼있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했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그래도 그런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정말 손해 본다 손해 본다 보통 장사꾼들이 손해 본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실제 보면 손해 보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때 몇 분 보면, 더욱이 양철수 씨 보면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분 하는 것 보면 그 분은 의무감에서 하더라구요. 의무감에서.. “제가 맡은 이상 이걸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나는 나이돼서 죽으면 끝이지만 나의 작품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양사장님이 늘 말씀 하셨죠.

한 번은 월정사탑을 해체 복원하는데 정복영 사장님. 그분이 원래 강원도 횡성군의 안흥이 고향이시죠. 비행기로 강릉 가는데 대관령을 넘어 가면서 바람이 세서 기후 악화로 다시 김포공항으로 회항 했었어요. 그래 김포에 내려 “다음 기회에 보죠” 하자 정복영 사장님 말씀이 “내일 토요일이고 모래 일요일인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뭣하시면 약이라도 들고 같이 가시죠” 해요 난 괜찮다고 “난 당신보다 젊으니까 괜찮은데 갈 수 있겠소” 하니까 “가야죠” 하는 거예요. 난 속으로 이 양반 책임감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죠.

김포에서 택시 잡아 동묘 자기집까지 가서 부인에게 돈을 전해 받고는 택시로 밤새도록 그 자갈길 험한 길을 간 거예요. 현장에선 이제나 저때나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연락이 되질 않으니.. “그래도 현장서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릴 봐야 안심을 하지요” 하더라구요. 그렇게 책임감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때가 70년도쯤인데 해체를 해보니 큰일 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돌이란 것이 하중이 강할 땐 이 옥계석을 모릅니다. 위에서부터 걷어내면서 해체 하다보니까 갈라진 것이 ‘와르르르’ 에요. 그래 옥계석 2개를 못쓰게 된거죠. “그럼 현장에서 선생님이 이걸 사인 해 주시고 사유 적고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고 사유 적고 설계를 변경해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1년을 넘기게 되니까 옥계석 2개를 새로 마련하고 그리고 옥계석 먼저것은 옆에 쌓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분 조금도 불만이 없었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돌일을 하다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거 잘해도 욱먹고 조금이라도 찌끔 잘못되면 소리 지르고 야단들인데... 그것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천석이라고 이 양반이 얼굴이 곰보죠. 그래 별명이 곰보, 곰보 인데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그래도 전 별명은 못부르고 곰보선생 그랬죠. 그럼 이 양반이 오냐 오냐 했었죠. 그 양반이 감은사탑 해체 시 무릎을 못쓰서 가지고 메고 다녔죠. 그래도 책임감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사람이 홍정수예요.

내가 홍정수를 왜 좋아 하느냐면 “내일 가서 몇 시에는 착수해야 하는데 날씨가 좀 그렇다” 하면 “해야죠 뭐” 그리고 나선 밤새도록이라도 가서 현지에서 묵습니다. 부인 또한 대단 합니다 개나리 보따리 싸가지고선 내복 같은 거 다 가져다 주고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것이 유명한 곰보 김천석 씨와 매부, 처남 지간이더라고요. 홍정수 씨와 김천석 씨가 아마 처남 매부 지간이라 거기에서부터 배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약 10년 전에 익산의 미륵사탑 해체 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관리들 하는 일이 기술을 잘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3-4번 위원회도 만들고 하다가도 안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 “미륵사는 그렇게 해선 안된다.” “미륵사는 탑을 하나하나 하면서 돌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돌 수만 개를 가지고 만든 건데 현지에 있는 것도 수천 개 아니냐.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된다”. “목도 하고 다르다. 급히 서두르면 안된다”

“여기 있으면서 돌을 다루는 사람 이거든. 돌을 다루면서도 우선 드잡이다 드잡이라는 하나의 분야다” “그럼 어디 좋은 사람 있습니까?” “현재로 봐선 흥박사 밖에 없다. 홍정수 석조박사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문화재청에서 위촉해 거기에 있도록.. 다만 개인적으로 어디에 탑을 해체 한다던가 어디에 석등이나 석조미술품 등을 해체복원하는 작업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작업할수 있다는 그런 조건하에 거기에 이 ㅏㅏㅏ 양반을 전속으로 만들어 났어요.

전속이 되니까 그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작고하기 1달 전인데.. 내가 학술지도위원으로 내려가면 이 양반이 아무리 바빠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간 양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좀 몸이 안좋아 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국가에서 큰 상을 탄 후라 술 좀 많이했다고해 술좀 끊으라고 했는데 그 후 병원 입원하더니 얼마 후 세상을 떴죠.

그래 너무 무리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 일이라는 게 참 무리해서 해야하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나이들이 있고 하니...

제가 그전에는 KTX 새벽에 타고선 대마도도 왔다갔다 하곤 했는데 이젠 80이 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하는고 하니, 이젠 80고개 넘었으니 특실타고 다녀라. 다른 것에서 아끼고 하며 요즘엔 특실표를 사줘요. 옆사람에게 불편 끼치지 않고 하니 참으로 편안하고 좋아요. 이거 무리하면 안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제가 이제까지 모시고서 드잡

이 한 여러분들이 있지만 흥정수씨가 가장 머리에 남습니다. 그 양반은 늘 한번도 상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내가 일하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속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상하면 딱 중지 시키고 이 양반이 제게 이리저리한 이야기를 하면 “나보다 흥박사가 속 들어가면 더 잘 알지않느냐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하고 했죠.

탐을 해체하면 함몰된 부분만 고치는데 그렇게 함몰된 부분만 고치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그래 요즘 과학하는 사람으로 지하를 뚫고 지내력이 어떻다 하는데 신라시대 고려시대때 뭐 지하 뚫고 지내력 알고 했나요? 그 부분만 알면 됐지..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석조미술을 잘 다뤄줬던 분이 가셨는데, 이제 후학들도 많이 계시니까 좋은 작업들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표본이 미륵사 탑인데 미륵사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복원도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에서 학자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만큼 석조물들이 발달되지 않고 목조물들이 발달했죠.

제가 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 우리 입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 문화재수리 해서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돈 벌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대로 현상유지와 그런대로 후학을 기르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과장된 게 아니라, 문화재 수리하다가 집 팔아먹고 문화재 수리하다 셋방살이 하고 이런 상황을 실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만큼 뒷받침이 아직 덜 되고 있다는 거죠. 해주긴 해 주겠지만 그만큼 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맘 놓고 문화재 수리가 되겠느냐.. 맘 놓고 자기 기능인으로서의 기능이 발휘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 하나 늘 의문스럽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처음 할 때 40년, 50년 전에 비유하면 많이 나아졌죠.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저 문화재 수리하는데 ‘민족문화재’ ‘우리의 보배’ 이렇게 하면서 그저 깎기만 하는거 이진 안돼요. 깎기만 하면서 좋은 거 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느나라 모양으로 그것은 그것 가지고 안된다. 더욱더 좋은 걸 해달라 하면서 더 옹호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깎기만 한단 말이죠. 이진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군데에 문화재발굴조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단도 이젠 입찰제로 해 버렸다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용역인데, ‘문화재 보존’ ‘문화재 수리’도 이게 학술영역이예요. 따져보면 안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전통문화죠. 전통문화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전통이 아니예요, 5년보다 10년, 10년보다 100년, 100년보다 500년 아주 저슬러 올라갈수록 오랜 역사 속에서 이뤄지는 게 연마고,

연마 끝에 이뤄지는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통 전통하고 자랑하면서 세계만방에 내놓는 것이 전통이다 전통이다 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그 밑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밑바닥을 튼튼히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문화정책 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떠들면서 그냥 공수표만 남발 하는게 너무 많아요. 문광위 위원들 가만히 보면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맨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하간 오늘 귀한 자리에 무슨 이야길 했는지 생각 나는데로 이야기 했는데 건방지게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만방에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민간외교관이랄까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가에서 덮어놓고 후원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일 했으면 일 한 만큼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자긍심 가지시고, 내가 아니면 이 작품이, 내가 아니면 이 건축물이, 내가 아니면 석조 미술이 살아나겠는가..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것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또 지탱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신라 석탑의 진수, 석가탑과 다보탑 - 그 꽃이 피기까지의 스토리 텔링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실장 소재 구

1. 위대한 성덕대왕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탄탄한 통일왕국의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듯... 나라는 통일되었으나 국정의 안정은 왜 이리 힘이 들었는지... 문무왕은 백제, 고구려 그리고 당나라와의 끝없는 통일 전쟁을 끝내고 나니 이제 민심과 정국을 수습할 차례였다. 공적 배분, 귀족간의 실권경쟁 등으로 불안한 국가기강을 다잡는 것으로는 불교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 신라 땅은 부처님이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야 했다. 그래서 통일의 공덕과 국운의 화평을 모두 부처님께 기원하고자 감은사가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은 감은사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삼한을 통일시켜 놓고도 어지러운 정국 속에 혹시 왜적이라도 쳐들어 올까봐 얼마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면 눈을 감으면서까지도 나의 시신을 동해바다에 묻어 달라... 나는 신라를 지키는 동해용이 되리라... 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어쨌든 호국을 기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감은사의 건설은 그의 아들 신문왕에게로 넘겨졌으며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감은사를 완성하였다.



감은사지 삼층석탑

하지만 감은사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신라왕조의 평화는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가장 안정되어야 할 왕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그것도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신문왕은 장인을 붙잡아 목을 치고 왕비도 제거했다. 그런 와중에 신문왕은 재위 11년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신문왕이 죽자 왕위는 큰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이분이 바로 효소왕이다. 그러나 효소왕도 만년에 왕이 되어 재위 11년 만에 죽고 다시 왕위는 효소왕의 동생이며 신문왕의 둘째 아들인 성덕왕으로 이어졌다.

성덕왕이 등극하자 또다시 왕의 외가 쪽에서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다. 부왕인 신문왕 때에도 이런 일이 있어 결국 궁내에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성덕왕 자신도 왕이 되자마자 또 그러한 기운이 감돌게 되니 성덕왕은 비장한 결단을 내리고 결국 장인과 왕비를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권세가 미약한 가문에서 새 왕비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새 왕비는 아들 둘을 낳고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졸지에 홀아비가 된 젊은 성덕왕.... 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로 불쌍한 어린 애기 왕자들... 그러나 성덕왕은 다시 한 번 비장한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새 왕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외척의 세도를 불식시켰다. 또한 죽을 때까지 홀아비로 살면서 두 왕자를 키워냈다. 젊은 나이에 상처하고 두 애기 왕자까지 떠안은 성덕왕도 오직이나 부인이 필요했을까마는 그에게는 사생활 보다는 국운을 짊어진 왕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홀아비 성덕왕은 37년간이나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하였다. 이러한 성덕왕의 희생에 하늘이 감동하였는지 성덕왕의 등극 이후로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시절이 성스런 임금과 함께 37년간의 기나긴 시간동안 지속되니 비로소 통일왕조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 바로 성덕왕이었으니 후세에 '성덕대왕'이라는 극존칭이 붙을 만큼 위대한 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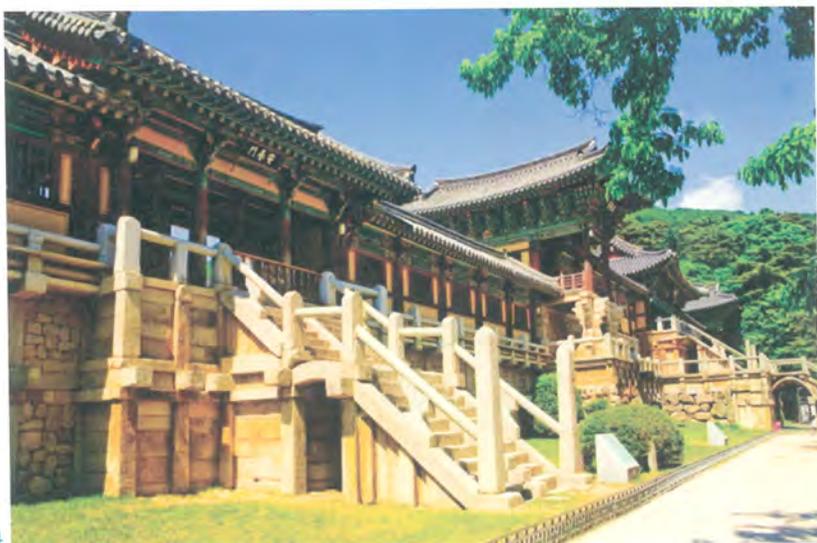
2. 효심으로 불국토를 염원했던 경덕왕

성덕왕이 타계하고 그의 아들 효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효성왕은 재위 5년 만에 후사도 없이 눈을 감게 되었다. 이에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가 바로 경덕왕이다. 경덕왕은 부왕 성덕왕의 덕택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신라왕조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최대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또한 화평스런 신라사회는 모두 부처님의 음덕이라 생각하여 불교로써 민심을 결집시켰다. 그리하여 신라 건국 이래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고 국혼을 불심으로 결집시켜 국가 대찰 불국사와 석굴암 조영함으로써 신라국에

위대한 불국토를 건설할 것을 꿈꾸었다.

금강산은 범기보살의 주처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주처이며... 이처럼 신라 땅은 도처에 보살님이 살고 있는 불국토요... 그래서 저 유명한 불국사를 지어 현세의 석가모니불과 과거의 아미타불을 모시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짓고 토함산 정상에는 석굴암을 세워 세상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신라 땅을 비호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불국사 법당 앞에는 다보탑, 석가탑을 쌍탑으로 세워 묘법연화경의 설법내용을 그대로 탑으로 구현시켰다.

경덕왕은 이 모든 성공적인 왕업이 모두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 성덕왕의



불국사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나를 낳아주시고 돌잔치도 치르기 전에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어머니.... 경덕왕은 어머님 얼굴이 기억에 없었을 것이고 평생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이며 홀로되신 부왕 성덕왕이 엄마도 없이 자신을 37년간이나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아버님이 베푸신 은혜... 보고픈 어머니....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 그토록 사무친 경덕왕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경덕왕은 혼신의 정성으로 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불사를 일으켰으니 이러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사찰이 바로 봉덕사였고 그곳에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만들었던 종이 바로 '에밀레'종이라 부르는 성덕대왕 신종이었다.

3. 정상의 꽃을 피운 석가탑과 다보탑



불국사 석가탑

통일신라 왕국의 문화를 최고조로 성장시킨 경덕왕은 성덕대왕 신종과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을 통하여 보여주려 하였던 것이다. 특히 석굴암과 불국사의 위용,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공간배치의 오묘함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도 어느 건축가가 그 옛날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건축 설계를 고안해 낼 수 있을까...

또 석탑 조영에 있어서도 불국사 대웅전 앞에 세워진 석가탑과 다보탑은 우리 석탑의 정수였다. 수백 년 다듬어온 석조미술품의 결정판으로 석가탑은 완성되었다. 얼핏 보면 아무 장식 없는 맛없는 탑처럼 보이나 거기에는 치밀한 수학적 비례가 숨어 있다. 기단의 너비는 탑신의 높이와 동등하고 각 층의 폭 또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의 구도 속에 안정되고 말쑥하고 단정한 자태를 드러냈다.

기단의 사잇기둥을 배치하는 법, 탑신의 지붕 밑에 층단을 매기는 법 등 모든 조형기법도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그래서 아무런 치장이 없어도 늘 볼 때마다 아름다운 미남의 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대적 조형의 수치를 뽑아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탑 짓는 것이 어려웠으면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날을 기다리다가 끝내 탑 지으러 간 남편을 보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아사녀의 슬픈 전설과 함께 이 탑에 '무영탑'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을까....

그 반대편에서 있는 다보탑은 조형적 특징이 석가탑과 정 반대를 이루며 강렬한 콘트라스트를 유발시킨다. 극도로 화려하고 세련된 구성으로 조성된 탑인 것이다. <모범연화경>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하는 자리에 늘 다보

여래가 등장하여 석가여래의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보여래는 땅 속에서 탑으로 솟아오르겠노라고 서약한다. 그 탑이란 너비가 2천리요 높이가 3천리나 되며 온갖 보배로 치장되고 화려한 난간을 지닌 보궁형 탑이 되겠노라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4. 다보탑의 비밀

그러나 다보탑은 하늘에서 떨어진 탑이다. 석가탑의 형태가 나오기까지는 그 내력과 족보가 있고 훗날 석가탑을 모방하는 수많은 석탑의 후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보탑은 석가탑과 달리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다. 우리 민족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탑이라고 자랑하며 우리의 화폐에도 새겨진 유일한 탑이건만 이 탑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이 변혁을 일으키면 문화 역시 변화의 바람을 타게 된다. 석가탑이라는 석탑의 진수, 절정기 테크닉의 석탑이 나오는 시점에 들도 보도 못한 다보탑이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크게 변한다는 이야기다. 전자산업이 극도로 발전한 시점에서 인터넷 문화가 불길처럼 일어나 첨단 전자제품과 첨단의 컴퓨터가 공존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다보탑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첨단의 석탑조형의 테크닉을 파격적으로 응용한 석탑이다. 딱 막힌 석탑의 내부공간을 기둥 네 개로 바꾸어 공간을 환관하게 트여 놓았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시원한 건물은 시원함을 갈망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다. 즉 추운지방의 건물에는 대청마루가 없다. 방 바깥으로 뒤틀마루도 없고 난간도 없다. 추워 죽겠는데 마루 난간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그러나 다보탑은 사방으로 확 트인 탑이다. 위층에는 난간도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발전된 신라사회에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따뜻한 남방의 건축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이다. 아니면 적어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덕왕 대에 절정에 이른 신라문화는 또다른 변화의 조짐을 이 탑에서 예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 문화의 융성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그리이스 정복과 알렉산더의 출현이 나타나고 로마제국의 융성 후에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분열이 있었듯이...

다보탑을 보면 사방에서 계단을 따라 높직한 기단 위로 오르게 되어 있다. 다 오르고 나면 그 곳 네 모서리에는 굽직한 사각기둥이 네모난 1층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눈을 들어 지붕 위를 보면 난간이 있고 그 위로는 탑의 형태가 팔각으로 바뀐다. 무슨 뜻인가...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는 의미

이다. 전통건축에서 팔각은 원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팔각의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조상들은 지상에서부터 팔각을 채택하지 않았다. 최소한 지상의 기단 만이라도 사각기단을 나두고 나서야 비로소 팔각의 건물을 올렸다. 옛사람 들이 생각하는 천지간의 법도가 건물을 지을 적에도 그러한 도형으로 나타 났던 것이다. 이른바 '천원지방설'이다.
사각의 난간 기둥을 세우고 난간대를 지른 형상은 목조건축을 흉내 내었다.



불국사 다보탑

사각 난간 위에 또 팔각 난간이 있다. 거기서 연꽃을 받치는 기둥은 돌로 만 들었지만 그 형태는 필시 대나무 기둥이다. 이것도 목조 건축의 흉내를 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탑도 원래는 목조탑이거나 목공예탑으로 이미 만들어 졌던 탑임에 틀림 없다. 돌탑이지만 목공예적이고 목조건축적인 자취가 너 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탑의 조상은 이렇게 목탑이나 목공예 탑으로 분명히 있었을 게다.

탑의 윗부분에서는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올랐다. 연꽃 위로는 받침을 세워 팔각지붕을 받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테크닉이 발휘된다. 성보의 꽃 연화... 쟁반 같은 연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위로는 지붕을 씌워야 하는데 저 아름다운 연꽃 위에 차마 기둥을 박을 수는 없었나 보다. 생각해 보라... 공들여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그 꽃 위에 기둥을 박고 지붕을 씌우다니.... 그건 성스런 연꽃 위에 여덟 개의 말뚝을 박는 거나 다름 없었 다. 무심한 석공이라면 연꽃 위에 그냥 막무가내로 기둥을 박아 지붕을 얹었 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일급의 석공은 달랐다. 저 아름다운 연꽃을 상하지 않고 자연스런 받침기둥을 얹어 지붕을 받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하여 고안해낸 지붕받침이 ㄱ자형 기둥이다. 연꽃과 지붕받침 부재의

조화를 살리기 위해 기둥형태를 피하여 팔방으로 7자형 받침을 배열하였던 것이다. 얼핏 보면 이 7자형 지붕받침은 장화를 거꾸로 받친 모습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라... 굉장히 세심한 윤곽선과 줄을 돌귀 새긴 다듬새에 정성이 깃들여 있다. 감히 신발을 모방하다니.... 말도 아니된다. 그럼 무엇을 모방한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연꽃에 있었다.



다보탑의 윗층 지붕 받침과 연꽃의 꽃술

석공은 아침마다 연당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참으로 유심히 관찰하였다. 연봉오리가 터지고 연꽃이 만개하면 꽃의 한 가운데에는 암술이 불쑥 솟아 있고 그 주위에 수술이 둘러가며 돌아나 있다. 가느다란 수술대를 타고 올라온 수술머리는 바깥 쪽으로 머리를 꺾는다. 바로 7자의 형국이요 그것이 암술 주위에 원형으로 빙 둘러 피어나 있으니..... 신라 석공은 바로 이것을 착안한 것이다. 연꽃잎 안쪽으로 둥그렇게 자리한 수술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탑 위에 그대로 옮겨 쟁반같은 연꽃을 놓고 암술을 돋우고 그 주위에 7자형 수술을 빙 두른 것이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기발한 착상인가... 이렇게 연꽃잎 안에 피어난 암술과 수술모양으로써 지붕받침을 삼았으니.... 연꽃의 아름다움을.... 연꽃의 성스러움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 위로 팔각 지붕을 올릴 수 있었다. 참으로 연꽃과 지붕을 연결한 멋진 발상이요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었다.

불교의 대표하는 석탑

1. 탑파의 기원과 발전

돌로 불교 미술품을 만들어 불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불교미술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돌로 만들어진 불상들은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간다라 지역의 많은 불교 사원들이 석조로 된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특히 간다라 석조미술은 페샤와르 분지와 스와트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같이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에도 석굴과 석조상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상들이 조성되게 된다. 돌은 강하면서도 자연스런 소박한 미를 간직하고 있다. 돌은 자연 속에 있지만 돌을 다듬는 순간 생명력이 느껴진다. 석조미술은 돌을 다듬어 생명을 넣고 혼을 스미게 하여 경건한 예배의 대상이 된 조형물들을 말한다. 그래서 석조미술에는 석탑, 석불, 석조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석조 등이 만들어져 경건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예술품으로 감상 대상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단국대학교 교수,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실
실장 엄기표

석탑은 다양한 유형의 탑파(塔婆)의 일종으로 고대의 인도 스투파(stupa)에서 유래하였다. 최초의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기념물로 불가에서 불상과 함께 가장 성스러운 예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불교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아시아에 폭넓게 전파된 불교 신앙의 중심에는 불탑이 있다. 불탑은 사원에서 가장 중심공간에 세워지는 조형물로 사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불경에 기록된 최초의 탑은 석가모니의 10대제자 중의 한 사람인 사리불(舍利佛)의 탑이다. 사리불은 석가모니보다 먼저 죽었는데,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허락을 받아 사리불의 탑을 세워주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석가모니의 제자였던 목건련(目犍連)과 바이하의 탑도 석가모니의 허락을 받아 조성해주었다고 한다.

불교신앙과 사찰 가람에서 중심이었던 인도의 스투파는 의역하여 방분(方墳) 또는 고현처(高顯處)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시신을 모신 신성한 장소나 기념물을 의미한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여 신골(身骨)을 매장하는 종교적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그 유해를 모시기 위하여 분묘의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후세에 전해져 불탑(佛塔)의 시원이 되었다. 당시 인도에서 세워진 복발형의 무덤을 일반적으로 스투파라고 불렀다. 이것은 고대 인도어인 범어 ‘stupa’를 의미한다. 스투파의 원뜻은 신골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흙과 돌을 쌓아 올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인 불신골(佛身骨)을 봉안하는 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즉 탑파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기념물적인 조형의 상징물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탑이란 부처의 사리를 모셔놓고 예배하는 신앙의 대상물이다. 탑파는 팔리어(巴梨語)의 ‘thupa’가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를 음역하여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탑파는 탑으로 줄여서 말하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 탑파의 유래는 석가모니가 80세에 이르러 인도 쿠시나가르 사리쌍수(沙羅雙樹) 아래에서 입멸한 후 그의 제자들이 유해를 화장(荼毘)하였다. 이때 인도의 여덟 나라가 사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쟁탈이 일어나게 되자 도로나(徒廬那)라는 제자의 의견에 따라 불타의 사리를 똑같이 여덟 나라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분사리(分舍利)’ 또는 ‘사리팔분(舍利八分)’이라 한다. 당시 각 나라는 사리를 정성스럽게 봉안할 수 있는 탑을 세우고 병탑(甁塔)과 회탄탑(灰炭塔)을 각 한 개소에 세워 모두 10개의 탑을 세운다. 이것이 불교에서 탑파의 시원이 되었다. 결국 탑파를 세운 목적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잘 봉안하기 위한 시설이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위대한 진리를 터득한 석가모니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사리에 대한 신앙심에서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탑파가 만들어지면서 사리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석가모니는 죽은 후에도 신성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석가모니가 입멸한지 100여년이 지나 대인도제국을 건설한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Asoka:阿育王)은 불사리(佛舍利)를 안치한 8기의 탑 중 7기의 탑을 해체하여 사리를 꺼내어 다시 8만 4천으로 나누어 전국에 걸쳐 8만4천개의 사리탑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아쇼카왕은 전국에 탑파를 세워 불교를 크게 융성시키고 전파시켰다. 이때 세워진 탑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어 탑파의 시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건립된 인도의 시원적인 불탑들은 반구형(半球形)으로 마치 분묘(墳墓)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원분형(圓墳形)이었다. 또한 바리를 얹어놓은 모습과 같다고 하여 복발형탑(覆鉢形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탑파들을 스투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기념물로서 많은 불도들의 예배대상이 되었으며,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다시 인도에서 탑파를 비롯한 불교문화는 기원후 2세기말경 쿠산(Kusan)왕조의 카니시카대왕이 집권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도 산치탑 전경



인도 산치탑 부조상

이와 같이 초기에 만들어진 불탑들의 재료는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이나 돌을 벽돌모양으로 잘라 만든 모전(模磚)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스투파는 야외에 대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석굴사원의 중심에 세워지기도 한다. 스투파는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만들어지며, 야외에 건립된 스투파는 원형으로 난간을 돌리고 입구에 문을 마련하거나 돌기둥(石柱)을 세운다. 그리고 벽돌을 활용하여 복발형의 탑신부를 마련하는데, 계단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다. 정상부에는 산개등과 조형물을 올려 장식을 한다. 한편 석굴사원들은 사원의 중심에 스투파를 세우고, 그 주위로 수도승들의 방이나 작은 형태의 봉헌용(奉獻用) 소형탑들을 건립하기도 한다.

시원적인 형태의 스투파들은 차차 시대가 흐르면서 높은 기단을 만들어 탑신을 받치고 주위에 난간을 돌려 아름다운 조각상을 배치하며 복발 상단부에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상륜부를 마련하게 된다. 스투파의 기본 형식은 기대-복발-평두-산간-산개 등으로 구성되며, 주위에는 난간과 같은 난순(欄楯)을 돌리고 출입을 위한 문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인도탑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복발형 인도탑은 상륜부에 그 형태가 계승되게 된다. 그리고 탑신부는 누각식 건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도의 스투파가 중국으로 전래되어 새로운 형식의 전탑(塼塔)이나 목탑(木塔)들이 만들어져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되는 모든 나라의 탑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리나 불경, 작은 불탑(小塔), 불상 등과 같이 불교를 상징하거나 진신사리와 같이 공경이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시게 되었다. 이를 법신사리(法身舍利)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탑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신사리를 봉안하여도 탑파로서의 가치와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불교는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던 시기에 전래되었다. 고구려는 372년 진에서 온 승려 순도(順道)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면서 수용되었다. 백제는

이보다 약간 늦은 384년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불교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는 신앙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가람은 아니지만 수행이나 머물기에 적당한 간단한 형태의 가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예배와 신앙의 공간인 가람이 본격적으로 창건되면서 사찰의 중심에는 목탑이 건립되게 된다. 목탑은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자 예배의 대상이었다.

삼국시대 사찰 가람에서 중심 공간에 목탑을 조성한 예는 고구려와 신라를 비롯하여 백제 사비 시기의 사찰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는 청암리사지, 원오리사지, 정릉사지 등이 팔각형의 평면을 가진 목탑을 건립하여

사찰 가람의 중심공간에 배치하였다. 신라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하여 흥륜사지, 천주사지, 영묘사지 등에도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변 9개의 나라로부터 신라를 불법(佛法)에 의하여 수호한다는 호국사상에 의하여 645년 건립되었다. 이후 여러 번 중수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몽고 침입 시에 소실되고 말았다. 백제는 부여의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가탑리사지, 서복사지, 용정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에서 사찰의 한가운데에 목탑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비시기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많은 목탑을 세워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불교의 성행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신라 황룡사 9층목탑은 백제 건축가가 초빙되어 건립함으로써 백제 목탑 기술이 가장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는 사찰 가람에서 목탑이 중심 공간에 배치되어 불교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익산 백제 미륵사지 목탑지



경주 신라 황룡사지 목탑지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목탑지로는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보문사지, 기림사 등 뿐만 아니라 경주에 소재한 다수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신라의 목탑지는 평면이 사각형이며, 심초석을 마련하여 불사리를 안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석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많은 목탑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던 고려는 개경을 중심한 지역에 수많은 사찰을 창건하였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기록상 송도를 중심한 지역에 건립된 개국사, 중광사, 민천사, 보제사, 연복사, 중흥사, 진관사 등 다수의 사찰에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목탑지로는 흥왕사지와 만복사지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목탑을 모방하여 만든 금동탑이나 청동탑이 많이 제작되어 고려시대 건립된 목탑의 모습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목탑은 삼국시대 건립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건립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대의 목탑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고대 목탑의 외형이나 구조, 양식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 건립되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주사 팔상전(捌相殿)이 그나마 목탑의 외형과 구조를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목조건축물과 청동다층탑 등이 한국 목탑의 양식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대 동양 삼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목조건축물과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목탑 양식을 추정하는데 좋은 학술적 자료가 되고 있다.



법주사 팔상전



중국 불공사 목탑

백제는 우수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까지 백제시대의 목탑 외관이나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백제 사비 시기의 목탑이 세워졌던 자리가 조사되면서 목탑의 평면, 기단부 수법과 양식, 심초석이나 사리장엄구의 봉안법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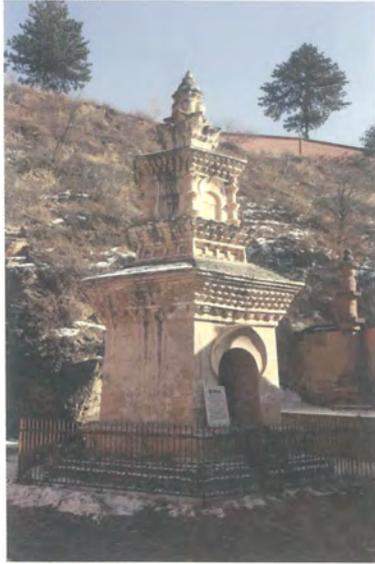
현재 목탑의 평면은 고구려 목탑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각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라를 비롯하여 백제 사비 시기 건립된 부소산 서복사지,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금강사지, 미륵사지 등 조사된 유구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사각형이 건축 구조상 가장 안전하고 건립이 용이하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부는 평면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엄청난 목탑의 하중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를 파내려가 다지면서 판축을 하였다. 이처럼 기단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시설로 건물의 밑바닥과 주위를 지면보다 높게 만들게 된다. 기단을 높게 마련하는 이유는 목탑을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격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기단 외곽은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 다듬은 부재들을 연결하여 돌린다. 그리고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는 육중한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치기 위하여 대형 초석이 놓여진다. 초석의 견고성은 목탑의 내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초석들이 놓이는 한 가운데에는 심초석이 놓이고 그 안에 목탑이라는 건축물의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는 사리가 봉안된다. 사리가 봉안되어야만 층수가 높은 건물도 진정으로 목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탑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목탑의 외관은 선진 문물을 전수 전파하면서 외교 관계를 가졌던 중국이나 일본을 통하여 백제의 목탑을 그나마 추정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중국에서 탑파가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동한과 삼국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남북조시대부터 많은 양의 탑파가 건립되는데, 그 중심은 목탑이었다. 이처럼 중국도 불교 전래 초기에는 나무를 활용한 나무탑(木塔)이 많이 만들어진다. 나무탑은 동한시대에서 남북조시대까지 가람의 중심을 차지하며, 9층·11층·13층 등 고층으로 건립된다. 이후 수·당시대(581~618~907)에 이르러 불교가 융성하면서 많은 벽돌탑(磚塔)이 세워지게 된다. 벽돌탑은 금나라 시대까지 불탑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건립된다. 벽돌탑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면서 수·당시대 이전에 건립된 나무탑들은 화재로 소실되거나 훼손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오늘날 중국에 남아있는 불탑은 벽돌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다.

중국의 탑은 크게 지궁(地宮), 탑기(塔基), 탑신(塔身), 탑찰(塔刹) 등으로 구성된다. 지궁은 중국 불탑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로 지하에 설치되는 작은 궁전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사리나 불경 등 진귀한 보물을 봉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탑기는 탑신을 받치는 부분으로 기단부에 해당된다. 당나라 이후에 건립된 불탑은 기대(基臺)와 기좌(基座)로 나누어진다. 기좌는 시대가 흐를수록 높아지고 화려해진다. 탑신은 탑의 주요 부분으로 안이 비어있는 중공식(中空式)과 차있는 실심식(實心式)으로 나누어진다. 중공식은 대형탑으로 안쪽에 마련된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 관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탑이고, 실심식은 안이 차있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탑이다.

어쨌든 중국의 경우도 고대에 건립된 목탑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고대 목조건축물의 구조나 조영 수법을 알려주는 건축 유구나 유적을 비롯한 간접적인 유물들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승악사탑은 현존하는 중국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목탑의 구조나 조영 수법이 변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중국은 남북조와 수대를 거치면서 목탑뿐만 아니라 전탑의 건립이 성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수나라 문제(文帝)에 의한 인수 연간(仁壽年間:601~604년)의 총 3회에 걸친 전국적인 사리탑의 건립은 중국에서 탑파의 건립이 본격화되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후 당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각양각색의 탑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탑을 비롯한 전탑의 건립이 일반화되면서 서안(西安)과 낙양(洛陽)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탑파가 건립된다. 이러한 탑파들의 형식과 양식이 지역별, 사찰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지만 그것의 시원에는 목탑이 자리하고 있었다.

석탑이나 전탑 등 다양한 탑파의 시원 양식이 목탑이며, 목탑을 변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탑파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목탑을 변안한 현존하는 탑파들이 고대의 목탑 양식을 추정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목탑을 변안한 대표적인 탑파로 서안시에 있는 대안탑(大雁塔)과 소안탑(小雁塔)을 비롯하여 화엄사지 두순탑(華嚴寺址 杜順塔)과 흥교사 현장탑(興教寺 玄奘塔) 등이 있다. 이 탑들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알 수 있어 전탑 양식뿐만 아니라 목탑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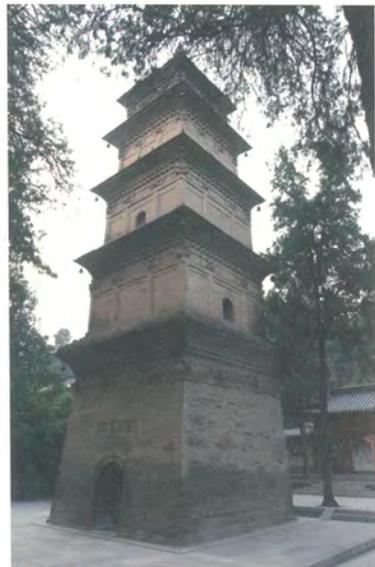
불광사 조사탑



송악사 13층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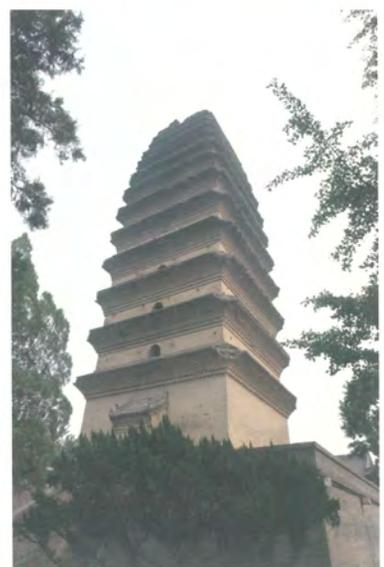
화엄사지 두순탑



홍교사 현장탑



서안 대안탑(652년)



서안 소안탑

이처럼 당나라 초기에 건립된 탑파들은 목탑의 세부 결구 수법을 충실히 번안하였으며, 목탑으로부터 전탑이나 다른 재료의 탑파 양식이 전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당나라 전탑들은 처음에는 화엄사지 두순탑이나 홍교사 현장탑과 같이 목탑을 번안한 탑파들이 조영되었다가 점차 목탑이나 목조건축적 요소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생략이나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는 탑파들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중국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목탑이 아닌 다른 재료의 탑파들을 통하여 목탑의 구조나 양식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여러 번의 중창과 중수를 거쳤지만 초창기의 구조와 양식을 전해주고 있는 목탑들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목탑이 법릉사(法隆寺) 오층목탑이다. 이외에도 비조사(飛鳥寺)를 비롯하여 많은 목탑 유적들이 남아있어 목탑 기단부의 세부 수법과 양식, 사리장치 등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백제는 일본에 많은 선진문물을 전해주었는데, 그 중에 목탑 건립과 관련하여 노반박사(露盤博士)와 와박사(瓦博士)가 주목된다. 노반박사는 탑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로 추정되는데, 탑파의 제일 위에 올리는 상륜부가 가장 높고 화려하여 이를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한 노반을 만들었던 전문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조건물을 지을 때 기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와박사가 있었다. 이처럼 탑파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의 노반박사와 와박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 목탑의 건립이 백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법릉사 오층목탑



사천왕사 오층목탑



약사사 삼층목탑

법릉사는 오층목탑 뿐만 아니라 고대의 목조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한국의 고대 목조건축물의 조영 수법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찰은 586년 용명왕(用明王)이 중병을 앓게 되어 그의 누이인 추고왕(推古王)과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절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낙성하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되자 중단하였다가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607년 완성한 절로 전해지고 있다. 가람배치는 목탑과 금당이 나란히 놓인 가람으로 중문이 회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강당은 회랑 밖에 건립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법릉사 오층목탑은 백제 목탑 양식이 충실하게 반영된 목탑으로 백제 목조건축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을 연

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면석과 갑석을 결구하여 구성하였다. 그런데 하대와 상대 갑석의 하부에 부연이 표현되지 않아 초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주와 탕주를 세웠으며, 괴임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발전된 기법의 기단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단부 수법은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조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탑신부의 옥개부와 난간의 구성 수법, 주두+첨차+소로 등으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하양식 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포부는 초기적인 조영 수법을 보인다. 처마끝선을 연결한 선도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고 유려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사천왕사(四天王寺), 약사사(藥師寺)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찰에 고대의 목탑들이 전해지고 있다.

목탑은 다층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기단부인 지하부터 초석까지 목조물과 각종 신앙물 등 상부의 육중한 무게를 여유있게 지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설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였다. 또한 지붕에 떨어지는 상당량의 비와 눈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범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대웅전을 제외하고는 목탑 건물부의 구조나 가구 수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가 기록상 225척으로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무려 80미터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당대 건축기술의 결집체라 할 만큼 고도의 건축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당시의 재정으로 목탑을 건립한다는 것이 엄청난 대역사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목조 건축술로도 다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80미터 이상의 건물을 순수하게 목조로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목탑은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며, 기단부는 석재를 탑신부는 목재를 상륜부는 청동이나 철을 활용하여 건립된다. 일반 사찰 목조건축과 세부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층수가 3층에서 9층까지 높다는 점과 평면을 사각형으로 구성하며 건물 중앙 초석에 사리장치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심으로서 탑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목탑의 건립 과정은 크게 발원→설계도 작성→기초다지기→기단부 마련하기→기둥세우기→벽체부와 지붕올리기→상륜부 올리기→건물 장식하기→낙성식 순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목탑은 내부에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층마다 예불 공간이 있었다. 각 층에는 난간이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나와 멀리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시설되었다. 황룡사 9층목탑의 경우도 기록상 높은 층에 올라 전망을 관망할 수 있는 난간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목탑의 각 층 지붕 상부에는 난간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 나와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당시 인공적으로 조영된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 목탑은 단연 당대의 모든 하이테크 건축 기술이 응집된 구조물이었다.



천왕사지 출토
청동제 소탑편



고려시대 청동탑
(상명대 박물관 소장)



청동대탑
(삼성미술관 소장. 국보213호)

2. 목탑에서 석탑으로의 변안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목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하게 된다. 그러나 목탑은 내구성이 약하고 세우기가 어려워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와 형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돌로 만든 석탑이다. 삼국시대 석탑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사리의 봉안처로서 대대적인 유행을 하게 되어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탑파가 석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탑파에 있어서 석탑의 나라라고도 한다. 사찰에서 석탑을 건립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석탑이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징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리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석탑을 세워 사찰 공간이 신성한 종교적인 장소이며, 의식이나 법회 시에 예배와 공덕을 하기 위한 신앙적인 측면이다. 즉, 사찰에 서있는

석탑에 사리가 안치되지 않았다면 그 존재 이유나 의의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신앙의 중심체는 바로 사리이기 때문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물이 사찰 가람의 중심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최초에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은 목탑이었다. 목탑은 사찰에서 중심공간에 배치되어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목탑의 주재료는 나무와 기와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불타 버리거나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또한 창건 시나 중수 시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여,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경비였을 것이다. 또한 신앙의 중심이 사리에서 불상으로 다변화되면서 목탑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 사람들은 목탑을 대신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창안물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조형물은 나무보다 내구성이 오래가고 비용도 적게들며 만들기도 용이한 것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탑보다 탑과신앙을 누그러뜨리거나 불교신앙의 요체인 사리를 봉안하는데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안의 출발점이 목탑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이나 각부의 결구 기법을 본받아 새로운 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시험적인 시도를 수차례 거듭하였을 것이다. 목탑의 각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을 어떻게 전이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설계도 해보고 직접 돌을 연마하여 형태를 잡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듭하면서 설계나 구조상으로 완벽한 건축물에 가까운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조형물로 창안된 것이 석탑이며, 그래서 석탑은 목조건축의 수법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목탑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탑의 경영은 석탑을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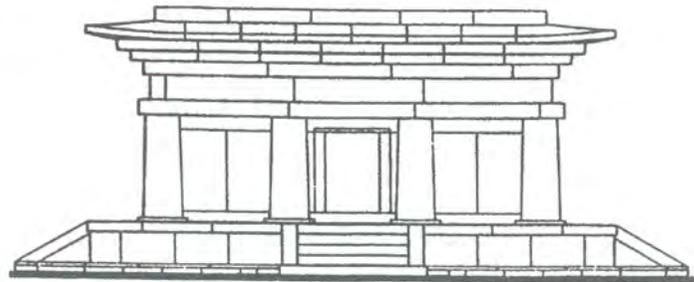
석탑의 창안은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제 사찰의 중심은 나무가 아닌 돌이 차지하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어졌다. 그만큼 사람의 품도 줄어들었고, 처음 만들 때 엄청난 공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만들어진 탑들은 대부분 석탑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가장 먼저 몰두하여 목탑을 석탑으로 전이시킨 사람들은 바로 백제인들이었다. 백제 장인들은 그만큼 건축술이 앞서 있었고, 돌을 다루는 기술이 능숙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와 정림사지에 서있다. 한국에서 석탑의 발생 시기는 미륵사지석탑을 기준으로 하여 삼국시대 말기인 6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한 4세기 후반부터 600년경까지 약 200여 년간은 사찰에서 목탑을 건립하여 불교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석탑은 삼국시대 목탑의 가구 결구 수법을 모방하여 돌로 만들어졌다. 즉 목탑의 기본적인 구도와 원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번안(翻案)) 목재를 석재로 전환시키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미륵사지석탑은 각부 구성수법이 목탑을 모범으로 삼아 석재로 번안한 시원적인 석탑이다. 목조 건축은 크게 기단부-몸체부-공포부-처마부-지붕부-기와부-마루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석탑의 세부 수법이 바로 목조건축의 이러한 결구 수법을 그대로 옮겨 돌로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미륵사지석탑과 같이 목탑의 가구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후로 질 좋은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석탑의 층수는 목탑과 같이 기단부와 상륜부를 제외한 탑신부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1층이라 한다. 석탑은 대부분 3층 이상의 홀수 층으로 이루어져 5층, 7층, 9층, 11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석탑의 층수를 홀수로 한 것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홀수를 양수(陽數)라 하여 신성시하였다고 한다. 홀수인 양수는 하늘 위(上)의 해를 나타내며 남성을 상징하는 수였다. 반면 짝수인 음수는 땅 아래(下)를 의미하며, 달과 여성을 상징하는 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석탑뿐만 아니라 목탑도 홀수 층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3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수로 가장 신성한 숫자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석탑들이 3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석탑의 외관과 구조상으로도 3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층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대시대부터 짝수보다는 홀수를 신성시하여 일상생활에 많이 응용하였다. 예를 들어 목조건축물의 기둥사이 칸수도 대부분이 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운데 칸에 신성성과 권위를 부여하여 중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며, 홀수가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석탑은 3, 5, 7, 9, 11층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수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중요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각사에는 10층탑이 건립되기도 하



부석사 무량수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였다. 원각사에 10층탑이 건립된 것은 10이 원각이나 화엄사상에서 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고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탑은 목탑을 번안하여 삼국시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삼국시대는 5층, 9층 등 다층으로 건립된다. 예를 들어 정림사지 5층석탑, 의성 탑리 5층석탑, 미륵사지 9층석탑 등이 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3층, 5층으로 층수가 감소되고, 전형적인 석탑이 출현하면서 층수도 3층으로 정형화된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는 대부분의 석탑이 사각형의 평면에 2층기단을 구성하고, 층수는 3층으로 형성된다. 이후 고려시대가 되면 다시 석탑의 규모가 커지면서 층수도 3층을 기본으로 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석탑의 평면도 다양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계가 위축되어 석탑이 많이 건립되지 못한다.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규모가 축소되지만 층수는 높게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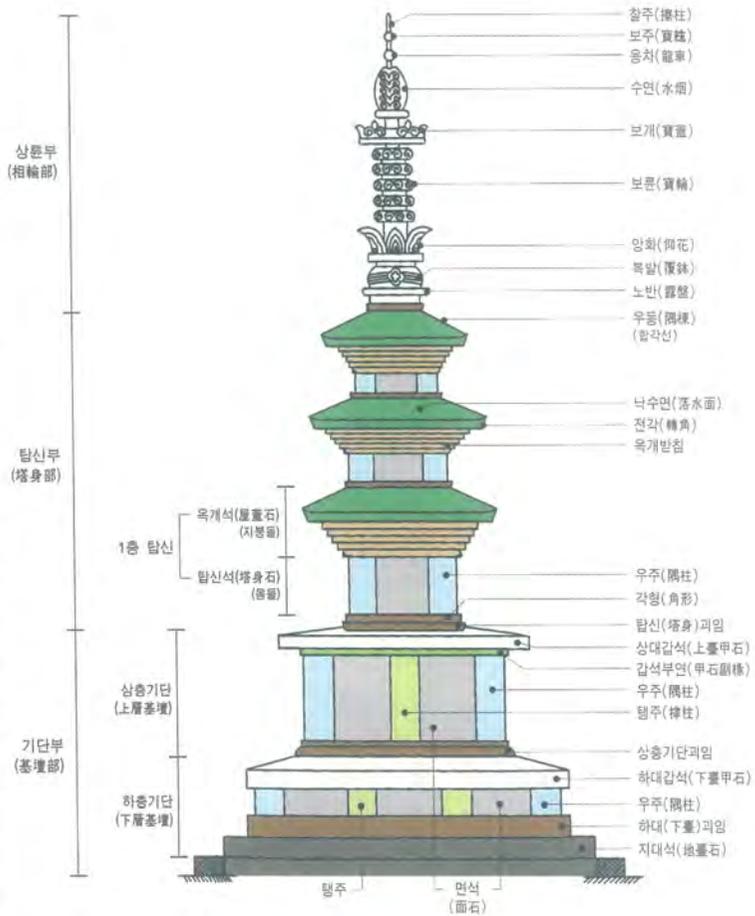
3. 석탑의 유형과 분류

우리나라 석탑은 삼국시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세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탑파는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목탑이 세워지다가 점차 석탑이나 전탑으로 대체되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석탑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탑파는 재료에 따라 목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청석탑, 청동탑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석탑은 화재에 강하고 내구성이 장구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석탑은 천수백기를 헤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의 주류가 석탑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석탑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사찰 안에 하나의 목탑이나 석탑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석탑을 금당의 좌우에 2기를 배치하는 쌍탑형식의 기람이 유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탑파신앙은 당대의 불교신앙이나 사리신앙의 정도와 장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석탑을 세운다. 그래서 석탑을 자체의 형식과 양식에 따라 크게 일반형 석탑과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형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형식과 양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건립된 석탑을 흔히 일반형(一般型) 석탑이라고 말한다. 일반형 석탑의 세부 형식은 전체적인 평면이 사각형이고, 석탑의 주요 구성이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이루어졌으며, 기단부는 1층이나 2층의 단을 마련하여 시설하고,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한 층을 이루면서 3층 이상의 다층을 이루고, 탑신석에는 우주가 모각되고, 옥개석에는 옥개받침과 낙수면이 있고, 상륜부는 노반·보륜·보주 등이 가설되어 장엄된 석탑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반형 석탑은 전형양식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석탑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건립된 석탑들로서 미륵사지 석탑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대부분의 석탑들이 일반형 석탑에 해당되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가장 발전된 양상을 보이면서 성행하였다. 전형양식(典型樣式) 석탑은 일반형 석탑 중에서도 우리나라 석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석탑이라 할 수 있다. 전형양식 석탑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주요 구성 부분이 크게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이 평면이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석탑의 쓰이는 부재수가 줄어든다. 기단부는 2층으로 각 층은 괴임대·면석부·갑석부로 구성되고, 기단 면석부에는 우주와 탱주가 모각되며, 갑석 상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상대갑석 하부에는 부연이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몸돌)과 옥개석(지붕돌)이 마련되어 하나의 층을



이룬다. 탑신석은 2층부터 현저히 감축되고, 옥개석은 목조건축의 기와지붕 처럼 날렵한 형태를 보이며 일정한 비율로 체감된다. 옥개석은 낙수면과 받침부로 구성되는데, 상부에는 1~2단의 괴임이 있고,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받침부는 3~5단의 옥개받침이 있다. 상륜부는 찰주를 높게 세워 노반-복발-양화-보륜-보개-수연-용차-보주를 순서대로 결구하여 장엄한다. 이러한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발전된 양식으로 감은사지3층석탑과 불국사석가탑 등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불국사석가탑은 우리나라 석탑사에서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의 석탑 발전을 결집하고 이후 석탑 형식과 양식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으므로 전형양식의 정형(定型)이라고 말한다.

특수형 석탑은 일반형 석탑과는 달리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 독특한 수법을 보여주는 석탑들이다. 그래서 이형석탑(異形石塔)이라고도 하며, 석탑 자체가 모두 각기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석탑에서 이형석탑의 대표적인 예는 불국사 다보탑과 화엄사사사사지3층석탑 등이 있다. 불국사 다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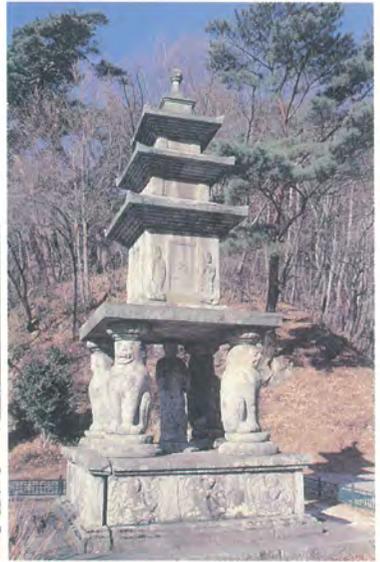
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를 구성한 것은 기존의 석탑과 유사하지만 세부 형식에 있어서 일반형석탑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석탑으로서 정제된 아름다움이나 정형화된 비율에 따른 균형미는 주지 않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섬세한 조형미를 주고 있다. 또한 화엄사사사자3층석탑은 탑신부와 상륜부의 형식이 일반형 석탑과 동일하지만 기단부에 사자와 승려상을 배치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형 석탑에서 면석과 우주로 구성되어야 할 부분을 사자가 대신함으로써 오히려 단순함을 배제하면서 사리에 대한 강한 수호의지를 더욱 굳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경천사지10층석탑이나 조선시대의 원각사지10층석탑과 같이 탑과신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석탑의 평면이나 층수, 각부 구성 수법에서 기존의 석탑 양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식의 석탑을 창안하는 특수형 석탑도 등장한다. 이와 같이 특수형 석탑은 세부 형식에 있어서 독창성있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 석탑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삼국시대 석탑은 처음으로 목탑을 번안하여 만들어진 조형물이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석탑은 세부 형식과 양식이 목탑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삼국시대 석탑으로는 백제의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석탑, 신라의 분황사모전석탑과 의성 탑리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들 석탑은 평면이 사각형으로 이후에 건립되는 석탑들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층수가 높으며, 부재수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의성 탈리 오층석탑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석탑은 삼국시대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여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는 석탑이 목탑을 모방하여 탑을 세우는 단계를 지나 목조건축의 모습은 띠지만 석탑 자체의 새로운 양식을 성립시켜 우리나라 석탑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서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석탑과 불상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탑의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양식이 통일신라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1개의 사찰에 2기의 석탑을 배치하는 쌍탑 가람이 형성되어 말기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 물론 통일신라말기에 가서는 1기의 석탑을 배치하는 단탑 가람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삼국시대는 목탑을 중앙에 배치하는 단탑 가람이 지배적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창건된 망덕사, 감은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찰들이 좌우로 대칭되게 불탑을 세운다. 이러한 경향은 경주를 중심한 지역에 위치한 사찰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실상사, 보림사 등 다수의 사찰에서 통일신라 말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통일신라 초기에 건립된 석탑들은 대형으로 많은 부재를 결구하여 건립된다. 석탑을 대형으로 건립하던 삼국시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선사지 삼층석탑과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석탑의 규모가 대형이기 때문에 기단부의 탱주 수량이 많으며, 탑신석이나 옥개석을 여러 매의 부재를 치석하여 짜맞추게 된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2개를 유지하지만 탱주는 2~3개를 표현한다. 또한 받침부를 치석할 때 주로 각형을 활용하여 곧고 직선적인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층 탑신받침을 각형 2단으로 처리하거나 옥개받침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치석하기 보다는 정교하게 직각으로 깎는다. 그리고 옥개석 상부에 마련되는 탑신석 괴임도 각형으로 치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옥개받침이 5단으로 획일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신라 중기라고 할 수 있는 700년대 건립된 석탑까지 계승된다.



감은사지 삼층석탑



고선사지 삼층석탑



경주나원리 오층석탑

통일신라 중기는 전형적인 석탑의 완성 시기였다. 통일신라 초기와 마찬가지로 중기에 건립된 석탑들도 대부분 경주를 중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 중기까지는 사찰의 창건에 따른 석탑의 건립이 경주를 중심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교가 아직은 지방까지 폭넓게 확산되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통일신라 초기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측면과 호국적인 측면이 혼합된 성격의 석탑들이 건립되면서, 석탑의 건립 주체 내지는 후원 세력들이 왕이나 왕실,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석탑의 규모나 층수에서는 변화가 보이지만 기단부와 탑신부 등 각부의 치석 수법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 건립된 석탑들의 양식은 동일 장인이나 일부 장인 집단에 의하

여 설계되고 치석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석탑의 규모가 다소 축소되면서 각 부를 동일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기단부는 여러 개의 부재를 결구하여 마련하지만 탑신부나 상륜부는 동일적으로 결구하고 있다. 이것은 석탑을 만드는 기술이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추구된 석탑들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표면에 부조상을 새긴 석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단부의 면석이나 탑신석은 어떻게 보면 석탑에서 여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석탑들은 아무런 장식이나 장엄없이 밋밋하게 치석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일부 석탑에서 사천왕상, 인왕상, 십이지신상 등 사리의 수호와 숭앙이라는 의미를 가진 조각상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장항리 오층석탑과 원원사지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서면서 석탑의 표면에 다양한 부조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석탑의 분포는 통일신라 중기를 지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그만큼 불교가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가 중앙의 왕실이나 지배층을 중심으로 신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이나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폭넓게 신앙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불교가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선종이 들어와 크게 유행하면서 통일신라 말기에는 전국적으로 사찰의 창건에 따른 석탑의 건립이 더욱 성행하게 된다. 또한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서면서 중앙의 혼란스런 정국과 골품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 집권력의 약화, 지방 호족들의 성장 등도 사찰의 창건에 따른 석탑 건립이 전국화 되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불교와 유력한 승려들을 통하여 혼란스런 정국을 타개하고 민심을 끌어들이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하는 시책으로 왕실뿐만 아니라 지방호족들도 불교에 귀의하여 불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도 석탑의 건립 수량이 확대되고, 그 분포가 전국화 되는데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 말기에는 많은 양의 석탑이 건립되면서 외형적으로 획일적인 석탑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석탑이 전국에 걸쳐 세워진다. 이러한 것은 각 지방을 중심으로 호족세력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승려들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이들의 주도로 지방민이 대거 참여하는 사찰의 창건과 이에 따른 석탑의 건립이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왕실을 비롯하여 중앙 귀족과 지방의 호족들이 지원한 석탑들이 건립되는데 이러한 석탑을 원탑(願塔)이라 한다.



경주 장항리 오층석탑



원원사지 삼층석탑



갈항사지 삼층석탑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석탑들은 규모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면서 전체 부재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기단부는 2층 기단이 지속적으로 계승되면서 하나의 전형이 된다. 그런데 전체 수량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량이지만 2층기단이 아닌 1층기단과 3층기단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단부에 새겨지는 우주와 탱주 수량이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우주의 수량은 구조상 그대로이지만 탱주의 수량이 2~3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된다. 우주와 탱주의 조출 높이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상대감석의 부연 높이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기단부에 팔부신중, 사천왕상, 인왕상 등 수호의 의미가 있는 다양한 부조상(浮彫像)들을 조각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상이나 보살상을 조각하여 화려하고 장엄적인 석탑을 건립한 것이 9세기 석탑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부조상을 석탑에 조각하는 것은 석탑이 부처의 사리를 모신 기념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수호와 동시에 공양과 장엄의 의미가 있다. 또한 석공들의 석탑 치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석탑이 불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엄숙하고 자비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탑신부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1층 탑신석을 받치는 괴임이 이전에는 각형 2단이었는데 점차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각형 2단뿐만 아니라 호각형 2단, 각호각형 3단, 별석받침 등 석탑을 치석한 장인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석조부도의 탑신괴임처럼 탁자형으로 마련된 경우도 있다. 특히 고려시대 석탑들에서 많이 보이는 별석받침을 삽입하여 1층 탑신석을 받치도록 한 석탑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통일신라 중기에 건립된 석탑들과 마찬가지로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1석으로 치석하여 결구한다. 그런데 1층 탑신석의 높이가 2층 이상의 탑신석 높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마련되며, 1층과 2층 탑신석의 비율이 3:1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옥개석은 옥개받침을 각지게 하여 정교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처마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치석한다. 그리고 낙수면은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처마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합각부에서 살짝 돌출시키거나 뾰족하게 깎아 마루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마루 끝은 모서리가 하늘을 향하여 살짝 치켜 올라가도록 반전을 준다. 옥개석 상면에는 상층의 탑신석을 받치기 위하여 낮은 괴임단을 마련한다.



경주 장항리 오층석탑



원원사지 삼층석탑



갈항사지 삼층석탑



경주 장항리 오층석탑



원원사지 삼층석탑



갈항사지 삼층석탑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공식화하면서 어느 시대보다 불교를 숭상한 시기였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불교를 국시(國是)로 삼으면서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법왕사, 왕륜사, 문수사, 원통사 등 10대 사찰을 창건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귀족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폭넓게 후원하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양의 사찰이 창건된다. 이에 따라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창건내지는 중수되면서 가람의 필수 요소인 석탑들이 대량으로 건립되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비하여 많은 양의 석탑이 남아 전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 각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석탑이 건립된다. 이러한 것은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일부 장인집단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석탑의 건립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장인들에 의하여 석탑들이 건립될 때 그 지방의 특성이 가미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동시에 석탑이 사리를 안치한 기능적인 조형물로서 예배의 신앙 활동의 중심 대상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만 충실하다면 다양한 양식으로 건립될 수 있다는 풍조가 폭넓게 형성되었던 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가 건국된 초기에는 개경을 중심한 주요 사찰에 석탑이 건립된다. 이때 건립된 석탑들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 대형의 규모로 다층의 석탑들이 많이 세워진다. 이러한 것은 건국된 직후 나라의 위상과 정부의 정당성을 표명하고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찰의 창건과 아울러 대형의 석탑을 세움으로써 이반된 민심을 규합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점차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고 안정되면서 불교에 대한 신앙이 점차 깊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탑의 건립도 중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건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석탑 건립 양상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으로 확산되기는 하였지만 구산선문 등 특정 지역이나 사찰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많은 양의 석탑들이 전국에 걸쳐 세워진다. 고려시대에는 석탑의 양식이나 치석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석탑들이 나타나면서 장인이나 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석탑들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석탑들은 석탑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다층석탑이 많이 건립되고, 기단부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한층만을 마련하는 단층기단이 유행하며, 기단부의 탱주수가 불규칙적으로 모각되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갑석의 하단에 있는 부연이 생략되거나 낮게 처리되어 간략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층 탑신부에 탑신석을 받치는 별석받침이 삽입되기도 하며, 옥개받침이 2~3단으로 낮아지고, 옥개석의 낙수면과 처마부가 둔중한 감을 주며, 추녀부의 전각이 치켜 올라가면서 반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석탑이 건립된 지역이나 장인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려시대 석탑 발전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석탑을 세우는 주도세력의 저변이

확대되어, 국가나 왕실만이 아닌 지방의 호족이나 개인적인 발원에 의하여 다수의 석탑이 건립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옛 백제 지역에서 백제석탑을 계승한 소위 백제계석탑 양식이 등장하여 유행하며, 고려 후기에는 라마교의 영향으로 라마계통의 석탑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불일사 오층석탑



현화사 칠층석탑



봉업사지 오층석탑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사자빈신사지석탑



경천사지 10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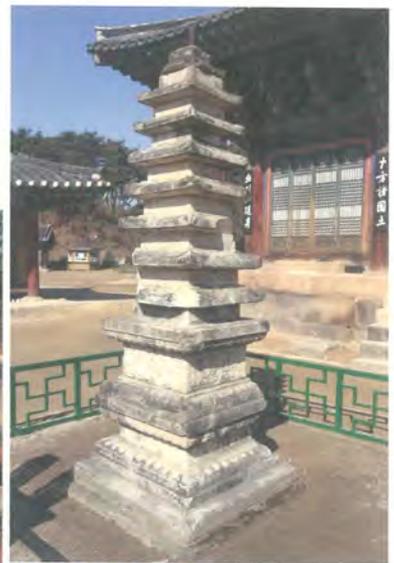
조선시대는 불교가 대대적으로 성행하지 못하였고 불상을 위주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석탑이 건립되지는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정부가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면서 불교계에 대한 억압과 등

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많은 사찰에 대부분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석탑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석탑은 재료의 특성상 목조건축물이나 금동 또는 목조 불상에 비하여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석탑을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석탑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활용하여 가람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사의 중심이 목조건물이나 불상으로 치중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탑이 세워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이전에 비하여 공예적인 요소와 그러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또한 표면에 장식이나 장엄이 많이 표현되면서 화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대부분이 왕실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전 시대에는 석탑이 왕이나 왕실의 원탑으로 건립되었다 해도 사리를 봉안한 불탑이라는 기념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였는데, 조선시대 건립된 일부 석탑들은 왕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표방한 조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불탑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성과 기능성에 왕이나 왕실의 세속적인 권력을 결부시켜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또한 왕의 권위를 부처의 지위와 동일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이처럼 조선시대 석탑은 이전에 비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되면서 층수가 높아지고, 기단부도 간략하게 마련된다. 탑신부의 탑신석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옥개받침은 옥개석 하부 안쪽으로 낮게 형식적으로 처리한다. 옥개석은 낮게 마련되며 든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는 달리 원각사지10층석탑처럼 규모가 크고 화려한 석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양양 낙산사 7층석탑



여주 신록사 다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5층석탑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시대나 시기, 어느 지역에서 유행한 문화와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문화는 그 시대나 그 지역의 일반적인 면과 아울러 특수한 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만들어진 문화재를 볼 때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자취를 머릿속에 더듬으며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어떤 시대였고 어떤 문화와 사상 등이 그 시대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했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끌어내야 한다. 문화재는 유형의 소산이지만 역사

를 말하거나 사실을 전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과 무형의 역사만이 깊게 침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을 끄집어내서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영원한 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헤쳐서 풀고 징검다리 삼아 새로운 세계로 도약해야 한다. 예술은 혼의 표현이다. 물론 이미지나 표현 기법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얼마나 그 시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석탑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기교와 장인의 심미안이 가미된 예술품이자 조형물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서 종교적 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고장인 명성보다 멋진 작품 만들고 싶은 열정이 먼저”

대목장 김범식 선생을 찾아 뵙다

콘텐츠 기획자 유인정

귀중한 고건축마다 스민 장인의 손길

잠시 학창시절 국사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자. “현전(現傳)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쉽게 답을 맞추었을 줄로 안다. 정답은 안동의 '봉정사(鳳停寺) 극락전'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5호로 지정된 봉정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



봉정사 극락전

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 집이다. 봉정사는 672년(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최초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지금의 극락전은 고려시대 때 건물이다. 극락전이 한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국보에까지 지정된 데는 1972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묵서명이 큰 역할을 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368년에 옥개 부분을 중수(重修)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건립연대는 최소 100년 정도는 앞선다고 추정했고, 이보다 더 오래된 건물은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나무와 흙, 돌 등 자연의 재료를 기본으로 하여 지은 집인데 700년도 넘는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절집의 긴 역사를 가리켜 흔히 쓰는 '천년고찰'이란 말이 그저 말 뿐은 아닌 듯 하다.

한옥은 훌륭한 안목을 갖춘 대목장의 지휘 하에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기와공, 미장공 등 여러 직공이 미끈한 솜씨를 부려서 주춧돌부터 지붕까지 공들여 지어 올려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완공 뒤에도 지을 때 쏟은 정성만큼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몇 세대 몇 백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또한 한옥이라고도 한다.

봉정사 극락전도 처음 지어진 뒤부터 지금까지 장인의 노련한 손길로 크고 작은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21세기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대목장이 대구에 터 잡은 사연

목장 김범식(金範植, 한국전통건축연구원 원장,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부회장, 1942~) 선생도 바로 그런 전통건축물 지킴이 중 한 분이다. 눈이 귀한 고장



대목장 김범식 선생

대구에 모처럼 함박눈이 내린 지난 12월 하순, 필자는 48년째 전통 목조 건축의 수리 및 복원, 신축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을 찾아 뵈었다.

대목장께서는 1977년 문화재 수리 기능자 목공 제383호 도편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통건축 되살리기를 천직 삼았다. 일터를 따라 객지생활을 하던 그가 경상도에 정착한 것도 이때쯤이라고 한다.

“부산에서도 살아 보고 서울에서도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저기 옮

겨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었지. 대구 경북 지역에 사찰, 고택 등 전통건축물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할 일도 많아 여기 정착 했지요. 내가 충남 서산 출생이지만 대구에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여기가 고향이나 다름 없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지역은 전통건축물이 참 많다. 지역 전체가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로 경주도 있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고려시대 건축물이면서 배흘림 기둥으로도 유명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사찰, 반가, 서원, 향교는 물론, 읍성, 관문 등 전통건축 문화유산이 상당히 풍부하다.

당신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든든히 터를 잡고 평생 대목장 외길을 걸어오신 김범식 선생으로부터 우리 전통건축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2011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혹시 내 전시회 본 적 있어요? 경주 하고 여수에서 전시회를 해서 많이들 보고 갔는데.”

한복이나 도자기, 소목, 나전칠기 공예 등과 같은 분야가 아닌 대목 건축분야에서 전시회라니, 개최가 쉽고 흔한 일은 아니다. 선생께서 뿌듯함을 가득 담아 언급한 전시회란 바로 2011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가리킨다. 김범식 대목장은 지난 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간 대형 전시행사에서 자신의 모형작품을 선보이며 일반인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개최된 <우리 전통 건축의 얼, 백미를 찾아서> 전시회.

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졌다.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가 초청해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경주 엑스포



김범식 대목장의 전시장을 찾은 대통령과 문화부장관, 경북도지사.

문화센터 2층에 '우리 전통건축의 얼, 백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국보, 보물급 문화재 건축물 모형을 전시한 거예요. 봉정사 극락전, 동화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송례문, 흥인지문 등을 정교하게 축소한 모형 18점을 전시했는데, 전시장에 이명박 대통령도 다녀갔습니다.”

이 전시를 소개한 당시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니, 선생께서 경주엑스포에서 모형 전시회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였다. 도청이전추진본부는 전통문화재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김범식 선생을 섭외하는 등 기획단계부터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본부측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특히 경북은 국내 문화재의 18%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전통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 보유하고 있어 이 전시의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기사는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했을 엑스포장에서 대목장의 작품이 의외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는 인상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이 호응이 여수 박람회에도 이어져 역시 주목을 받는다. 모형 자체의 만듦새도 멋지거니와 원본 건축물이 지닌 비례감과 조형성이 한 눈에 들어오니 전통목조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감상의 재미가 컸을 것이다.



2012년 '경북 최고 장인' 증서 수여식. 왼쪽부터 김범식/권미숙/박원웅 장인, 김도지사, 김재철/이정환 장인.

최고장인 선정의 명예를 얻다

김범식 대목장에게 2012년 6월에는 또 다른 경사가 있었다. '경북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것이 그것

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에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장인 5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한 명으로 선생께서 뽑혔다.



부석사 무량수전 모형

“경북도청 건물 입구에 내가 만든 국보 제18

호 부석사 무량수전 모형이 있어요. 가로 1.87미터, 세로 1.15미터, 높이 1.12미터로 10분의 1 축소 모형이야. 도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싶었던가 봐요. 열심히 내 할일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최고장인으로 뽑아주니 명예롭고 좋지만, 내 작품을 인정받는 것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세간의 상찬에 가볍게 고무되지 않는 법이다. 이는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상의 영예에 연연하지 않아 오히려 상복이 많으신 것일까. 필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꼼꼼히 챙겨놓으신 이력 자료를 보니, 선생의 수상경력은 무척 화려했다. 한국건축가협회상(2008), 문화재청장 공로상(2009), 국무총리 표창 (2011), 대한민국문화재기능인상 (2012) 등 모두 도편수께서 이 분야 최고 중 한 분임을 치하하는 상들이다.

“부담스럽지요.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울 것이 많은데. 전통건축에는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으니, 제가 삼사십 년 종사했다고 해서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수리 복원할 때마다 모르는 부분이 많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땀으로 익힌 기술이 진짜 실력이고 능력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생의 수련시절로 화제를 돌려 보았다. 짐작 대로, 김범식 대목장이 고건축 분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과정은 끝없는 노력과 고된 훈련의 연속이었다.

필자가 그간 봐왔던 다른 전통기능 분야의 장인들은 대개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해 기술을 갖는 것만이 생계를 꾸려갈 유일한 방편인 분들이 많다. 선생의 경우도 비슷하여, 가구 만드는 목수, 즉 소목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군

복무를 마친 22살 때부터 목수일을 하게 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었고, 스무 살 넘으면 취직하여 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어릴 때 늘 본 일이 이거였지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1964년에 김천 직지사 공사현장에 갔어요. 성보 박물관으로 쓰이는 청풍료(淸風寮)를 짓는 데 간 거죠. 여기서 김덕희 선생님과 아들 김윤원 선생님을 만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창틀 짜고 문 만드는 소목 일을 할까 하고 갔는데, 이 두 분한테서 대목 일을 배웠지요.”



김천 직지사 전경



김천 직지사 청풍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역시, 일은 매우 힘들었다. 잔일을 도맡아 하며 철저히 어깨 너머로 알아서 익혀야 하는 도제식 수업기간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좋은 기계도 없고,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잘라야 하니 하루 종일 중노동이었지. 옛날에는 커다란 톱으로 두 사람이 밀고 당기기를 수십 번 해야 겨우 나무 하나를 잘랐어요. 모두 내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고, 사람 손 안 가는 일이 없었지. 게다가 공사현장 따라 전국을 떠돌면서 일을 해야 하니 떠돌이 객지

생활도 신물 나게 했어요.”

큰 스승들의 가르침이 참으로 큰 복

도제식 기술 전수과정은 배우는 사람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진척을 기대하기 힘들 터.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앉혀 놓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 눈치껏 보고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눈과 손이 빠르지 않으면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접하며 자라서 그나마 도움이 됐지. 또, 그때는 이 일 아니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야.”

선생의 근성과 재능은 당시 고건축계의 대표적인 장인을 스승으로 둔 행운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다. 직지사에서 만났다는 김덕희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홍수 대목장과 최기영 대목장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덕희 김윤원 선생 문하생으로서 혹독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인정 받게 된 도편수께서는 1960년대 말 당시 최고 대목장으로 꼽히던 조원재 선생을 만나면서 또 한 번 큰 배움의 계기를 맞이한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용수 대목장도 스승으로 회고한 바 있는 그 조원재 선생이다.

“경북공 보수공사 때 선생님을 만났지요. 그분한테 배우면서 제대로 된 도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정면 측면 평면 등 다각도로 그린 도면을 활용하면서 공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평면도 하나만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보통이었어.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평면도뿐만 아니라 단면도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셨어요. 도면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지. 선생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편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조원재 선생의 제자인 이광규 선생을 만나면서 진주 촉석루 보수공사, 불국사 복원 등 굵직굵직한 현장에 참여하며 최고 도편수가 되기 위한 경험과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 나갔다.

전국 곳곳에 남겨진 전통건축들

김범식 대목장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선생의 성격이 무척 차분하고 꼼꼼하실 것 같다는 점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목장께서는 필자의 질문마다 신중한 어조로 간결히 답했고 미리 챙겨둔 다양한 자료를 꺼내 보여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중에 본 자료 중에는 1964년부터 시작된 자신의 문화재 수리 복원 신축활동을 정리한 작업목록 표가 있었다. 정확한 원고 작성에 도움이 되라고 아예 엑셀 파일을 공유해주셨는데, 이 글을 쓰며 다시 살펴보니 총 172줄의 건축 이름이 오롯이 적혀 있다.

선생께서 보수를 한 주요 작품은 청도 운문사 관음전, 명부전, 직지사 만세루, 천불암, 강화도 전등사 극락전과 강설당, 구미 대둔사 명부전 응진전, 구미 도리사 극락전 등이다. 복원한 작품은 강화 덕진진 덕진루, 부산 동래읍성지 동장대, 서장대, 청도 운문사 죽림헌 등이다. 신축 작품에는 경북 달성군 남평문씨 세거지 내의 인수문고를 비롯, 수원 봉녕사 대적광전,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 부여 가탑사 대웅전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115건, 부산경남 7건, 서울 및 수도권 21건, 전라 8건, 충청 23건으로, 제2의 고향이라 하신 경상도에 단연 선생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 많다.

“주로 지어진 지 오래된 문화재 건물의 수리 복원 위주로 일하지만, 일반 한옥 신축도 의뢰를 받아서 해요. 기억에 남는 집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본리에 있는 남평문씨 세거지입니다. 남평 문씨 문중에서 소장 관리하는 작은 민속마을인데, 1995년에 대구민속자료 제3호로도 지정됐어요. 관람객도 많이 다녀간



경북 청도 운문사 명부전



강화도 전등사 강설당



강화 덕진진 덕진루 (복원)



부산 동래읍성 동장대



달성군 화원읍 본리
남평문씨 세거지 전경



남평문씨 세거지
문화갑 기옥 사랑채 (신축)



구미 도리사 극락전 (보수)

대요, 개인주택이 9채고, 책 읽고 토론하는 광거당, 수봉정사가 있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고서적을 보관하는 인수문고, 종곡서고도 있어요. 1982년에 인수문고와 종곡서고를 내가 지었고, 2006년에 남평 문씨 일족인 문화갑 전 대구시장이 의뢰해서 문시장 집으로 안채 사랑채 등을 지었지요. 마을전체가 차분하고 우아한 양반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전통건축은 상품이 아닌 작품, 시간이 필요해

평생 한옥을 지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당신의 집은 한옥이 아니라 아파트란 아 이러니에 너털웃음을 지으시더니, 담담하게 전통건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 션다.

“일에는 대소경중(大小輕重)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대목장 일에는 특별 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도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문화재이고 ‘작품’이기 때문이죠. 일반 건축은 ‘ 상품’이지만 내가 수리 복원 신축하는 문화재는 작품이에요. 상품을 만들 때는 애초에 구상한 대로 예산 안에서 계획한 비용을 들여 만들고 이익을 붙여서 원 하는 값에 팔면 되겠지만, 작품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건물에 맞춰서 건물 상태에 따라 공사예산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 로 대부분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니, 문화재 수리 복원 작업은 아무래도 어려워 워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대충 마무리하거나 미

완성인 채로 둘 수는 없지. 문화재청이나 시, 도에서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 안에 맞춰 수리, 복원을 하다 보면 난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관에서 정해 놓은 예산이라 내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어설프게 끝을 낼 수도 없고, 이때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고건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파트, 빌딩 짓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선 문화재 건물은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옳은 작품이 나와요. 빨리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나무도 더 많이 터지고, 서둘러 짓는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조잡하고 허술한 부분이 생겨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빨리 빨리’예요.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지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옵니다.”

내가 느끼는 보람 후배들도 같이 느꼈으면

여담이지만, 김범식 대목장께서는 약주를 안 드신다. 딱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한다. 게다가 특별한 취미도 없다 하신다.

“그저 일 하는 게 취미지 다른 거 뭐 있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제일 즐겁지. 대목장으로서 제일 좋은 거? 글썄. 내 마음먹은 대로 완공한 뒤에 ‘잘 지었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가장 좋지요. 그 잘했다 잘한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온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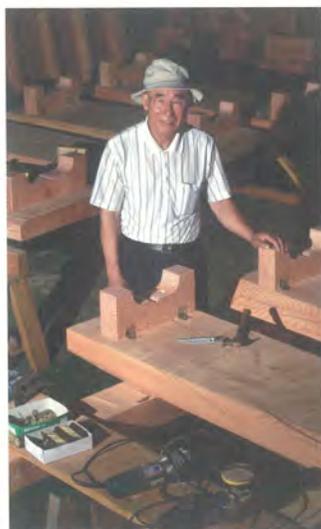
전통건축 현장을 누비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역시, 다 지은 뒤에 사람들이 잘됐다고 좋다고 치하해줄 때라고 한다.

“내가 느끼는 이 보람을 후배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문하생은 특별히 선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건축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다, 일자리가 없어 큰 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내 생각에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으면 참고 버티면서 10년, 20년 하면 그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해요. 인내심 있게 해야지, 힘들다고 1, 2년 하다가 치워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지요.

내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방식이 최고인 거 같아요. 기본부터, 기초부터 바닥을 다지고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스스로 집 짓는 재료들 다루는 법을 익히고,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 도면도 읽고, 그리게 되는 것이 대목 일이에요. 내가 더 잘해서 본보기가 되면 후배들, 문하생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지요. 전통장인이자 업계 선배로서 내 경험을 잘 전수하는 것도 제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향후 목표는 상설전시관 건립

선생께서 문하생 양성과 함께 한 가지 더 꼭 이루고 싶은 일로 꼽은 것은 바로 상설전시관 설립이다. 대구에 상가건물 내에 한국전통건축연구원 문패를 걸고 연구 및 사무공간으로 운용하고 있고, 대구 인근의 경산 자인면에 직접 모형목물을 만드는 공방 작업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전통건축



경산시 자인면 공방에서



모형 제작중인 김범식 대목장



금산사 미륵전 모형

모형 40여 개가 특별전시를 할 때나 일정 기간 빛을 볼 뿐 전시가 없을 때는 창고에 갇혀 있는 신세다.

“내가 한 10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전통건축 문화재 모형을 만드는 일이에요. 실물을 10분의 1 또는 5분의 1 크기로 축소한 건데, 가로 세로 높이가 작은 건 1미터, 큰 건 3미터 남짓이에요. 크기가 크건 작건 만드는 데 품은 똑같이 듭니다. 오히려 작은 모형이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하나 완성하는 데 몇 달은 걸리고 힘든 작업이지만, 여력이 되는 한 꾸준히 제작할 생각이예요.”

도편수께서 전시관 건립을 바라는 건 당연해 보인다. 위치 좋은 곳에 번듯하게 상설전시관을 열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고 배우게 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경주 엑스포 때 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병국 문화부 장관도 같이 왔어요. 정 장관이 전시 끝나면 작품들 어디에 갖다 놓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공방 창고에 두는데, 상할까 걱정이 많다, 전시관 좀 만들어 달

라' 부탁을 했지요. 장관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얼마 안 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느라 장관직을 내놓더라고요. 전시관 건립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을 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데 모아 전시해둔 모형을 보면 쉽게 접할 수 있고, 건물의 구조나 처마 짜임 같은 것도 가까이 볼 수 있어 좋지요. 공부를 위해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전시해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수단도 되고요.”



지친 현대인의 쉼터가 되는 한옥

최근, 공산품마냥 찍어낸 똑 같은 아파트나 빨리 팔아 이문 남길 목적의 집장사 집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내 집 짓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컨셉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방식 한옥을 개량하여 건축비를 좀더 낮추고 서구화된 생활방식도 고려한 설계와 공법이 고안되고 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옥의 우수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천연소재로 지었으니 몸에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집으로서 가치도 한옥이 월등히 높다고 봅니다. 철근, 콘크리트 써서 지은 아파트는 한 30~40년 되면 헐어야 하지만, 한옥은 몇 세대, 몇 백 년을 이어오니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한옥이 훨씬 싸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선생께서 하고 계신 작업은 경상남도 거창 가조면의 소림사 신축공사다. 가조온천이 개발될 동네에 정목스님이라는 비구니 주지가 계신 절인데, 이곳 현장에 수시로 가 계신다고 한다.

“기존에 있던 전각 옆에서 좀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아 창건하는 공사입니다. 주지스님이 본래 있던 곳은 양로원을 지을까 하던 것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양

하는 쉽터로 계획을 바꿨어요. 혼자 찾아와서 차분히 몸과 마음을 쉬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지요, 그런 목적으로는 역시 한옥이 제격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템플 스테이’가 유행이고, 심신이 지친 현대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요즘, 대중의 시류에 꽤 어울리면서도 앞으로 점점 더 필요성이 커질 공간인 듯하다. 게다가 도편수께서 정성 들여 지은 집이라니 얼마나 좋을까.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곳이 다 지어지면,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선생께서 소망하던 전시관이 문을 열어, 다음 번에는 그 전시관에서 선생을 뵙고 싶다. -끝-

곡재와 직재의 조화로운 맛물 림으로 천년 생명의 집을 짓는 도편수, 허균

로즈앤박스/상상미디어 대표 김혜라



도편수
허균 선생님

새해 벽두부터 작심하고 내린 눈은 매서운 추위를 핑계삼아 허리를 길게 편 채 드러누워 버렸다. 불일 남고 할 말 더 있는 손님처럼 몽그적거리며 며칠을 머무를 태세다. 눈 녹기를 기다리는 대신 쌓인 눈을 꺾꺾 밟으며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한때는 대한민국 대표 열차였으나 KTX 속도에 밀려 뒷전으로 밀린 무궁화호를 타고 모처럼 천천히 느린 속도에 몸을 맡겼다. 시속 300킬로 이상에서는 정지되었던 정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KTX 차창에서는 그냥 지나쳤던 눈 덮인

산아와 논들녘의 풍광, 지나가는 촌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열차가 정차하는 곳마다 심호흡을 하듯 사람들이 들고 난다. 잠에 빠졌던 사람들도 잠시 눈을 떠 큰 숨을 내쉰다. 두 배나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것들을 네 배로 선사받는 기분이다.

현대적이고 빠르고 최첨단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느낌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휴식이 있기에 '느림의 미학'이 새로운 화두로 각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과거 유산인 전통이나 문화재의 매력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빠르게 돌아가는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충혈된 눈을 잠시 긴장에서 놓여나게 하고, 앞만 보며 속도를 쫓던 걸음을 멈춰 세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을 풍성하게 하는 그 특별함도 결국은 뒤돌아보고 천천히 걷는 느림의 미학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목수의 숙명, 나무와의 인연

설경이 주는 평화로움과 무궁화호의 여유로움을 안고 도착한 곳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실리. 본 협회 원로위원인 허균 도편수를 만나뵙기 위해서다. 치목장에 들어서니 사방이 눈 천지인 가운데 가림막이 설치된 공간에 치목된 부재들이 속살 흰히 드러낸 모습들로 먼저 반긴다. 눈 내린 다음 날이라 나무향이 오롯이 전해진다. 아무지게 다듬어진 보와 도리와 창방 등으로 자리매김할 것들이 순한 형제들처럼 포개지거나 즐지어 있다. 작은 부재들은 큰 부재 위에 얹혀 있기도 하다.

“날도 춥고 미끄러운디 오느라 고생 많았지유?” 허균 도편수의 따듯하고 환한 미소가 치목장에 잠시 봄날 온기를 만든다.

“이것은 울산 백양사 일주문에 들어갈 것들이고 저쪽 창고에는 마산 지장사 법당 부재 쌓아 놓거유.”

반가운 인사에 이어 자식이라도 되는 양 치목된 목부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천상 목수다. 목수의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목수에게 지어놓은 집은 곧 공들여 잉태한 자식과도 같지 않은가? 목부재들은 그것을 이루는 심장이자 뼈마디이고 다리라 할 수 있으니 소중할 수밖에. 머지않아 짜맞추어 올려질 부재들을 매만지며 바라보는 허균 도편수의 손길과 눈길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충청도 사투리만큼이나 사뭇 정겹다.

허 도편수에게 있어 나무는 그의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일흔 일곱 해의 삶 중에서 무려 60여 년을 함께 했다. 아내나 자식들보다 함께 한 시간이 더 오래고 언제나 늘 가까이 있었다.

허균 도편수가 나무와 인연을 맺은 건 충남 서산군 음암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49년. 해방직후 경제적 궁핍함과 정치적 혼란기에 자식들 공부보다는 먹고살기가 더 급급한 시절, 어려서 총명하다는 소리도 듣고 공부를 곧잘 했지만 7남매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옥 민가를 짓는 목수로서 당시 인근지역에 명성을 날리던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이 목수로서의 그 시작이었다. 열다섯살 소년의 장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해져버린 것이다. 목수를 하면 밥은 굶지 않고 살 것이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두말없이 선뜻 연장통을 둘러메고 따라 나섰다. 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집 짓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문짝이나 장롱, 관 짜는 일 등 대목일 소목일 구분없이 나무 갖고 하는 일들은 전부 하셨어요. 솜씨가 뛰어나셔서 근방의 일들은 모두 했다고 봐야지. 지게를 짜서 서산이나 근방의 장날에 가면 우리 아버지께 최고였지. 그 솜씨가 아주 좋았어. 집안에 연장 궤짝이라고 기다랗게 짜서 큰 자귀도 넣고 도치 등도 넣어두고 일 생기면 들고 다녔어. 아버지 성미가 불 같으셔서 어디 가서 맘 놓고 한 시간을 못 놀아 봤다니께. 눈물 짜가며 일했지. 조금이라도 빠물게 나가면 하는 게 워짜 그러냐고 막 야단이셨지.” 인물도 좋고 기골 장대했던 부친을 따라 현장을 다니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소목일을 거들었다. 나무를 식별하고 치목하는 법에서부터 쓰임새를 익히고 연장 다루는 법을 배워나갔다. 나무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작업들을 했으니 나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나무의 성질에 따라 연장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나무의 마음까지도 꿰뚫는 혜안을 지니게 된 것도 저절로 터득되었다. 큰 자귀질도 어느 정도 익히고 거성질 같은 것도 잘하고 대패질도 잘할 줄 알게 되자 허 목수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주변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른 나이에 먹줄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20년 동안 목수로서의 다양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다.

사찰목수로 거듭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학 씨란 사람이 허 목수를 찾아왔다.

“절에서 목수를 데려 오라는디 자네 같이 가볼터?”

5년 먼저 서울에 올라가 김종희 대목 밑에서 일을 하던 그가 함께 사찰공사를 하러가자는 뜻밖의 제안에 허 목수는 잠시 고민을 했다. 그리고는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집 짓는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시골에 있어야 돈 되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사찰일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 허 목수의 마음을 단박에 붙든 것이다. 시골 목수의 그런 환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친도 반대하지 않았다.

군대 백에다가 쓰던 대패하고 자귀 하나랑 옷가지 넣어 둘러메고 따라 간 곳은 사찰공사가 시작된 의정부에 자리한 대원사였다. 작업은 절반 넘게 진행되어 막바지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시골 민가만 지어본 허 목수에게 사찰 공사는 낯설었다. 더욱이 같은 민가라고 해도 서산 시골 민가는 우리 전통 한옥 민가와는 또 달랐고 사찰은 그와는 한 차원 다른 집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음 날 한나절 지내고나서 저녁때쯤 되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데유. 도편수가 워떻게 그리는가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하며 워떻게 파면 좋고 워치키 그리면 좋은지 확인하고는 전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랬지. 그냥 넘기질 않았거든유. 한 번만 보면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배워지데유. 포집도 안지어봤지만 별거 아니더구먼”

대원사 공사가 끝나자 다른 목수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로 이동해 1년 동안 요사체 공사에 참여했다. 40명이 넘는 일꾼들이 함께 참여했다. 어찌 보면 전통기법을 지닌 스승의 문하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부친 휘하에서 대목 소목을 총 망라해 20년 간 실전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한번 보면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선천적 감각은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수 유전인자인지도 모른다. 그의 품삯도 더 올라 남보다 더 받았다.



대원사

“1년인가 하고 2년째 되면서 어지간한 건 내가 다 했지.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는 다 고참들인데 내가 데리고 다니며 일 시켰어. 그래서인가 그 고참들한테 거만하다는 소리도 들었구유. 사람은 좋은데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자신있었으니까 당당했지. 김중희 선생님과 김달원, 오재근, 김재학 씨 이런 분들이 모여서 ‘허균이가 들어온지 얼마 안돼도 딴 목수들보다 훨씬 나아’라고 그러더라구.”

관악산 연주암 공사를 마치고 나니 허 목수의 성실함과 솜씨를 눈여겨본 김중희 스승은 입문 3년째 되던 해부터 다른 선배 목수들을 제치고 그에게 현장을 맡겼다. 신참내기지만 실력과 경험을 갖춘 데다가 꼼꼼하고 성실한 그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였다. 더욱이 이주택, 오재근 씨 등 선배 목수가 있었지만 그들을 부리는 대목수 역할을 하며 목수들을 이끌게 되니 고참 목수들이 달가워할 리 없었을 것이다. 엄격한 스승에게 혼도 나고 칭찬도 들으며 사찰 공사의 기본을 익혀나갔다. 스승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대신해 일을 완수했다.

5년 뒤, 스승이 작고하자 그의 아들인 김달원 대목과 함께 오랜 세월 사찰일을 함께 했다. 여러 현장을 책임져야 했던 김 대목이 자리를 비우면 목수들이 손 놓고 기다리는 일이 잦게 되자 이를 보다 못한 허 목수가 직접 나서서 목수들을 이끌었다.

“도편수나 부편수 없어서 일을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하라고 했지유. 그러다 제대로 해놓는 걸 보더니 다음부터는 나를 따라서 하더라구. 워낙 열심히 하니깐 집엘 보내주지 않는 거여. 일 년에 두 달 집에 갔을래나? 일밖에 몰랐지. 기계 쓰기 시작한 게 한 30년 미만인데 그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했으니 힘든 거야 말할 수 없었지. 집중력과 자신감, 그리고 끈기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여”

철저한 원칙 속에 수백 년이 가도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원칙만을 고수해온 사찰 대목수 인생 40여년의 길. 1964년 법주사 일주문을 시작으로 천안 광덕사 명부전, 울산 문수사, 언양 석남사, 울산 백양사, 정릉 대승사, 하남 정심사, 대구 부인사 등 전국 지방곡곡의 200여 사찰 법당, 일주문 요사채 등 건물을 지으며 대목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최대의 대법당 통도사 설법전 아흔 아홉 칸을 시공하였고 외11포 내18포로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울산 백양사도 허 도편수의 손끝에서 탄생되었다.

사찰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고 한다.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물론 사찰의 장엄미와 전통의 기품이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숨씨를 지닌 도편수에게만 허락되는 불사이기 때문이다.



속리산 범주사 일주문

도편수가 되어 공사를 지휘할 때도 그의 초심은 변함 없었다.

“난 문화재가 아니지만 내가 짓는 집만큼은 문화재를 짓는다는 맘으로 늘 그렇게 일해왔어유. 완벽하게 튼튼한 집을 짓자. 이것이 내 철칙이었어”

문화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 집 한 집 최선을 다해온 것뿐이라는 허균 도편수. 그의 공사현장에서는 나무 한토막 허투루 버려지는 것이 없을 만큼 계

산은 언제나 빈틈없고 정확하게 유명하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더디지도 않았다.



통도사 설법전

“규격이나 수량이 눈짐작으로 딱 봐서, 한 번에 맞춰야 되는 거지. 꼼꼼하게 한다고 두 번 세 번 맞추다 보면은 그러면 일이 늦어지잖여. 정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리고 한 번에 떠서 한 번에 맞춰야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느리게 한 번한 사람보다 아무리 꼼꼼히 해도 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 번에 정확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야 하는 거지.”

허 도편수는 집중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더러는 길면 자르고 모자라면 다시 가져오거나 잇는 일이 예사이다.

“허 목수가 하면 나무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해.”

수천만 재나 들어가는 부재를 정확하게 맞춰 한 공사를 보며 통도사 스님들이 말했다고 한다.



곡재와 직재의 어울림이 빛은 견고한 아름다움

사람을 다루듯 나무를 다루고 얼르는 일, 나무의 성격, 마음까지 정확히 아는 일은 도편수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특별한 능력이다. 나무도 제 굵이에 따라 그 대로 써주어야 집이 상하지 않고 오래간다. 특히 곡선의 묘미를 자랑하고 집의 전체적 모양을 결정짓는 추녀는 가장 신경써서 가려써야 하는 부재이다. 추녀의 휘어진 곡선은 처마곡선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절대적인 구실을 한다. 허균 도편수가 짓는 건물의 추녀는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튼실하다. 곧고 큰 직재를 다듬어 사용하기보다는 굵은 그대로의 곡재를 연목에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들쭉날쭉함이 없다.

“스승님께 배울 때부터 집 지을때 연목 같은 건 휘어진 그대로 곡선을 이으면서 추녀선이 오래도록 살아남도록 해왔는데 지금까지 지어 놓 집들 다 그렇지. 선이 이쁘기도 하고 더 견고하기도 한 법이거든. 연목은 상하지 않으니까 오래 가고 만약 연목이 하나가 힘없으면 연목이 구부러지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물

르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추녀선이 주저 앉고 변화가 생기더구먼. 근디 1번부터 15번까지 연목 부재를 잘 골르를 것이 중요허. 그거 맞춰 잡는 게 어렵지.”

비록 그의 오십년 장인 인생에 내노라 하는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그가 지은 사찰이나 한옥만큼은 한국 최고의 문화재로 남기고 싶은 바람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80대까지 목수 일을 하셨는데 석남사 공사 할 적에도 한번 구경 오시고 통도사, 부산 길상암에도 와서 지은걸 보시고는 ‘나도 목수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잘 할 줄은 몰랐다. 참 장하다.’ 그 말씀을 여러 번인가 하시더라구. 그러시면서 딴 사람들에게도 매번 자랑하면서 ‘저 놈이 참 머리 좋고 성실한데 내가 공부를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데유.”

그러나 이제껏 공부에 대한 미련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한 번 하지 않았다. 언제나 주어진 일이 있었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작업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연구하다 보니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탓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도 허균 도편수는 치목장을 비롯해 현장을 수시로 드나든다. 그리고 확인한다. 일에 대한 완벽함과 도편수로서의 사명감은 일꾼들에게도 전달된다.

“현장 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 다 보이거든요.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부 뜯어서 다시 하라고 했지. 임시 집이 아니라 몇 백 년 가는 집인데 이러면 쓰겠냐, 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라. 몇 푼 아낀다고 부실공사하면 안된다. 그 뒤로는 일꾼들이 그런 내 원칙과 생각을 실수없이 하더라구.”

허균 도편수의 완벽함에 대한 고집은 그가 지은 전국 각지의 집에 그의 열정과 자부심과 함께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그의 노고를 격려하듯 문화재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및 공사를 맡았던 각 사찰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가 난, 같이 일하는 목수들도 그래야 한다고 봐요. 옛날에 목수들은 굉장히 힘든 것도 잘 참고 그랬는데, 정말 시간 생각 안허구 봄에 해가 저 깜깜할 때까지도 허고 새벽 동 트기 전부터도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급한 일 있어도 딱 털고 일어나 가 버리구 말데, 시상이 변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난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술이나 먹고 책임감 없이 일하는 사람은 데리고서 일을 안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참 누가 봐도 다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다구. 그래야 실수 없이 올바르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구.”

허균 도편수의 이러한 장인철학과 기법은 5남매 중 맏이인 큰 아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후대에 대물림되는 목수일과 장인정신

“통도사 설법전 같은, 돈보다는 후대에 자랑스럽게 전해지는 작품을 남기려 노력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목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해도 착오가 생길 것인데, 그냥 종이 하나에 펜으로 먹으로 점 하나 찍어다 작업한 것을 표시하시면서도 나중에 치수나 수량을 보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된 걸 보며 놀랍니다. 해놓으신 일도 철두철미 하시구요. 그동안 얼마나 집중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철학과 행동을 본받아 저도 건물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업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목재소에 마련된 치목장의 2층에 마련된 <동국전통한옥>이라는 불교건축연구소를 이끌며 부친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허현 소장이다. 그 역시 20년 경력의 도편수이다.



전시중인 모형과 연장들



각종 연장들

“한 이십년 넘었지. 서울서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 도우며 일 배우고 싶다고 내려왔는데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솜씨도 있고 정확성도 있어서 일도 잘한다구.”

목부재로 치면 든든한 기둥감 하나 자식 중에서 건진 셈이다. 그 옛날 부친과 허 도편수가 그러했듯 20년을 곁에서 서로를 지켜봐왔으니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또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 대한 허균 도편수의 믿음은 각별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전해진다.

연구소 내에는 전통공구 약 100여 점과 전통건축모형 약 30여 점을 전시되어 있다.

소장의 증조부, 조부를 비롯하여 허균 도편수가 사용했던, 나무껍질을 벗기는 흘치기에서부터 오래된 대자귀, 당개툼, 각종 칼과 끌을 비롯해 먹통까지 장인들의 손때 잔뜩 묻고 낡은 목공 연장들이 전시대 위에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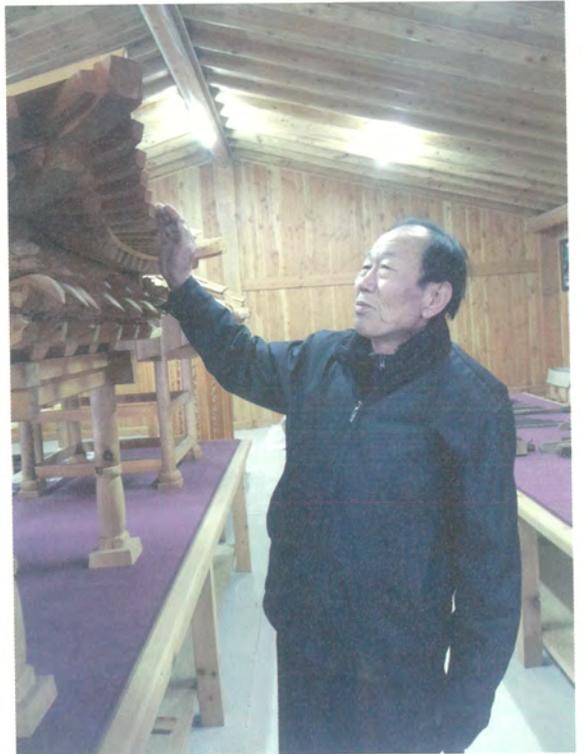
다. 한때는 주인과 더불어 고단한 노동에 동참했던 연장들이다. 목수의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인 그 만큼의 두께와 아픔으로 몸체는 닳아지고 노동의 강도와 비례해 날은 짧아지고 무더졌다. 기계에 밀려 설자리를 잃은 연장들은 제2의 임무를 위해 준비 중이란다. 전통 건축에 대한 전시 및 교육 활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나 집을 짓는 일도 진실됨을 가지고 사는 게 원칙이라 생각허구 살았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집이 최고 아니었어? 그렇게 열심히 집 짓는 것 밖에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살았어.”

진실함으로 나무와 더불어 집 짓는 일에 매달리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는 허균 도편수는 번듯한 사무실 하나 갖고 있지 않다.

“목수란 예로부터 전국 각지를 떠돌며 일하는데 일하는 현장이 바로 사무실이지. 뭐 따로 있을 필요있나?”

구석진 산비탈에서 외롭게 자란 나무가 더 바르고 견고한 나이테를 지녔다고 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장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며 한 집 한 집 사찰 전각을 지어올린 목수. 흰 눈 덮인 마당에 선 허균 도편수에게서 치목장에서 배인 짙은 나무향이 전해졌다. 그리고 불현듯 응달에서 모진 바람 맞아 가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 한 그루 떠올랐다.



목조건축 50여년 천직으로 살아온 외길 인생

수석부장 재암 윤 창 병

예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집, 이름하여 '한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한옥을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국에 한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양동마을과 또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선대 대장목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옥은 한 건물 안에 온.냉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대장인들의 훌륭한 지혜와 노고가 세월이 지나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 선대장인의 재능을 이어받아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재 기능인이 있어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 대째 한옥을 짓는 목수인 나는, 더 큰 목수가 되기 위해 고향에서 목수일을 제일 잘 하시는 이규남선생님, 김용서선생님, 김용윤선생님 세분 밑에서 5-6 년간에 걸쳐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골선생님들이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능보유자 자격증을 받지 않아 저는 계보가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며 열과 정성을 다해 50여 년간 한식목수로 외길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1994년에 문화재 기능시험 한식목공에 합격함으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가입하여 해남대흥사 문수전, 보성소리문화공원내 복누, 소리방 득음정, 담양가사문학관, 담양중림재 문화재99호, 전남대수학교수 박종철씨 가옥, 고양시 석탄장군 사당 등을 짓고,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광주 '누정'을 지었습니다.

협회 역대 회장님들을 보좌하고 열심히 살아온 덕으로 한옥 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덕으로 우리나라 최남단 전남 무안 해제면 신정리에서 자라온 한식목공인 내가 '누정'을 지었습니다.

'누정'은 큰 나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인들이 고향의 향수를 그린

나머지 광주광역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가 결연을 맺어 화강암과 목재가 조화를 이룬 남도 전통의 건축물입니다.

샌안토니오시에서는 그 보답으로 유적지관람과 배로 수로관광을 시켜주었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 우리 전통 양식 한옥 '누정'을 지었다는것이 내 생애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한옥일을 계속할 것이고, 나의 조언이 필요한 분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조언해 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샌안토니오에 「누정」을 준공하고 박철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샌안토니오에 한국 전통 「누정」 준공

입력일자: 2010-10-23 (토)

샌안토니오 시 북서쪽에 위치한 덴만파크에 한국의 전통 누정이 건립됐다.

샌안토니오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광주광역시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강운태 시장이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누정을 샌안토니오시에 기증한다.

‘광주의 누정’으로 이름 지어진 이 누정은 앞에는 아담한 연못이 한가롭게 펼쳐지고 화강암과 목재가 조화를 이룬 남도 전통의 건축미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 누정의 건립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보냈고 지난 3월 기공식 이후 13명의 장인들을 한국에서 직접 파견 한국 전통의 누정 모습을 재현해 냈다. 누정의 도색작업에만 단청 전문가들이 1개월 동안 생동감있게 전통양식을 살려 마무리 작업을 끝냈다.

누정 건립비는 광주의 중견 건설업체인 (주)남광건설(대표 김대기)이 부담했고 샌안토니오 시가 건립 부지를 제공했다.

남도 누정은 애초 샌안토니오 시내 중심가에 건립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고급 단청 등 원형 훼손을 우려한 샌안토니오 시가 관리상 보다 안전한 장소인 덴만 파크를 추천 결정됐다.

샌안토니오 시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2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두 지역 단체장이 서로 명예시장증을 주고 받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펴오고 있다.

샌 안토니오 하늘에 올려 퍼진 아리랑 덴만 파크에 한국 전통 누정 탄생

입력일자 : 2010-10-29 (금)
〈샌 안토니오 = 박철승 기자〉

샌 안토니오 시 북서쪽에 위치한 덴만 파크에 한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전통 누정이 건립됐다. 샌 안토니오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광주광역시가 양 도시 간 30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인 동포들의 삶의 애환을 씻어줄 작은 경회루를 이곳에 제막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정자가 미주사회에 건립된 것은 샌안토니오가 처음이다. 28일 오전 10시 덴만 파크 현장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인 여성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한인동포들이 참석, 합창단의 아리랑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한국의 자존심인 전통 누정이 위용을 드러냈다.

샌 안토니오 시 관계자는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들은 정자의 모습이 공개되자 한-미간, 양 도시간 영원한 동맹과 협력의 관계를 기원하며 가슴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냈다.

이 정자는 한국의 경회루 축소판으로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화강암 위에 조각으로 세워진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 그대로를 재현했다.

한국에서 배로 선적해 샌 안토니오 시가 제공한 공원부지에 건립된 누정은 도색작업과 공사일정의 모든 과정에 한국에서 명인들이 직접 투입됐다.

‘광주의 정자’로 이름 지어진 이 누정은 앞에는 아담한 연못이 한가롭게 펼쳐지고 주변 풍광과 환상의 조화를 이뤄 한국 전통의 건축미와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역만리 타국에 세워진 한국의 대표 건축양식인 이 정자가 지난 30년간 양 도시의 교류를 발판으로 누천년을 이어가는 이 교량의 역할을 다해 내도록 힘써 나가자”고 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 정자는 한-미간 군사 혈맹과 경제동반자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차세대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어나가는 길라잡이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홀리앙 캐스트로 샌 안토니오 시장은 “광주시와 흡사한 도시인 샌 안토니오는 앞으로도 양 도시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이 정자제막은 이곳 한인들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친근한 벗으로서 한국을 이해하는데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의 조윤수 총영사도 “양 도시가 30년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서로 상생협력하는 모습이 미주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인적

교류를 통해 세계를 리드하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광주의 정자를 기증한 남광건설의 김대기 회장은 “가장 한국적인 멋이 세계를 리드해가고 있다”며 “정자 준공을 계기로 이곳 한인 동포사회가 조국애를 세세토록 키워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의 정자 제막식에는 양 도시 시장을 비롯한 시공회사 대표와 샌 안토니오 역대 한인회 대표와 동포 등이 참석해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며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미국 텍사주 샌안토니오에 광주정자(누정)



전남 보성 녹차 단지 내 북누



광양 더도덕
협회 법당



전남 해남 대흥사 내 문수전



전남 화순군 이서면 망향정



전남 보성 소리 문화단지 내 소리방

집! 우리의 한옥에 대한 생각

한식목공 제1195호 이 연 훈

집이란 단순히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담고 있다. 외적인 기후와 환경 조건에 의해 집의 구조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해서도 건물의 양식에 차이가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조건을 담고 있지만 태동 이래 변함없는 것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가 함께 모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장소라는 점이다. 특히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일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 목적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라도 가족 구성원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옥은 우리민족이 개국 이래 이 땅 위에 세운 건물로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창적인 건축문화이다. 수많은 전쟁과 외침 속에서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한옥이 강대국들의 동아시아 진출과 함께 서구문명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서구의 주거양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가속화 되었다. 그러는 중에도 한옥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 전란과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존재하였던 한옥들이 급속도로 사라져 갔다. 전란의 잣더미와 피해를 입은 국내 상황에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서양식건물이 대중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한옥은 영영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와 한옥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성장위주로 발전해 오던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삶의 질로 올라서면서 우리 것에 대한 재해석의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아파트의 대중화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건강에 이로운 주거 형태에 눈을 돌리게 된 점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우리의 한옥이 21세기 신 주거문화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신 한옥으로 당당한 위치에 올라서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점에 주목하며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첫째. 한옥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한옥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긍심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한 자랑과 그릇된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한옥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한옥을 한옥답게 할 것이다. 한옥이 간직한 장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건축이 될 것이다.

둘째. 한옥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옥의 발전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함께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발전되었다. 산업발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땅 구석구석에 한옥 또는 한옥을 기반으로 한 농가형 주택이 일반적 주거로 존재해 왔다. 앞서 말했듯이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함께, 한 집안의 거주방식이 대가족 공동체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하였고 최근엔 나 홀로 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과 전자통신체계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변화된 오늘날 한옥은 과거 속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옥의 공간적 재해석이 필요하고 전통적 건물배치 방식이 여전히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적합한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전통생활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형상은 과거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곤 하나 내면적 사고 체계는 지금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오늘의 한옥은 이러한 우리의 내면적 의식구조와 외형적 생활패턴의 변화에 조화로운 공간이 되도록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옥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냉난방에 적합한 한옥이 되어야 한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가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은 잦은 태풍과 폭우와 폭염에 시달려야 하고 겨울철엔 폭설과 함께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야 한다. 봄가을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것 같다. 기상이변은 지구 전체가 당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걸쳐 사라질 조짐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옥도 변화하는 기후환경 조건에 적합한 집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존의 한옥 벽체 두께로는 냉난방에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옥의 벽체 두께가 90mm 안팎인 데 비해 보편화된 조적식 건물의 벽 두께(공간 벽 기준)가 350m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상호 건물의 벽 두께 차에서 오는 간극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한옥의 벽체를 조적식처럼 두껍게 만들었다가는 한옥의 고유한 미적 아름다움이 상실된다. 한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한옥의 벽 두께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옥의 정통성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전혀 손색이 없는 냉난방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기계적인 강제적 방법 보다는 벽체 및 천정의 보강과 창호의 개폐에 대한 기밀성 확보를 통한 최소한의 연료를 이용한 냉난방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옥(양반가옥)의 외향적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옥'하면 의례히 양반가옥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양반가옥은 목재가 주요 뼈대가 되는 양식으로 외부로 들어난 목재의 이미지가 서민형의 토벽식에 비해 상당히 크다. 대개 한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토벽식(또는 토담식)의 한옥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벽 구조인 양반가옥을 따르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다보니 벽체가 갖는 한계성에 스스로 갇혀 버리게 된다. 21세기 신 한옥에 선 이런 국한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벽식 구조를 활용하고 응용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옥시공과정을 바르게 알리고 국가공인 한옥표준공사비를 책정해줘야 한다.

그동안 주택시장거래에 강세를 보이던 아파트가 점차 실 소유자 위주로 위축되면서 집에 대한 투자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땅콩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거래 대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귀농 귀촌인이 늘어나면서 농가형 전원주택이 선호되고 있다. 이 들 중에는 건강에 이로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저런 사회의 변화에서 한옥이 새로운 주택거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옥이 대중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한옥은 여전히 비싼 건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한옥 시공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입견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옥 시공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쉽고 편한 한옥 시공과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하겠다.

공사비에 있어서도 공사내역을 분석해 보면 결코 터무니없는 건축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왜 한옥 시공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일까. 일반건축과 달리 한옥의 목구조가 갖는 복잡한 구조와 나무와 흙 돌과 같은 자연재로서 시공과정이 까다롭고 작업기간이 두세 배 이상 소요된다. 다시 말해 한옥 시공비가 비싼 것이 아니라 한옥의 구조와 양식에 맞는 정당한 시공비가 계산된 것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옥시공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느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한옥의 표준공사비를 책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가 직접 연구용역을 통해 한옥의 규모와 양식에 맞는 모델별 표준을 정하고 각각의 건물

에 맞는 공사원가를 공개해 주어 이를 근거로 누구나 자신이 짓고자 하는 한옥의 공사예상금액을 쉽게 추정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옥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전통한옥과 신 한옥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기존 한옥이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양식과 규격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여 짓고자 하는 ‘한옥애호가’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한옥이 갖고 있는 단점은 피하고 장점을 끌어와 새로운 형태의 신 한옥(또는 한옥 형 건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어찌 보면 상반된 길 같으나 한옥의 대중화와 계승발전이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본다.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이란 말이 있듯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발상은 인류역사문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전통양식을 고집하는 것만이 한옥 보존을 위한 유일한 길도 아니며 전통을 모방한 새로운 양식의 한옥을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들 상호간엔 서로의 방법과 길을 존중하는 풍토야말로 이 땅에 한옥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일곱 번째.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숙련과정을 통한 한옥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옥이 이 땅에 다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한옥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는 전혀 경력도 없으면서 문제만 외워서 이론 시험에 합격하고 몇 마디의 면담을 통해 배출되는 능력 없는 기술자와 기능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 철저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완숙된 한옥 전문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들어 한옥 기능자를 양성하는 소규모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검증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우려되는 바이기도 하다. 반드시 국가의 검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기술자와 기능자가 배출되어야 한옥의 질을 높이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한옥의 모듈화와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

한옥을 모듈화 하는 의도는 시공을 단순화(동시에 다량의 집을 지을 수 있다)하고 공기를 단축하여 한옥 시공비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모듈화는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고 지금도 개별 시공사에 의한 모듈화가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개별적인 모듈화 실현은 진정한 모듈화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모듈화는 이 땅 어느 곳, 누가 집을 짓더라도 같은 규격품을 사용해 집을 짓게 되는 공적인 모듈화를 의미한다. 즉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 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한옥모듈화에는 상당한 진통과 모호함이 없지 않다. '모듈화'란 말 그대로 건물의 양식과 규모에 따른 일정한 규격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평면의 크기, 부재의 규격, 지붕구조의 양식, 창호의 크기와 개폐방식 등에서 국가 주도의 일정한 규격화를 만드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직접 시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과정의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KS 규격품으로 제작된 부재와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면 시공비 절감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모듈화 방식 보다는 맞춤과 이음방법의 획기적인 개선과 목재치목 방법의 다양화(수가공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치목자동화과정), 흙벽 공사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공법의 개발과 지붕 외피에 고가의 기와가 아닌 한옥에 잘 어울리고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오히려 한옥시공비를 낮추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집은 개인적인 취향과 형편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서의 한옥이 내 집과 이웃과의 그것이 같아지기를 누가 좋아할까. 따라서 한옥의 모듈화는 추진하되 그 방법과 범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옥이 아닌 건물에서 한옥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한옥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 전문가들이 한옥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 갇혀있기 보다는 다양한 패턴의 응용과 시공분야를 과감하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불러주면 간다는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관습적 관계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

상상해 보라! 아파트의 로비에 잠깐씩의 쉼을 위한 낮은 마루가 계자난간에 둘러싸여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행의 내부와 높은 빌딩의 실내 휴식 공간 등에 한옥에서나 볼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면 이런 것이 한옥의 막강파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의 눈에 한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도 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 본다. 최근 부여 역사재현단지 앞에 세워진 롯데호텔이 좋은 본보기라 생각된다.

한옥 전문가와 일반 건설기술자간의 기술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일은 어느 한 개인의 외침으로 성사되지 못한다. 정부기관에서 솔선하여 대중화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한옥이 한국의 고유한 건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기관 중에 한옥을 보급하고 전담하는 기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

겠는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문화재청 산하에 해당 기관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한옥을 보급한다면 한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한옥에 대한 필자의 여러 생각들을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중용을 하나의 커다란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 미덕의 중심엔 선비정신이 있다. 무엇이든지 너무도 빨리 변하고 금방 식상해 하는 현대인의 생리에 어찌면 한옥은 앞서 간 선조들이 중시하였던 중용의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옥이 집이라는 존재기치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한 복판에 세워진 궁궐을 대할 때 단순한 건물로서만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는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한옥이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에 다시 지어지는 한옥이라 할지라고 한옥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성과 민족성은 그대로 오늘 우리 앞에 우뚝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이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 어느 외국 시인의 글귀에만 존재하기에는 뭔가 서글프지 아니한가. 이젠 진정한 아침의 나라 한국을 만들기 위해 이 땅구석 구석에 한옥이 전통과 다양한 변화를 아우르며 발전되기를 꿈꾼다.



낙산사 내 보타루 드잡이공사

드잡이공 홍성표

2012년 10월경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창건된 낙산사 내에 보타루 드잡이공사를 하게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과,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짧은 글에 담아보겠다. 보타루 마루장틀과 단틀을 각각 3개소와 정면귀주 1개소를 해체하여 교체하는 과정에 드잡이를 60cm로 올리고 다음 교체가 끝난 후 다시 원상 위치로 내리는 드잡이로 완료 마감한다. 이리하여 공사를 끝마치는 과정까지 일행들과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았다.

- 첫째, 용어에 대한 말과
- 둘째, 드잡이 기법에 관한 말
- 셋째, 현장에 주변정돈 권리에 관한 말
- 넷째, 문화재에 대한 애호 사상이념
- 다섯째,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정신과 사명감
- 여섯째, 어느 곳에서 공사를 하든지 내 집과 같은 소중한 마음으로 시공하는 방법

정면 3칸, 측면 2칸 1층은 석주로 되어 장혀로 석주와 함목이 되어있고, 2층은 목조로 다포로 짜서 구성된 누각이다.

전면 마루장틀 3개소와 단틀 3개소 및 귀주 1곳과 마루판이 부식되어 교체하는 공사였다. 드잡이를 하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조목 귀틀을 설치하고 기둥마다 보호목을 세운 다음 유동을 없게하기 위해



드잡이 올리는 작업



장틀 교체 작업



보타루 전경



드잡이 올리는 작업



이층 귀주 교체 작업

고정하고 피죽을 기둥에 돌려대고 철선바와 조임쇠 (텀버쿠)를 클립으로 조여 매고 앞, 뒤 기둥과 좌, 우 기둥을 동일하게 돌려매어 유동없이 조임쇠를 조인 다음 기둥마다 가로목을 창방에 참바로 동여매어 부착하고, 앞줄기둥 4개소와 측면기둥 좌, 우 한 곳에 마루판을 해체하고 보조목을 가로목 내,외에서 일층 바닥에 작기를 설치한 위에 맞추어 고정한 다음 뒤 줄 배변에는 창방에서 마루귀틀에 보조목을 기둥마다 세우고 유동없이 고정을 한 뒤, 평면도를 그려놓고 수평을 보고 높고 낮은 것을 평면도에 기재한다.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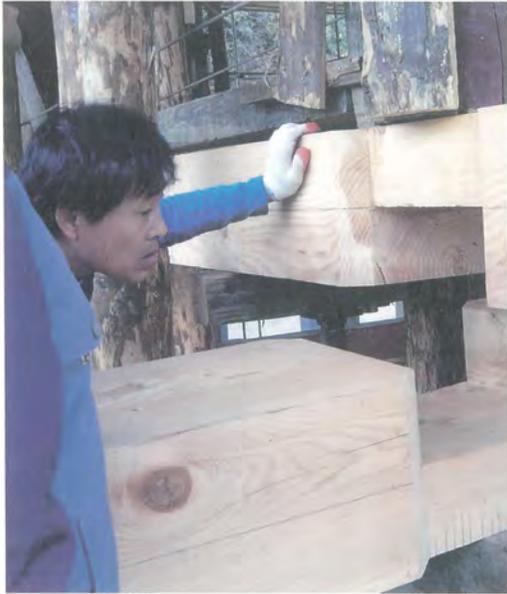
그리고, 드잡이를 하는데 작기판을 수평을 맞추어놓고, 가, 가=, 가=를 한 줄을 들고 고이고 반혀놓고 작기를 내리고 하는데, 다포로 짜여서 1치씩 드잡이를 반복으로 옆줄 나, 나=, 나=을 들어올리고 고이고 반혀놓고 다음줄로 왔다가 갔다가 들면서 사회 들면 수평을 보고 수직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여 2자를 모두 올렸다.

기둥과 마루 장, 단, 틀을 교체하다

작기 설치를 완전하게 설치한 후 마루장틀을 해체하면서 즉시 신재를 조립하였다. 정밀하게 치목이 되어서 함목이 잘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마루 장, 단, 틀을 해체 교체하여 고정한 후 귀주를 해체하는데, 기둥 상부에 사방으로 받줄을 매고 기둥 하부에 십자거리 받줄을 동여매고 조심스레 해체하고, 귀주를

조립하는데 위와같은 양식으로 순조롭게 조립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둥밑에 작기를 설치하고 들면서 조립을 끝마쳤다.

그리고, 현장에 정리정돈을 한 후 원위치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올리는 작업보다 내리는 작업은 더 한층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수평을 자주 보면서, 조심스레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다보면 원래의 위치로 내리는 곳 장혀 중심에 사각목정이 고정되어 있는데, 마루 장, 단, 틀, 중심에 중심합과 함목이 잘 되어서 그 기본은 어디에 비할 것 없이 통쾌하다. 이러한 드잡이 공사



단들 교체 작업



일층에 드잡이 작업을 하기위한 작기 설치



이층에 보호목 설치 및 장틀 보조 목들 설치

를 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다. 어느 직종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드잡이 기능인은 용어만이라도 70%는 알아야 모든 작업이 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드잡이 한 것을 되새기며.....

24살 때 처음으로 형님 건설 작업장에서 조역을 하였을 때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 3치5푼, 각주 2치에 2치5푼, 각재 연목에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구성된 건물을 바로잡고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첫째, 평면도를 그려놓고

가= 3, 나=3, 다=3, 라=3

가=2, 나=2, 다=2, 라=2

가=1, 나=1, 다=1, 라=1

정자를 만든다.

9자 길이 3치푼, 5푼 두께 송판 1장하고
6자길이 3치푼, 5푼 두께 송판 1장을 중
심에 먹줄을 통겨놓고 옆으로 3자 상하
로 4자 대각으로 5자, 이런 식으로 정교



일층 드잡이 받쳐 놓은것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전 고물개정글과 같은 정자이다.

둘째, 수평을 본다.

창방이나 장혀에서 7자로 일정하게 기둥에 표시하고, 기둥을 각각 수직으로 맞춘 다음 정자를 거꾸로 하여 기둥 주변 먹줄에 수직을 맞추고, 높고 낮은 것을 평면도에 기재하고 기둥 전체를 확인한다.

셋째, 드잡이를 하기 위하여

참바로 가-기둥과 가≡기둥을 돌려 매고 탱갱이를 돌려 조이고, 하방에 수장이 기둥에 다 맞도록 조인다.

나-나≡, 다-다≡, 라-라≡

가-라-, 가=라=, 가=라=

전후좌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밧줄을 매고 조여 준다.

가- 하방에서 가≡도리와 가≡하방에서 가-도리를 대각으로 매고 가, 나, 다, 라 옆을 대각으로 밧줄을 돌려 맨다. 가-하방에서 라-도리와 라-하방에서 가-도리를 대각으로 밧줄을 돌려 맨다. 가=라=, 가=라=에 행열을 앞과 같이 밧줄을 대각으로 매고 탱갱이를 돌려 조이는 것이다.

넷째, 지래목 방식으로 드잡이하다.

길이 12자되는 굵은 낙엽송으로 기둥마다 지래밥을 다쳐놓고, 지래형식으로 설치한 다음, 각목으로 만든 방틀을 지래나무 끝에 달아매고, 기둥이 들리도록 돌을 얹어 드잡이를 하였다. 기둥과 기둥사이가 8자로 되어서 1치 5푼을 들어 올려, 측면으로 두 줄을 들고 고임목으로 받쳐놓고 두 줄을 들고 고임목으로 받쳐 놓으면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드잡이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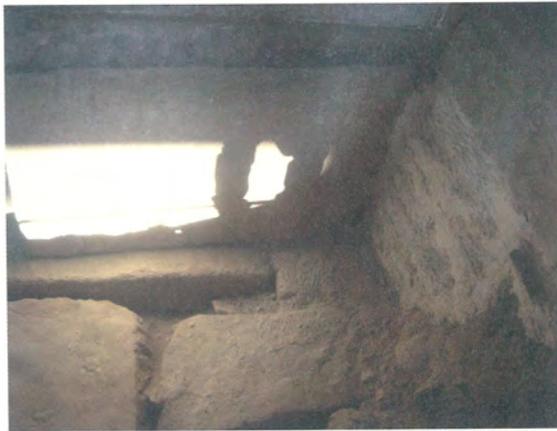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잡이를 하면서 성토를 하면서 다 올린 다음 기초를 다져 주초석을 놓고 드잡이공사를 완공하였다. 처음 하는 일이라 형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조역을 하면서 어려운 작업에 뛰어들게 되어 현재까지도 감회가 새롭고 기술전수의 고마움을 그 어디에 비할 바 없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송례문 성곽공사

중요무형문화재
석장이재순



참나무기초유구



하문도리석



상문도리석

1. 성곽설치

성곽설치 : 기준틀 수직형 위치
 성열곡선 (언덕에서 곡선의 흐름)

성곽돌크기

대 1200~1500 * 650~480

중 900~1200 * 450~300

소 500~900 * 280~130

성곽돌 크기는 하나도 똑같지 않음

치석 - 형편대로 크기를 치석한 후 쌓으면서 약간의 수정

거랭이 - 상면은 물의 흐름을 위해 곡선으로 메주형으로 하고 평면에서 비늘이 쌓아보이도록 전면, 상면 둥글게 처리했음.
 옆은 직각이 아닌 대 30mm 허용, 중 20mm, 소 10mm 허용하여 각이 달리 보이도록 하고 심석은 성돌 1/3가량 사용하고 뿌리 길이는 소 900mm, 대는 ~1800이상 적심은 비늘 쌓이듯이 평평하게 잡석의 길은쪽이 안쪽

2. 승례문 3주기 시연

석조시연- 설치작업 두루깡시연(中重口)
 진폴작업 - 도르레, 회전대, 리마대
 성곽쌓기

대장간 연장 고치기 - 좌식대장간, 정벼르기, 담금질



성곽기준틀



가공성곽돌



중중구에두루깡날기



성곽중간과정



좌식대장간



정벼르기

3. 남동육축쌓기

육축 끝기둥 설치 - 자연석(고임석)짚돌 중에서 강한돌

육축 큰돌 교체의 시연 - 자연그랭이방법 실시하려고 했으나 큰돌교체 - 교체결정됨

끼워서 맞추기 - 해체를 적게하고 맞추어 나가는 방법 - 어려움이 많음

육축의 퇴물림 - 5mm~10

주초석 받침석 - 人자형 육축물기, 井자 받침, 높이관계, 각도관계가 중요

주초석 교체 - 처음에는 높이가 1000이상이므로 100정도를 제거해서 재사용 하는 것과 새로 교체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새로 교체 하는 것으로 정해짐

주초석은 원형 그대로 밑부분을 넓게 하여 제작하였으며, 석루조와 마주치는 곳에 서로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육축기둥설치



육축끼워넣기

4. 북동육축 석축 쌓기

기초의 쌓기 : 기둥석밖에 지대석 25높게

엄지기둥 : 완벽하게 놓고 나왔음 , 틀렸다고 교정 40mm 높게 요구해 틀렸음으로 원래 높이로설치

소맷돌 밑선의 선 맞추기- 원형대로 육축돌 쌓고나니 60mm 수평이 높음,
 돌의 줄눈을 최소화 한 상황에서 유구를 적게 할수 도 없고 소맷돌 교체
 화재시 떨어진 소맷돌의 쇠스리(홈)가 다름 소맷돌은 24mm 정도인데, 이
 돌은 50mm 정도로 되어있음 또 돌의 길이가 60mm 짧음

엄지기등좌대석- 왕의 의자처럼 깊숙이 파고, 바깥쪽에 등받이 모양으로
 육축 안쪽으로 힘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단석 좁은것



석누조



북동난간철심봉



남동육축석(대석)



무형무사석



북서주초석및받침석

5. 북서육축 쌓기

이전의 돌이 외관상 많이 파손되어 교체키로 했으나 해체결과 80% 이상이 단단하고 성성한 돌이어서 보존처리 했으며, 번들은 횡으로 쪼개짐

홍예틀 받침- 나무로 제작하였으며 의견 돌의 줄눈의 옆의 4곳에 받침 홍예틀 등 60mm 이상 벌어져 있음. 끝기둥석 밖에 2.5m 높이 기울어져 있었음(지하철로 인하여)

무사석 설치 - 물 흐름

주초석 받침에 人자, 井자 등

6. 마무리

엄지기둥 좌대석은 소맷돌의 경사로 인해 위에서 밑으로 밀려내려오는 상황 이어서 앞쪽 높이를 높게하고 안쪽은 낮게(30cm가량) 해서 육축과의 연결 부분의 지대석은 원형을 살리고 안치하였다.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지기둥을 보호하고 소맷 돌이 밀리지 않는데 도움이 확실히 될것 같다.

여장은 승례문의 전 사진자료 서울 성곽의 어느 곳보다 적으며 세부적으로 하고 표면은 조금 부르게 매주형태처럼 5~6mm 퇴물림 처리했다. 서측은 3개의 여장 동측은 10개의 여장

등성계단은 옛 사진자료 등을 참조하면서 발굴조사 결과 동측의 원형이 발

굴 됴으로써 자문회의의 등을 거쳐서 계단의 폭을 넓히어(약2m 가량) 복원하였다.

동측성곽의 내탁쪽은 남산쪽의 올라가는 도로 등으로 인해 보호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석축을 쌓아서 성곽의 경사가 지탱되어야 장마철 등에 흠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석축의 높이 2.4m에서 70cm 가량으로 상향 처리하였다

성곽의 끝나는 다음 복원 했을 경우에 한뎡으로 성곽을 연결될 수 있도록 계 단식 즉 성곽의 크기에 따라 표면은 흑뚜기 다듬질 처리하여 쌓았다.



서측엄지기동좌대



동측성곽



동측성곽등성계단

변와의 맛, 멋, 한, 신명, 맥, 전통

변화와공 제497호
강기중

한국의 맛, 멋, 한, 신명, 맥, 전통, 궁지... 문화재는 우리 기능인들이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함께 연륜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는 우리 것에 대한 감성적 느낌과 정신적 가치들이 아닌가 한다. 내가 문화재 기능공으로 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한옥 기와를 수리해오다 칠십년대 말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되었으니 세월로 따지면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종사하다 보니 그동안 문화재에 흐르는 기류가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친다.

그동안 선배님으로 모셨던 분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더러는 뒤로 물러나 세월의 덧없음을 바라보고 계시겠지!

무엇이 공(功)이고 무엇이 과(過) 일 것인가?

나는 오늘도 자신도 부족하면서 공과 과를 씨부렁댄다. 사실 나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기와일을 하고 돌아 다녔지만 한 번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으니 기능공의 길도 어렵고 멀기만한 여정인 것 같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변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지난 12월 4일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기능인교육에서 “박공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시청각교육을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한 반면 나는 시청각에 대한 준비는 없었고 원고 몇 장 써가지고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내 계획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자에 소개된 박공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고 그와 다른 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서보는 많은 사람들 앞의 강연이다 보니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 할 말은 어디로 가고 큰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듯 두서없이 끝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서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실력이 안 되니 글로서나마 다시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변화와공의 와(瓦)자는 기와 와 자인데 번(翻)자는 무슨번자인가 하고 사전에서 찾아보니 그럴싸하게 해석은 뒤칠 번 자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와를 뒤치다=뒤집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인 것 같다. 예전에는 새 기와의 시공보다는 지붕에 깔려 있던 기와를 뒤집고 얹어서 변화하고 새 기와는 보충만 하는 그런 식의

변와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 변와와공이라는 공식명칭이 붙지 않았나 생각한다. 와공은 두 분야인데, 변와와공과 제조와공 분야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조와공이 변와와공이고 변와와공에 제조 와공이지 않았을까? 1인 2역으로 말이죠.

기와도 만들고 시간이 되어 집이 완성되면 그분들이 다시 지붕에 올라가 기와도 잇고 했을 것 같다. 지금처럼 기와지붕도 많지 않고, 시공도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 관청에 납품하는 관요를 빼놓고는 일반 공사에 쓰기 위해서 공장 같은 것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큰절이나 지방 대갓집을 지을라 치면 집짓는 주변에서 기와 굽기에 적합한 장소를 골라 그곳에 가마를 설치하고 집이 완성되는 동안 흙을 빚어 기와를 만들고 지붕의 형태에 따라 기와 크기와 형상을 구상하고 하여 집이 완성되면 기와 얹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조분야에서는 KS 공장도 많이 생기고 기와의 질과 양적인 향상도 가져왔다. 다만 강한 기와만 추구하다보니 예전에 느꼈던 향아리 같은 기와 즉 습기를 머금었다가 햇볕이 나면 습기를 발산하는 그런 숨 쉬는 기와를 원하는데 강하기만 하고 부드러움이 없어 조금 아쉽다.

그러나 제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금같이 질이 좋은 기와가 탄생했다고 본다. 또한 변와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기와 시공 자체가 체계화 되어서 각자의 생각만 갖고 시공하던 옛날과 많이 다르다. 또 변와와공 분야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즉 인간문화재가 탄생했으니 발전의 증거가 아닌가 한다.

한옥지붕의 기능은 우선 비가 새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한옥이 갖는 고유 미관이며, 그 다음은 방한, 방열, 방음, 방습, 방풍 등이 있다. 지금 우리의 시공 방법은 적심 넣고 보토 10cm, 강회다짐 10cm, 보토10cm해서 전체 30cm의 흙으로 기와 잇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재는 그렇게 시공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또한 기와의 무게로 인해서 적심을 많이 넣고 흙의 양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기와지붕의 고유 기능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 한옥지붕에 이어진 기와가 건물 자체에 무리가 가고 무게로 인해 뒤틀리는 현상이 정말 있다면 기와 겹칩을 줄이던가 기와의 무게를 지금보다 줄이는 노력도 더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제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한옥지붕만이 갖고 있는 방한, 방풍, 방열 등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로 삼는 흙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흙이야말로 기와지붕 공사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물자인데 기와를 잇기 위한 재료로서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내리쬐는 폭염과 겨울의 차가운 냉기를 차단시키는데 흙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와지붕에 들어가야 하는 흙의 두께는 지금의 기준치보다 더 넣어야 한다고 보고 기와도 지금처럼 강도(強度)를

지녀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옥구들 문화에 세 가지 중요한 구들, 벽, 지붕에서 흙의 역할이다. 구들은 방바닥 난방역할을, 벽은 방풍과 벽에서의 열기와 냉기의 차단, 지붕 역시 냉기와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인데 이것들은 다 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와 무게 때문에 흙의 두께를 제안한다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냉기를 막기 어렵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난방기기구 좋아져서 생활 난방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여 본래 갖고 있는 장점들을 포기한다면 가치가 전도된 것 아닐까?

흙의 무게, 기와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을 사실이다.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고유기능을 해체하면서까지 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붕 평수는 건평수의 2배내지 3배로서 진흙과 기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들은 어떤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깔려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니 견딜 수 있다고 본다. 그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한옥 구조의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교한 한옥구조의 결구와 고루 깔리는 지붕에서의 무게감으로 오히려 구조 자체가 들뜨지 않고 귀마춤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옥의 병폐는 구조상 생길 수 있는 부조화난 지붕의 변위를 미루어 소홀이 함으로써 생기는 것은 아닐까? 변위를 소홀이 함으로써 기와가 새고 흙도 젖고 나무도 젖고 하여 장시간 그냥두면 새어 들어간 물은 습기가 되어 조금씩 증발하게 되는데 증발자체가 목자재를 습하게 하고 나중에는 탕이 쳐서 썩게 하니 지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썩고 뒤틀리고 내려앉는 부작용이 있을뿐 기둥의 굵기나 석가래의 촘촘함등으로 본다면 구조상 어느 정도 무게는 견디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은 강회다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강회다짐은 과연 필요한 절차인가? 필요치 않은 것을 오랜 관습에 따라 의미 없이 하고 있지는 않나? 일반 가정집이나 비문화재 즉 관청발주공사가 아니면 강회다짐을 하는 경우보다 안하고 그냥 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개인의 취향이야 어찌 되었든 예전부터 쪽 해오던 것을 진부 가치만 논할게 아니고 조상들이 왜 강회다짐을 한 위에도 기와를 얹었을까? 하는 것이다. 강회, 즉 생석회는 그 특성상 지하로 들어갔을 때만이 제 구실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상으로 뜨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하지만 굳은 작용이 있어 강회 다짐층을 적심 위에 제대로만 한다면 그 역시 시멘트처럼 굳히고 얽고하면 단단해져서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강회다짐은 나무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도 위에 하게 되어있음) 아무리 잘 해 놓아도 조금의 양금은 면할 수 없다. 또 비막이 작용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강회다짐의 의미가 퇴색해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분명 강회다짐을 하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라 여겨져서 상고해 보기로 한다.

강회다짐의 실체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옥개부분에서부터 산자를 엮고 진세우를 치고 보토를 깔고 강회다짐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이 바로 강회다짐이기 때문이다. 강회다짐은 글자 그대로 강회다짐이어야 한다. 대충 바르고 마르기만 하면 기와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두들겨서 빈틈을 자꾸 메꾸어서 다져진 상태가 강회다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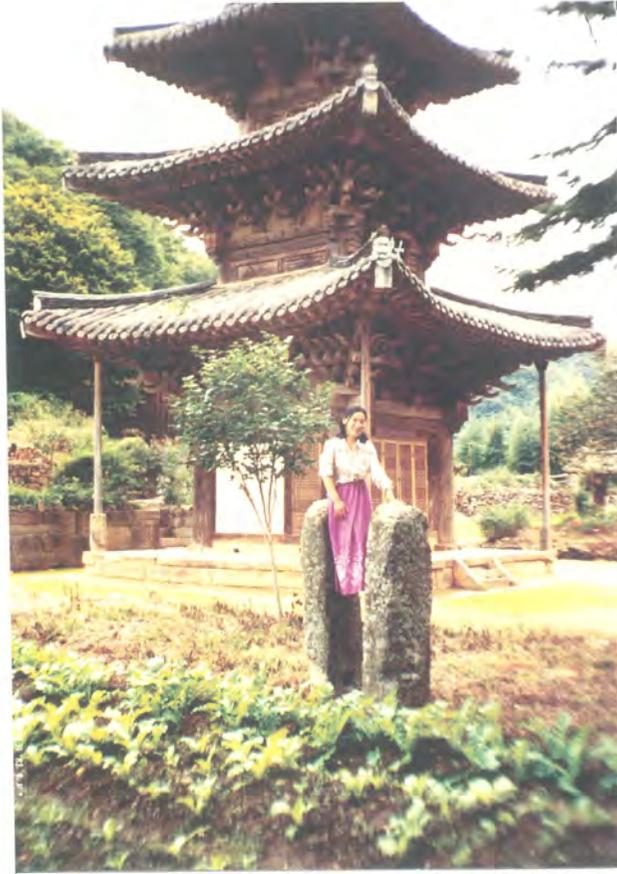
또한 생석회의 특성상 필히 마사토와 그것이 없다면 진흙을 쓰되 거친 모래를 많이 섞거나 모래질이 많이 섞인 진흙을 써야 강도가 세어진다. 강회다짐은 기와를 잇기 전의 기와지붕의 형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옥개부분에서부터 강회다짐층까지 콘크리트 지붕이 생기듯 굳은 다음에는 그 위에 번와만 하면 된다. 강회다짐 뒤에 기와를 깔 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기와를 깔 때 쓰는 보토이다.

보토에 강회를 많이 넣고 너무 찰지게 개어서 바닥기와 깔기를 하면 보토와 강회다짐이 한 살이 되어서 다음 번와시 보토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강회는 넣되 흙이 흐르지 않을 정도만 넣고 보토의 물기는 보실보실하게 하여 쓴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한다면 다음 번와시에 보토만 긁어내리면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 즉 다음 번와시 강회다짐층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다시 보토만 조정하여 시공하면 번와공사는 끝이다.

이에 대해서 각사의 의견이 있음을 인정한다.(나도 그중 한사람 일뿐!)

또 강회다짐 위에 위아래 필요한 부분만 진흙을 쓰고 중간층은 분말 강회를 진흙이나 마사토에 마른 상태로 섞어서(조금은 습기가 있음) 쓸 수도 있다. 기와에서 생길 수 있는 결로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장연이 들뜨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한옥지붕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팔작지붕에서 한껏 치받아 올라온 추녀의 자태다. 이것이야 말로 박공의 설치에도 유기적 관계가 있겠지만 그 화려함이란 가히 독보적이다. 그런데 이 추녀가 가끔은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때가 있다.

이번 교육에서 석탑에 대한 강연을 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재탑으로서 전국에 두 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법주사의 팔상전이고 하나는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이다. 마침 불이 난 시점에 전라남도에서 시공하는 일이 많았는데 쌍봉사 대웅전을 새로 짓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쌍봉사의 터가 배(船)의 형국인지라 돛대를 세워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8평짜리 삼층목탑건물이다. 내부는 8평 내부가 전부이고, 기둥만 돛대처럼 3층까지 치솟아 올라 사귀의 추녀가 돛대에 꽃혀서 사방으로 균형 잡는 형국이었다. 시공할 때 쌍봉리 주민도 참여했는데 그때 불나기 이전의 사진을 한 장 얻을 수 있었다.



전남 화순 기암면 쌍봉사

당사자의 누나가 대웅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정말로 귀한 자료여서 여기 실어 소개한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공한 것과 옛날 분들이 시공한 그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그 당시 무게중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큰 집은 큰 집 나름대로 추녀가 많이 빠져야 하겠지만, 적은 평수에도 평수에 비해서 추녀목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적 만족도가 더 많이 빠지면 좋겠지만 보완책이 없이 욕심만 부린다면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새 집을 짓고 2-3년 지나다보면 전면 아니면 후면 좌우 박공 옆 장줄 대여섯 곁이 부풀어 올라온 것을 가끔 본다. 추녀 뿌리가 들려서 오랑을 들치는 경우가 아닌가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혹자는 와공이 추녀에 짐을 많이 실어 그렇다고 말한다. 십분 이해도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추녀를 길게 빼면서 추녀 뿌리 부분에 보도심을 하나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인가? 또, 와공만 믿

고 추녀를 길게 뺄 것인가? 시공은 어느 분야이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추녀 안쪽 도리 부분에서부터 추녀 뿌리 합각 중앙까지 이어진 큰 나무로 된 누리개를 얹고 추녀뿌리와 누리개 위에 큰 돌을 올려 추녀의 내려 앉는 것을 막으면 안 될까?

보완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녀를 길게 빼고 싶다면 활주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한다. 옛날에 세웠던 활주들이 사후약방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70년대 초반만 해도 조금 크다고 생각 되는 평수의 집을 짓게 되면 인천부두까지 직접 가서 추녀목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사오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것은 추녀목 자체의 밑 부분 즉 밀동 가리에서 6-70cm 부분에 자연곡이 생겨 자란 나무이다. 지금의 추녀목 사용방법은 곧고 큰 나무를 인위적으로 깎아서 곡을 주니 곡도 약하고 무게의 압력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처음부터 곡이 형성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추녀는 끝부분에 늘어지는 부작용이 적을 뿐 아니라 추녀 곡 자체를 더 올릴 수 있어 무게에 대한 저항성과 실리는 무게도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팔작지붕의 추녀목에서 추녀의 높이가 낮아지면 전체의

매기에 문제가 생기고 와공의 시공 시에 추녀의 곡도 약해서 끝을 올려 인위적으로 곡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모두가 날렵한 추녀의 모양새를 원하지만, 위에 말한 여러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추녀 끝에(끝부분만이지만) 짐을 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추녀목과 선자연 자체를 본래 곡이 있는 나무로 시공한다면 본래대로 휘어지려는 작용 때문에 스스로 늘어지거나 휘어 쳐져 내리는 현상은 아주 미미하지 않나 생각한다. 선자연 자체가 추녀와 한 살이 되어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추녀목이 낮게 시공되면 그 외에도 상하 좌우로 곡을 주어야 하는 기와공사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 용마루곡은 가운데로 가면서 내려가는데 평고대의 가운데 부분이 일자이다 보니 기와를 잘 이어 놓아도 가운데가 불러 보인다.

무엇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와공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며 앞으로 개선 되어질 여지도 있다고 보아 한 말이니 널리 양해하시고 두 분야 모두 추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와공을 믿고 추녀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추녀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와공 또한 추녀에 많은 짐을 싣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문화재는 누구의 책임 소재가 문제가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며, 옛것을 상고하여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한다. 시공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많고, 돈에 관계되는 부분 또한 없지 않다. 문화재기능인이라는 자부심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나이는 꿈을 먹지 않는다

경기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일목 한 봉 석

인생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 속이 궁금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껍질 같지만 하나씩 벗기면 양파 속은
더욱 단단해 지면서 그 속에 향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양파처럼 속으로 들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겉이 크고 동그란 예쁜 모습만 보고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열반하신 은사스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마음을 크게 쓰라는 말씀도 떠오릅니다.

저는 항상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제 인생 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ing~

1972년도 초등학교 졸업 후 목조각에 입문 한지가 벌써 40여년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배우지 못한 서러움도 있었고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작업 하고
있는 목조각과 전통문화재 해석하는데 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탓에 맥이 끊길 위기에 있던 전통 문화재
목조각을 다른 영역으로 개척해 보겠다는 신념이 내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1980년 81년 중.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2005년 여주대학 전통도예과입학
2006년 여주대학 졸업 2007년 학점은행제 학사인정



2008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입학
 2011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
 전공졸업 문학석사
 2012년 충북대학교 출강
 2013년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올해부터 충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강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충북대학교 목재연륜 수종분석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배워 옛 문화재를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 목재연륜은행 문화재 과학협동과 석사.박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도 박사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나무는 기상 조건에 따라 지구의 기후에 영향 미치고 해마다 나이트 넓이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해의 온도와 강우량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 낼 수 있는 등 이러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기능인들에게 꼭 필요한 전통문화재 관련 목조각 기술을 망라한 책을 만들려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 하는 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힘든 속에서도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행복을 찾는 파랑새를 기억 합니다.

행복이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주 가까운 곳에 항상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 하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것이 더 크고 좋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낮추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에 채찍질도 하고 항상 입 꼬리가 올라가도록 노력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스마일 하면서.

경기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그리고 교수님은 지금 내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남들은 한 가지도 못 가졌는데 욕심은 아닐까하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열심히 할 때 저는 더 열심히 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통문화재를 사랑하는 장인입니다.

제가 문화재 조사 답사 중에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대학 교수님과 문화재에 관심 있는 기능인과 연구자 몇몇 사람들이 스님 참석 하에 조사를 하게 되면서 첫 대면이 그 절 스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지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 제가 먼저 드리고 스님 명함을 받으면서 서로를 확인하게 되지요.

“정말 대단 하십니다 무형문화재시군요” 스님께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여 감사했습니다.

이 것 저것 많은 것을 질문하시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 스님께서 차 한 잔 마시고 시작하라 하셨는데
다음에 문화재관련 교수님이라는 소개하는 순간,
스님 태도가 변하시면서 같이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인 거나 이론적이거나 오직 교수님 말씀에
충실하게 되지요 당연히 관련 교수님이 그 분야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이해 합니다.

전통문화를 지켜내는 우리사회의 장인에 대한 안타가운 현실 입니다.

문화재 관련 장인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능인들이 이론과 실기를 다할 수 있는지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을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끝까지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능인들과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분야 기능인들이 사회에서
인정 받아가며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요.

우리 기능인들은 전통문화재를 학문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옛부터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구전 전수 방법으로 교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전통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한 평생 현장에서 묵묵히 작업만 해온 기능인의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기능인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 하면서
사장되어 가는 우리 전통문화재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명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기능인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누군가 학자 들과 전통문화재를 연구할 때 장인들의
생각을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능인으로 무형문화재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이 그 분야의 지혜를 갖춰 있는 사람이라면 학자는 그 학문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인으로서 지혜와 학자로서의 지식을
갖춰 장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능인 무형 문화재 1호박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한사람이 내는 작은 기쁨의 파동이 세상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글 옮겨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더라도
오늘 시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완벽할 수는 없다.

경기 무형문화재 49호 목조각장
수리기능 목 조각 1033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전공 문학 석사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은행 문화재과 출강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은행 문화재과학협동과 박사과정

잡초

잡초

보존과학 제1436호
드잡이 제2193호
김동국

무성하게 뿌려진 씨앗들

긴 세월 동안 고뇌와 번뇌의 풍파 속에
누구가 이 씨앗을 뿌렸는지

황혼의 꿈속에 피어난 한 가닥의 희망
누구가 이 생명의 꿈을 키웠는지

초록빛의 넓은 애향을 갈망하듯
한 줄기의 무수한 생의 모듬속에
생명의 망각이 객사로 변할 때

잡초의 꿈을 영원한 꿈으로 간직하리라.



전통공예로서의 맷돌 그리고 석공예품을 제작하면서

한식석공 2274호
맷돌지기
정 정 교

전통공예품은 전승되어 전해지는 기능, 기술, 기법 또는 토속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써 환경 친화적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작업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던 맷돌과 절구, 약연, 돌확 등 석공예품들은 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 21세기까지 현존하고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우리의 전통 민속 공예품일 것이다.

1. 맷돌

전기 믹서가 없던 시절에 가정에 꼭 필요한 주방용품이었던 맷돌은 주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나 물에 불린 곡식 등을 갈 때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맷돌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것이 차이가 있다. 중부의 것은 위 아래 쪽의 크기가 같고 매향지나 매향을 깔고 쓰는데 비해, 남부의 것은 밑쪽(숫맷돌)이 위쪽(암맷돌)보다 넓고 크며 한 옆에 주둥이까지 길게 달려있어 흔히 매향지나 매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맷손(어처구니)도 암맷돌 표면 안쪽을 파고 박아 놓아 조형적인 면도 상당히 우수하며 섬세한 느낌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강원도 죽령 부근에는 통나무를 높직하게 자른 2개의 나무를 중채로 연결시키고 아래 위의 마주보는 면이 서로 이가 맞도록 잔 홈을 파서 곡식을 가는 나무맷돌이 있으며, 구례지방에는 숫맷돌은 돌로 만들고 암 맷돌은 나무로 만든 것도 있으며, 제주에는 4명이 함께 돌려야 하는 대형맷돌도 있다.

풀매(맷돌)는 옷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가는 맷돌이며, 이것은 밑쪽(숫맷돌)에 주둥이를 길게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흔히 한 사람이 손잡이(어처구니)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가리에 곡물을 흘려 넣는다. 그러나 맷돌이 크고 갈아야 할 곡물이 많을 때에는 손잡이에 가위다리 모양으로 벌어진 맷손을 걸고 2~3사람이 노를 젓듯이 앞뒤로 밀어가며 갈기도 한다.

2. 맷돌의 종류 (물맷돌과 구멍맷돌)

구멍맷돌에는 한 구멍맷돌·두 구멍맷돌·네 구멍맷돌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절에서 많이 썼다. 예전 절에서는 단백질의 공급을 두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콩을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는 매우 큰 맷돌이 필요하였다. 물맷돌은 수로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퀴를 돌리고 그 힘을 받은 굴대가 위쪽을 회전시키는 맷돌로서 서아시아에서 발명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두 구멍맷돌은 긴 작대기를 잡아매고 집짐승이 끌어서 돌리며, 네 구멍맷돌은 耐자끝의 틀을 엮고 이를 네 구멍에 잡아매고 두 마리의 집짐승이 돌린다.

3. 맷돌의 과학기술

오늘의 기계화된 떡 방앗간과 간편한 전기믹서가 핵가족의 삶을 상징한다면, 맷돌은 농경사회 대가족 공동체의 정감어린 삶을 이끌어 온 우리 겨레의 일이며 버리라 할 것이다. 또한 인류가 물질을 재구성하여 이용하는 데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물질을 갈아서 가루로 재구성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을 원자상태로까지 부수어 재구성하는 화학기술이고,

셋째는 그 원자를 분해하는 원자력 기술이다

우리 겨레의 맷돌과 절구는 오늘날 화학기술과 원자력기술의 바탕을 보여주고 있다.

4. 맷돌을 제작하면서

현존하는 수많은 문화유산 중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며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며 무엇으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석조 문화' 를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석조문화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사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석조문화가 주로 대리석과 사암 등 기타 석재로 조성된 것과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것은 절대 다수가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한국만이 지닌 지극히 당연한 특수성이라 생각된다. 특히 맷돌과 절구, 약연, 돌확 등 석 공예품을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면서 다소 힘이 들고 속도는 느리지만 한국적인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인터넷에 가수 싸이 말춤이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오던 무예를 모방한 것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즐겁게 했다. 부산 석불사 3층 석탑에 새겨져 있는 금강역사 모습과 싸이가 말 춤을 추는 모습

이 비슷하다고 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렇듯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은 문화원형에 있다. 문화재 기능인으로서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 한류의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작은 망치로 수없이 정을 내리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맷돌제작과정

내용 : 맷돌의 재료 선택과 용도 및 제작과정 순서



맷돌의 용도에 맞는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다 (원석 :철원 현무암)



원석고르기 선택 과정



치석하기 전에 먹선 그리기 과정



숫맷돌(맷돌 밑쪽) 중심선 및
먹선 그리기 과정



먹선그리기 한 부분을 외각선을 먼저
가공하는 작업과정



망치와 정, 털이개를 이용 치석
(가공)하는 과정



겉돌치기를 한 후 콤파스를 이용하여
암맷돌 놓일 먹선 긋기 과정



먹칼을 이용하여 세부 먹선
그리기 과정



먹선 그리기 한 후 망치와 정으로
흠 파내는 작업과정



도드락 망치를 사용하여 표면
고르기 작업 과정



흠 파는 과정으로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정다듬 고르기 과정



정다듬 한 흙을 날망치를 사용하여 흙
고르기 작업과정



암멧돌의 멧돌 중쇠 위치에 정으로 작
업하는 과정



멧돌의 마무리 과정으로 솥 멧돌과 암
멧돌 맞추기 작업과정



멧돌완성



멧돌제작에 사용된 공구

내고향 원주의 찬란했던 석재 문화유산

한식석공 제2537호
고 관 원



홍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전)홍법사지 염거화상탑



홍법사지 진공대사탑



홍법사지 삼층석탑



홍법사지 진공대사 석함

우뚝 선 치악산 아래 아늑한 분지형태의 원주지역은 높은 산세와 어울려 섬강줄기로 이어진 주변은 예로부터 농경사회를 이루기 좋은 천혜의 땅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에 우리 선조들은 여유로운 삶 속에서 한민족 특유의 예술혼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이 땅의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놓았다.

그 중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석재를 이용한 작품에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목재나 그외 여타한 재료를 이용한 것보다는 수십 수백 배 공력과 인고의 정신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할 걸작품들이 내 고향 원주지역에 산재한 것은 이 지역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유물을 접할 때면 말없이 숙연해진다.

우선 원주지정면의 홍법사지3층석탑(보물 제464호)과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463호) 제자리를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는 홍법사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석함(보물 제365호)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아울러 이어진 정교하며 세밀한 기법은 지금 시대 장인들도 넘보지 못할 덧보임에 부족함이 없고 내 고향 원주 지역에 유일하게 제자리에서 국보로 지정된 부론면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현모탑비(국보 제59호)는 서울경북궁내에 보수되어 남아 있는 지광국사현모탑(국보 제101호)과 더불어 9세기~11세기 고려시대 석조문화의 대표적 걸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품으로 신라시대의 대표적 기법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고려시대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법천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주 거둔사지에는 보물 제750호인 거둔사지 3층석탑과 고려시대 고승인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 모든 작품들의 산기는 신라말기와 고려 초·중기로 찬란했던 불교 역사와 더불어 옛 선대장인들의 아낌없는 실력 발휘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상 혹은 영원산성(금대리)같은 성곽 등의 석재유물들이 원주에 산재 혹은 출향되어있는 상태이다 이 모든 작품들은 물론 그 시대의 원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질 좋은 자재(석재, 철물)등의 생산이 용이하고 그 시대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함과 더불어 투철한 불심이 예술혼에 불타던 장인들의 정신을 뒷바라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아쉬운 점은 우리 원주지역의 그 화려한 작품 다수가 우리선조들의 뜻과는 다르게 수많은 환난 중에 타의에 의해서 파손 내지는 출향을 해야만 했던 부분들이다.

역사 속에서 이해관계에 얽혀 단지 예술적 가치가 높아 아름다운 이유 하나만으로 못 사람들의 욕심의 대상이 되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던 중에 파손이 심화되고 일부는 흔적조차 사라진 우리고향의 보물들을 찾아 되돌려 놓는 것이 이시대의 우리향토주민의 의무인 것 같다.

필자는 원주태생으로 이러한 점의 사명감에 유물들을 찾아 현지 답사등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바, 혹자는 지광국사현모탑 같은 경우 파손율이 심하



거둔사지 원공국사 탑비



거둔사지 원공국사 탑

거둔사지 삼층석탑

여 시멘트 등으로 급조 보수한 것이며 제자리로 돌려 놓았을 경우 관리상 문제를 삼아 반대의견도 있으나 거기에 대비한 충분한 대안이 다른 작품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려가 없으며 현존하는 이시대의 수리기능인 이라면 복원은물론 재현도 가능한바 실례로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현모탑은 각계의 고증을 거쳐 이 시대의 석장 이재순(무형문화재제120호)님의 손으로 재현되어 원주 거둔사지 현지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라시대결작품인 경주불국사 석가탑, 다보탑등도 오래전 우리기능인들의 손으로 복원시킨바 있으니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인위적이든 혹은 풍화 작용 등에 의해 파손되는 문화재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내 고향 내 문화 지킴이에 정진하여 다음 세대에서도 현세의 우리 마음가짐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도 우직한 돌 속에 혼을 불어 넣었던 찬란한 역사 속 선대장인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되짚어본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비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비

기능인으로 산다는 것, 기쁘지 아니한가?

도금 제2781호
상임이사
박갑용

본회 상임이사를 맡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년이 지나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입문한 기능인의 길, 나는 이 숭고한 일을 천직(天職)으로 받아들이고 한 길만 걸어 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본회 이사회 임원을 맡았던 지난 3년이라는 시간도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자신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다 높은 기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통문화 예술의 맥을 계승하면서 우리시대 문화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 작품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맥박을 이어가는 문화재 장인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에 지난 3년은 그야말로 금쪽같은 시간이었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그런데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도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경향은 여전하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조기퇴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의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하는 조기 이직률이 대기업은 13.9%, 중견기업은 23.6%, 중소기업은 39.6%라고 한다. 기업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급여도 충분치 못하여 직장을 옮긴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직업이란 노동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한다는 단순한 이치 앞에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이 분야 역시 젊은 층이 귀하다. 어려운 수련과정과 보장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능인들이 보람 있게 일하고 후진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랄뿐이다.

사실 불모, 불화작가, 전통공예가, 전통기능인 등등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외롭다. 작업 자체가 홀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기도 한다. 전통을 배우고 익혀야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기능이라는 말은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인의 삶은 수행자적인 의지와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이 일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기능인의 삶은 그 자체로 수행(修行)이어야 한다. 수행이란 일체의 가치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집착을 던져 버리고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경제적인 집착은 졸속한 작품을 만들고 작업에 대한 자만은 균형이 잃은 작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작업자의 마음이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깨끗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때문에 작업에 임하지 않는 시간까지도 모든 일에 수행하듯 임해야 때가 묻지 않은 장인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전생부터의 깊은 인연이 없으면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모든 기능인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내생(來生)의 큰 공덕을 바라기보다는 현생의 인연에 충실하기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능인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노력이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다고 자만하면 그 순간부터 작업이 어긋난다. 언제나 처음처럼, 초발심의 마음으로 겸양하며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명필 중의 명필로 꼽히는 왕희지 부자(父子)의 이야기는 우리 기능인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

왕희지의 일곱째 아들 왕현지는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남달랐다. 그런데 현지는 놀기를 좋아해서 꾸준한 연습을 하지 않았다. 재주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들 현지는 어느 날 아버지가 하라는 연습량을 채우지 않고 서방(書房)을 빠져 나가려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너는 왜 벌써 나가 놀려고 하느냐?”

“글씨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완속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글씨를 써서 가져 와 봐라.”

현지는 방에 들어가 큰 대(大)자 한 자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여주려 했는데, 왕희지가 아무 말 없이 대 자 아래에 점을 하나 보태어 클 태(太)자로 만들었다. 현지는 아버지와 합작한 그 글씨를 들고 어머니에게 갔다. 조용히 글씨를 본 어머니는 말했다.

“여기 점 하나만 제대로 되었구나.”

깜짝 놀란 현지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글씨를 잘 쓰시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버지 왕희지는 아들을 뒤란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거기 놓인 18개의 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열여덟 개의 물독에 담긴 물을 다 쓰면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지는 아버지의 말이 참으로 황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벼루에 먹을 가는데 18개의 독에 담긴 물을 다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말이다. 골치가 아파진 현지는 집을 나와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시장 골목에서 떡 굽는 노파를 보았다. 그런데 그 노파의 동작이 신기했다. 노파는 다 구워진 떡을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집어서 어깨너머로 던지는 것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지는데 놀랍게도 그 떡이 뒤에 있는 바구니 속에 정확하게 들어갔다. 더 놀랄 일은 둥근 떡이 차곡차곡 위로 한 자가 넘게 쌓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던 현지는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찌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떡을 던져서 가지런하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노파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황희지가 글씨 연습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그 말에 자극을 받은 현지는 집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고 글씨 연습에 매진했다. 어느 날 왕희지가 글씨를 쓰는 아들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붓을 빼앗으려 했으나 현지의 손에서 붓이 빠져 나오지 않았다. 왕희지는 그때서야 만족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끝없는 노력만이 진정한 작가정신, 장인정신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아닌가? 모름지기 작가는 한결같아야 한다. 꾸준한 노력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집착하지 않는 기질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기능인에게는 식입성신을 초월한 상인성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인성신은 왕희지 가문에 전해진 18개의 물독처럼 꾸준한 수련의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다. 불모의 붓은 그림을 그리는 붓이 아니라 부처를 환생시키는 신격(神格)의 붓이다. 조각가의 망치와 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불보살과 제대성증을 탄생시키는 영험의 도구다.

전통 기능인으로 산다는 것이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들의 손끝에서 출현한 불보살이 무량한 시간을 두고 무수히 많은 중생들에게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전통구들의 해체 및 수리복원

키워드: 구들, 해체복원, 고래, 구들돌, 고래 독,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 부뚜막아궁

한식미장 제4669호
유 종



그림1

1. 서론

우리 전통주거문화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독특한 건축양식과 장인의 기술로 축적되어 왔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시설로 돌을 달구어 난방을 하는 구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솔을 걸어놓은 아궁이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소시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으며, 불기가 고래를 지나면서 구들장과 고래독 황토를 달구고, 달구어진 바닥은 오랫동안 실내에서 온기를 갖게 하였다. 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물로 구들이 형성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민족 체질에 최적의 온열조건을 주어 아랫목 문화를 만들고 우리민족의 생활과 밀착되어 왔다.

본 원고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이 집약돼 낳은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난방방식인 구들의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우수한 기능의 구들이 현대에 들어 상당수 멸실 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구들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현황을 조사 파악하여 기록과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바램이 있다. 더 나아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가옥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발굴기록이 시행되지 않고 임의로 철거가 진행되는 것이 다수이므로 발굴과 복원과정을 기록하여 보존하는데 있다.

향후 구들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 및 관련기술을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구들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명확히 실성 전통구들의 사부심 회복은 물론 현내의 주거건축에 어울릴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미래의 주거문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통구들의 방식과 시공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단지 불편함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구들의 축조법과 현대주거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공사개요 및 특징

본 원고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청암사 백련암의 법당 전체구들의 해체 후 복원과정을 정리 하였다.

2.1 공사개요

- 내용: 전통구들 해체 및 복원
- 구들축조연도: 5칸 중 (3칸 80년 전 수리), (2칸 120년 축조)
- 방의규격: 넓이가17자(2칸), 길이가40자(5칸) 약19평
- 고래의 종류: 줄 고래구들
- 아궁이형태: 솔이 2개 걸린 부뚜막아궁이
- 투입인원: 구들편수1명
구들공1명
미장공1명
보통인부2명
- 공사일수: 해체공사4일
복원공사6일

2.2 공사자재

- 구들돌: 기존의 구들돌 95%재사용
- 고래 독: 기존의 깃돌, 킴돌 100%재사용
- 황토: 7루베
- 모래: 5루베

2.3 본 원고대상구들의 특징

방의 크기가 일반가옥의 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아궁이의 깊이를 깊게 하여 주 연료인 나무를 깊은 곳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래개자리 4개를 설치하여 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굴뚝 밖으로 유실되는 열을 최대한 줄이려고 축조한 구들장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세월의 흐름으로 고래독이 그을음으로 인하여 좁아지면서 열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윗목 쪽으로는 열기가 부족하여 온수호스를 이용한 현대식 온수온돌을 설치하였으나 복원과정에서 철거 후 전통구들로만 설치하였다.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철거한 구들에 대한 정밀 실측과 기록과정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작금 현실에서 철거한 시공기록을 위해 모든 해체 복원 과정을 직접참여 하였음을 밝힌다.

3. 해체(구들해체과정)

본 원고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청암사 백련암의 법당 전체 구들의 해체 후 복원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림 3.1.:

3.1 장판지

본 구들방의 장판마감은 한지 기름종이장판으로 초배지를 두 겹 바른 후 기름종이를 발랐으며, 해체과정은 무난했다.

3.2 미장마감부분 해체 및 온수온돌호스 해체

구들장 덮기 마감 후 황토를 깔고 시멘

트로 미장마감을 함으로써 해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1차 미장 바르기 두께 약3cm 2차 미장 바르기 두께 약2cm등 미장 바름 면 합계 약5cm두께로 미장되었고 윗목 한 칸은 초벌미장 후 우수파이프를 매설하고 시멘트미장 마감되어있다.



그림 3.3

3.3 부토 걷어내기 작업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를 진흙으로 사춤마감하고 부토작업을 하였다. 부토는 생황토를 사용하지 않고 진흙을 짚과 생석회를 반죽하여 사용하였으며, 부토의 두께는 아랫목 약15cm 윗목 약7cm 가량 부토되어 있다. 오랜 세월 열기가 누적되어 황토의 점력은 많이 떨어져 있었으며,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축 현상으로 기둥부위 및 시근담부위에 이격이 생겨 연기가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



그림 3.4

3.4 구들돌 걷어내기

구들돌은 가공되지 않은 인근 하천 등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 사암, 판석 등 넓적한 돌을 사용하였으며, 구들돌의 크기는 다양하였으나 두께 10~15cm내외, 크기40~50cm내외의 비교적 큰 구들돌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위에 올려놓은 돌은 두께가20~30cm내외로 아주 두껍고 큰 돌을 사용하여 아랫목의 열기와 고래개자리의 넓고 깊은 공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였다.



3.5 그을음 및 고래청소하기

고래구멍이 8개이고 길이가 40자 되는 큰 방에 개자리 또한 4개나 되므로 그을음과 고래에 쌓인 재가 오랜 세월 청소를 하지 않아 20kg포대 약100개 1톤

가량의 그을음 및 재를 걷어낼 수 있었다.



그림 3.6

3.6 고래, 고래 독, 고래바닥

본건물의 고래구들은 줄 고래구들로 고래의 수는 3칸은 8개이며, 폭이 20cm~25cm이고 고래 독은 폭 20~25cm, 높이 25~30cm로 형성되어 있고 1칸의 고래 독은 6개로 고래 독의 폭은 20~40cm 독의 높이는 앞의 3칸과 차이가 없었다. 킷돌과 킴돌은 주위에서 채취하기 쉬운 크고 작은 자연석을 채취하여 진흙을 반죽하여 고래 독을 빈틈없이 진흙으로 채워서 시공되었다. 고래바닥은 아랫목에서 윗

목까지의 중 구배를 약 7%의 경사도를 유지하였으며, 고래개자리를 4개나 두어 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굴뚝 밖으로 유실되는 열을 최대한 줄이려고 축조되었다.

3.7 아궁이, 연도, 굴뚝



그림 3.7

아궁이는 지상에서 40cm 밑에 설치되어 있으며, 솥이 2개 걸린 전형적인 부뚜막아궁이로 가로 폭이 60cm 아궁이후령이 깊이가 2m로 아주 넓고 깊게 만들어 사찰에서 화목을 절단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굵고 긴 나무를 넣을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다. 아궁이 및 아궁이후령이는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태 또한 양호하여 해체하지 않고 원형을 약간 수리하였다. 굴뚝은 아궁이의 반대

편에 설치되어 있다. 연도 및 굴뚝은 원형이 유지되어 해체하지 않았으며, 굴뚝은 본체에서 약 4.5m이격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굴뚝의 높이는 약 3.5m 폭은 가로 1.5m 세로 2m로 축조되어 있으며, 근래에 축조된 것이라 한다. 특이한 부분은 연도가 2개 설치되어 연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3.8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

구들개자리 크기는 방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본 현장의 구들개자리는 폭



그림 3.8

50cm 깊이는 70cm로 아궁이 바닥과 동일하였다.

고래개자리는 4개 중에 제1고래개자리는 1칸 반 지점에 설치되었으며, 폭은 30cm~35cm 깊이는 70cm로 자연석을 진흙과 반죽하여 견고히 축조되었다. 제2고래개자리는 2칸 7부 지점에 설치되었으며, 이 또한 그 규격은 제1고래개자리와 동일하였다. 제3고래개자리는 4칸에 설치되었으며, 폭은 20~30cm 깊이 30cm 정도로 좁고

얇게 시공되었으며 제4개자리의 폭은 제3개자리와 같으며 깊이는 60cm로 축조되었다.

4. 복원(구들복원 과정)

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구들의 형식과 방법을 취하여 전통 기술을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들은 예전에는 놓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그 구조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지역 간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구들을 놓는 사람에 의한 시공법이 다를 수 있으나 구들의 난방 원리는 열의 전도를 이용한 것인데, 방고래에 화기를 도입시켜, 방바닥 밑에 깔린 넓적한 돌(구들장)과 빗돌 및 황토에 열원을 저장시켜 불을 피우지 않는 시간에도 저장된 열이 방바닥에 방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체를 가열해서 난방방법은 대동소이하다.



그림 4.1.1

분부 및 아궁이

4.1 아궁이부분

4.1.1 아궁이(분구, 화구, 곡구락, 취구, 솥자리):

땀감을 태우는 곳으로 아궁이로 들어온 연료와 공기를 태워서 뜨거운 열기를 발생시키는 곳으로 구들을 데우는 연료인 나무 등을 집어넣는 곳으로 아궁이 후령이에 접하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 입 같은 곳이다. 이곳을 통하여 불을 때는 재료를 집어 넣는다. 아궁이는 부엌바닥과 같이 낮추고 앞 이맷돌도 낮춰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설치한다. 아궁이 형태는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부뚜막아궁이와, 난방위주의 함실아궁이가 있다. 함실아궁이나, 부뚜막아궁이는 보통 진흙과 돌을 생석회와 혼합하여 쌓는다. 사대부집에서는 벽돌로 쌓기도 하며, 궁궐에서는 모두 벽돌로 쌓았다.

본 구들방의 아궁이는 부뚜막아궁이로서 부뚜막아궁이는 취사 때의 열로, 난방을 함께하는, 즉 취사용 아궁이와 난방용 아궁이를 겸하는 아궁이다. 취사용 솥을 건 부뚜막 아래에 불 아궁이를 만들어 취사 때의 열이 구들 고래로 들어가 온돌바닥을 데운다. 부뚜막 아궁이의 크기는 걸리는 솥이 많을수록 길어진다. 이곳은 2개의 솥이 걸리므로 아궁이도 2개 만들어 졌으며, 상태가 양호하여 아궁이 후령이 보수 후 마감하였다.



그림 4.1.2 아궁이 후령이

4.1.2 아궁이 후령이(불 주머니, 화상, 연소실):

아궁이에서 공급된 공기로 인해 연료가 연소된 후 급격히 체적이 팽창될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고, 불꽃표면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 밑에서 위로 유체의 흐름이 좋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연소시의 팽창압력으로 부넘기로 유입. 본 구들방의 아궁이후령이는 넓이 60cm 깊이 2m로 아주 크게 형성되었으며 상태는 양호하여 약간의 흙손질로 마감하였다.



그림 4.1.3.4

4.1.3 이맛돌(솔이맛돌, 미석, 니맛돌: 옛말, 더갯돌: 제주방언, 이마돌: 북한어):

아궁이 위 앞에 붓돌과 붓돌 위에 가로로 걸쳐 놓은 긴 돌로 두겹고 단단한 돌을 사용해야 한다.

4.1.4 붓돌:

선틀돌, 아궁이 양쪽 벽에 세우는 돌(기둥)으로 반듯한 돌을 사용하는 것이

이 좋다.

본 구들방의 아궁이는 철문을 달아 놓았으므로 이맛돌과 붓돌은 사용 하지 않았다.

4.1.5 불목(부넘기, 고래구멍, 불고래 구멍):

'불목은 아궁이와 고래 사이에 있는 일종의 턱으로 연기가 고래로 잘 뺏



그림4.1.5.6

불목

려 들게 하는 기능을 하며, 좁혀져 있어서 목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불목이라 하며, 또한 불이 넘어가는 곳이란 점에서 '부넝기(사투리로 부넝기)' 또는 '불고개'라고 하기도 한다.

4.1.6 불목들(부장들, 부저기들):

아랫목 불목구조에 놓는 넓고 두꺼운 돌

본 구들방은 아궁이후령이와 구들개자리가 함께 축조되어 있으므로 불목들이 크고 넓은 돌을 겹쳐서 견고하게 시공하였다.



그림4.2.2

4.2 고래부분

4.2.1 고막이(고멕이, 반하방, 하방벽, 하반담, 고막이벽):

구들 구조에서, 토대나 하인방의 아래 또는 마루 밑의 터진 곳 따위를 돌과 진흙을 이용해 담을 쌓듯이 쌓는 것을 말한다. 시근담과 같이 쌓기 한다. 본 구들방의 고막이부분은 상태가 양호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그림4.2.3

영하선

4.2.2 시근담(반화방, 하방화 쌓기, 하축, 가룻돌 쌓기, 개턱, 고래개, 고래심, 구들걸이, 군담, 두둑, 독, 반고래(삭), 서, 제비담, 중방턱):

구들장을 걸치기 위해 건물벽체에 내어쌓은 구조. 고막이와 같이 쌓기 한다. 본 구들방의 시근담은 상태가 좋지 않아 기존에 사용했던 돌을 진흙과 짚을 반죽하여 재시공 하였다. 특히 기둥 부위는 세밀한 시공이 필요하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였다.

4.2.3 영화 석(열기유도 돌):

영화석은 구들개자리에서 각각의 고래로 유입되는 열기의 속도와 양을 조절한다. 본 구들방은 영화석이 설치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열기와 화기가 중앙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각 고래마다 영화석을 설치하여 열의 분산이 용이하게 시공하였다.



그림 4.2.4

4.2.4 구들개자리:

아궁이후령이 에서 불목을 통해 빠르게 유입되는 열기를 넓게 퍼고 보관하여 똑같이 열기를 끌고루 방고래로 분배시키는 작용과 빠르게 빠져나가는 열기의 속도를 1차적으로 늦추어 연소 열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아궁이후령이 에서 흡입되는 재를 갈아엎히는 집진장치와 같은 기능도 하며, 고래바닥에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도 한다. 이곳은 항상 따뜻한 열기가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곳이므로 방의 아랫목에 속하며 추운 겨울날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이곳에서 잠을 자거나 쉬기 때문에 '개자리'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본 구들방의 구들개자리는 견고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청소와 진흙뒹바르기 후 마감하였다.

본 구들방의 구들개자리는 견고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청소와 진흙뒹바르기 후 마감하였다.



그림 4.2.5

4.2.5 고래바닥(고래 밑바닥, 골바닥):

고래돌을 쌓아 올리거나 푼돌을 놓기 위해 다져놓은 바닥 본 구들방의 고래돌을 설치하기 전에 방의 중앙을 기점으로 고래바닥의 종 구배는 약7%로 하여 윗목 제4고래개자리 쪽을 높게 하였으며, 또 중앙고래바닥을 기준으로 약5%의 구배를 양쪽 벽 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무쇠 솔의 뚜껑을 반으로 잘라서 뒤집어 놓은 형태의 구배를 형성한 후 고래 돌을 쌓았다.

4.2.6 고래 독(고래등, 고래삭, 고래심, 구들걸이, 구들독, 구들삭, 설골):

구들장을 올려놓기 위해 진흙과 돌, 판석, 와편, 점토벽돌, 흙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구조.

본 구들방의 고래 독은 원형을 바탕으로 시공하였으며, 고래 독의 넓이는



그림 4.2.6.7



그림 4.2.6.8



20~25cm 높이는 30cm로 하였고 돌을 진흙과 생회를 반죽하여 시공하였다.

4.2.7 고래:

고래는 방바닥 밑의 고래 독 과 고래 독 사이의 공간으로 굴뚝 쪽은 높고 아궁이쪽은 낮아서 저온의 연소가스가 고래바닥으로 내려오고, 고온의 연소가스는 상부로 다시 올라가며 열이 저장된다. 고래는 구축형태에 따라 줄고래, 허튼고래, 부채고래, 꺾은고래, 줄고래와 허튼고래를 섞어 쓰는 혼합고래 등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고래는 줄고래 형식으로, 이것은 굴뚝의 위치를 원하는 곳에 들 수 있는 방식이며 또한 연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에 유리하여 방을 끌고 루 따듯하게 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굵은 잡석들로 바닥을 엉성하게 채우고 구들장을 덮어 제대로 된 통로의 형성없이 돌들의 틈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게 하는 일종의 '멍텅구리 고래'도 있다. 본 구들방의 고래는 줄고래구들로 시공되었으며, 고래의 폭은 2025cm로 시공되었다.

4.2.8 낫돌(고임돌, 곳돌, 베게돌, 회골돌):

구들장을 올리기위해 고래바닥에 고이는 돌맹이로 비교적 정형화 된 돌을 사용한다. 본 구들방의 고래 독으로 사용한 낫돌 및 킴돌 사춤돌등은 상태가 양호하여 대부분 재사용하였으며, 부족한 돌은 인근지역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2.11

고래개자리

4.2.9 킴돌(고임돌, 바침돌):

방바닥을 구성하는 구들장이 움직이지 않고 반반하게 놓아 지도록 구들장 밑에 바치는 주먹크기 만한 돌들을 말한다.

4.2.10 바람막이: 방고래와 고래개자리가 만나는 곳에 세모꼴로 고래를 조

금 막아 놓은 틈. 굴뚝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막고 고래에서 흘러 나가는 열기를 더 잡아 두는 구실을 한다. 본 구들방은 바람막이가 없었으나 각 고래마다 바람막이를 설치하였다.

4.2.11 고래개자리(개고래, 가루고래, 언골, 도구, 회골, 머리골, 가룻골, 가랫골, 개고래, 개시리도랑, 개탕(통), 굴뚝머리, 냉가, 단골, 도구, 머릿골, 원고래, 은골, 인고래, 헛고래, 호롱굴):

방 윗쪽 고래 끝부분에서 각 고래에서 오는 열기가 모여 굴뚝으로 배출되는 속도 및 온도가 자연히 조절된다. 여러 개의 고래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속도와 온도의 열기를 고래개자리에서 받아 모아서 온도와 속도를 와류(渦流)하면서 조절하여 비교적 식은 열기를 서서히 굴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하늬바람, 돌개바람 등으로 굴뚝으로 부터 들어오는 역풍을 완화시켜준다. 고래개자리는 방과 고래의 형태에 따라 1번, 2번, 3번에 개자리를 설치 할 수 있다.

본 구들방의 고래개자리는 방의 크기에 비례하여 4개의 고래개자리가 형성되었으며, 그 크기가 깊고 넓어 열의 흐름과 열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제3고래개자리는 그 크기가 작아 더 깊고 넓게 시공하였다. 고래개자리는 견고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원형을 훼손하지않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4.2.12 구들장(온돌석, 방장, 고래장, 구들뼈, 방돌, 방장, 정개돌):

고래 독 위에 푼돌 위에 올려 놓인 넓고 넓적한 돌을 말하는데 방바닥을 이루게 되고 또 열을 가둬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이 막 들어오는 아랫목은 두꺼운 구들장을 쓰고 아궁이에서 멀리 떨어진 윗목은 얇은 구들장을 사용한다. 본 구들방의 구들돌은 상태가 양호하여 대부분 재사용하였으며, 부족한 구들돌은 인근지역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4.2.13 거미줄 치기(거말치기, 사침질, 샘막는다, 밥찍는다):

땅위의 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들을 놓을때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치낸다. 본 구들방의 거미줄 치기는 진흙과 짚, 생회를 반죽하여 사용하였다.

4.2.14 부토키기: 구들장을 덮은 후 아랫목과 윗목의 높이차가 생기므로 방바닥의 기준을 정하고 미장두께를 제외한 부분을 평평하게 하기위하여 부드러운 흙을 올려 수평을 잡기위한 작업을 부토키한다고 한다. 부토키의 두께에 따라 구들에서 열을 가둬두는 기능을 결정한다.

본 구들방의 부토는 아랫목 20cm 윗목10cm로 부토하였으며, 점질이 좋고 양질의 황토를 사용하였다.



그림 4.3.1

4.3 굴뚝부분

4.3.1 연도(굴뚝허리, 굴뚝길, 뜰, 내 굴길, 굴뚝목): 고래개자리에서 굴뚝으로 연결하는 연기의 통로로써 진흙을 두껍게 바르고 벚짚을 엮어 보온하여, 열을 빼가지 않도록 하며, 연기의 배연통로로서 작용한다. 고래개자리의 연기를 굴뚝으로 통하게 하여주고 아궁이에서부터 고래개자리까지의 열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본 구들방의 연도는 지하에 매설되어있으며, 연도 2개를 사용하여 아궁이에서 때는 열량을 구들방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연기를 쉽게 굴뚝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의 상태는 양호하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3.3

4.3.2 굴뚝개자리: 굴뚝개자리는 굴뚝 바로 밑의 깊이 파인 부분으로,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굴뚝으로 보내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빗물이나 눈이 굴뚝을 통해 고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굴뚝 속에서 떨어지는 재 및 그을음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4.3.3 소제구멍(불맞이 돌): 소제구멍은 굴뚝의 아랫부분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구들개자리에서 각각의 고래로 들어오는 불길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고, 굴뚝개자리에 쌓인 재를 부셔내고 아궁이의 불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4.3.4 굴뚝(구새, 굴뚝대, 연통, 통관, 연돌): 굴뚝은 연기가 배출되는 부위로 함경도 지역에서는 '구새'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지만 따로 수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고 집의 기단 머리에서 하나의 '구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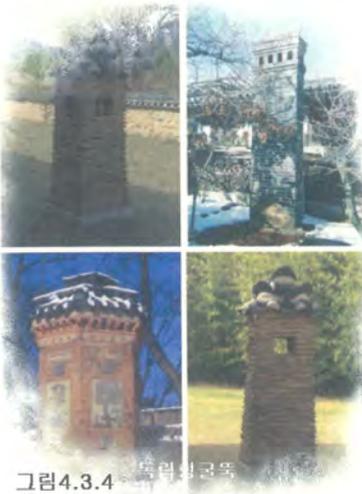


그림 4.3.4 돌벽돌 굴뚝

끝나는 특이한 것도 있다. 형편과 신분에 따라 굴뚝은 재료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돌과 벽돌로 쌓은 것, 판자로 만든 것, 오지 토관을 이용한 것, 피나무 껍질을 원통형으로 통째로 벗겨 만든 것, 통나무 속을 파내거나, 아예 오래되어 속이 빈 통나무를 이용한 것 등이 있다. 때문에 함경도 지방에서는 굴뚝을 '구새통'이라 하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속이 비어 가는 것을 "구새먹는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구들방의 굴뚝은 상태가 양호하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4미장작업 및 장판지 바르기



그림 4.4.1.2 초벌바르기

4.4.1 초벌, 중벌 바르기: 부토 위에 중간 정도의 몹기의 진흙반죽을 수평하게 초벌 바르기를 하여 수평지게 하여야 한다. 중간정도의 진흙반죽으로 나무로 된 미장 칼로 수평 되게 중벌 바르기를 한다. 중벌 바르기를 한 바닥이 굳어 건조되어 금(구열)이 갈 정도로 잘 건조 시킨다. 불을 넣어 충분히 잘 건조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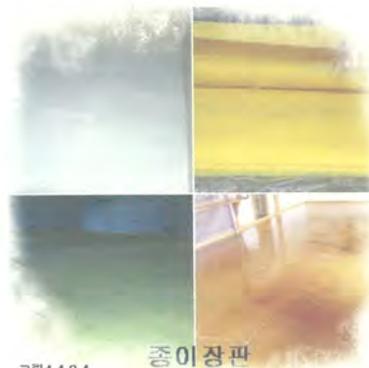


그림 4.4.3.4 종이장판

4.4.2 정벌 바르기: 중벌이 잘 건조되면 마감 바르기를 한다. 약 30~40%(진흙의 찰기 및 마감 바르기 두께에 따름)의 세사와 진흙을 잘 혼합, 채로 쳐서 반죽하여, 미장 칼로 중벌 바르기가 건조되어 생긴 금에 잘 물리게 누르면서(强襍) 얇게 마감 바르기를 한다. 마감 바르기에 발라 놓은 반죽에서 물이 빠지고 굳기 시작하면 미장칼(쇠)로 2~3번 누름(强襍) 칼질하며 잘 다진다. 마감 반죽을 두껍게 바르면 표면에 금이 가므로 얇게 바른다.

4.4.3 초배지 바르기: 바다에 풀칠하고 초배지(한지)를 잘 붙게 마른 걸레 같은 것으로 누르면서 밀착되게 바르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잘 건조된 뒤에는 유리병 또는 사기그릇 등으로 다시 잘 갈아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초배지 모서리에만 풀칠하여 초배지가 밀착되지 않게 재차 초배지를 바른다. (뜯장판 또는 뜯장판 바르기)

4.4.4 장판지 바르기: 장판지를 물에 담가 누굴누굴해지게 한다. 장판지의 물을 닦아내고 된 풀을 발라 초배지 위에 붙인다. 불을 넣으면서 초배지 및 장판지 등을 바른다. 한지장판지란 한지를 두겹게 뜯 한지 장판지를 말한다. 그 종이 장판지는 보통 6배접(6합)이라 하고 많이 쓰이는 종이이며 12배접까지 있다.

4.4.5 콩땀하기: 날 콩을 물에 불려 찼어서 삼베자루에 넣고 수시로 오랫동안 장판을 문질러 종속의 기름이 장판지에 스며들게 하여 윤이 나게 들인다.

※ 구들이 털 건조되었을 경우는 장판이 썩으므로 콩땀은 한 해 겨울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다

5. 결론

줄 고래구들의 구조와 설계 및 구들의 원리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구들을 해체 복원한 구들장이의 실측을 통한 청암사 백련암의 구들구조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였다. 방의 크기가 15평이나 되는 큰방의 구들개자리와 고래개자리가 4개나 있는 줄 고래 형식으로 구들의 기능 축조법 등에 관해 직접 실측 후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자 전 해체공정을 사진 및 치수를 기록하였으며 이곳 백련암의 구들을 축조한 선배님의 축조법을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작업조건이 열악 하였음에도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 등의 축조가 견고하여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사용에 무리가 없었다. 4개의 고래개자리는 열의 흐름을 원활히 하게 하였으며, 열기의 저장고 및 집진 장치로서의 기능이 훌륭하게 하였다. 이 기록이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난방방법인 전통구들을 현대식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민족 최고의 발명품인 구들은 지하에 축조되어 보이지 않는 문화라 하여 구들을 해체보수 할 때 구들전문가를 앞세우지 않고 해체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구들의 문화적 가치를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구들은 현재 구들을 연구하는 학자와 구들학교가 신설되어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근본은 학문적인 연구에 비롯되었으므로 학술적 연구와 일부 구들학교의 교육방법으로 전통구들 방법이 아닌 개량된 구

들을 축조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구들은 각 지방마다 구들을 축조했던 구들장의 축조방법에 따라 다르게 축조되었으므로 어떤 건축물의 구들이 되었든 그 축조법이 같을 수 없다. 문화재를 해체할 때 구들전문가를 참여시켜 해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제화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통구들의 해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지방별로 구들구조의 축조방법을 실측하고 기록하여 그 축조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구들을 더더욱 연구하여 현대에 걸맞은 현대식구들을 개발하고 건강한 구들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조중근 영동지역 전통구들의 발굴 및 복원(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 사)국제온돌학회지

구들을 우리 문화재로 인정하였으면 ...

한식미장 제5389호
관요 문제남

선조들이 물려주신 구들 우리가 지켜야 될 터

“구들”하면 정겨움과 향수가 살아나는 추억은 40대 이상 세상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고향의 따끈한 구들방이 생각날 것이다,

자동으로 배치된 위계질서 구들방의 아랫목과 윗목을 기억하리라 본다,

5천 년 동안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될 난방 방법으로 유지되어온 세계적으로 독특한 온돌난방 문화 서양온돌에 밀려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외국에서 자기문화인양 정립되지 않은 내용으로 어설픔게 국제시장에 발표되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경우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온가



족이 한방에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며 살아온 애환이 서려있고 담겨져 있는 우리것 우리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왜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외면당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 일에 종사하던 안하던 국민들이 제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하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정녕 학자나 행정기관은 또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어떤 문화를 찾고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리 그 밥을 먹지 않는다고 관심 없이 지나치는 동안 우리문화는 말살되어 아리랑이나 기무치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구들은 독특한 문화로 과학이며, 널리 보급 발전시켜야 할 분야임에도, 종이를 바르는 도배사도 자격이 있고 칠을 하는 도장공에도 자격이 있는데 난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야로 과학과 공학이 함께 존재하는 분야임에도 자격제도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문화로 인정하면서 전통 재래 방법의 구들과 현대구들의 용어를 정리하여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 제도가 정착하여 검증된 자격자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열관리는 자격이 있는데 더 위험한 불 관리는 자격이 없다. 전원 생활이 활성화되어 가고 그에 맞서 생태난방을 추구하며 건강과 에

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들난방을 선호하는 추세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전기가 나간다 해도 구들방 하나쯤 있으면 추위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과제다.

요사이 지역 지역에서 구들방을 많이 짓고 있으면서 제도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한 가스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구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루빨리 국가차원에서 학자와 장인이 함께 연구하고 정립하여 제도권에 정착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그 옛날 장인들의 숨결을 찾아서 - 충북, 중원지역의 문화재 답사 -

목조각 제724호
송근영

이번 문화재 답사는 국외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을에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이 계획되어 있어 국내 문화재답사를 하기로 했다. 그것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이연훈)의 협찬 및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충북지회는 기능인협회 지회 중 가장 먼저 출범하여 다른 지역의 창단에도 도화선역할을 하였으며, 기능인협회가 추구하는 기능인 저변확대에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는 건실한 지회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지회의 중요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중원을 중심으로 대원사터, 보은 법주사, 청주 고인쇄박물관, 청풍문화재단지, 청남대, 상수허브랜드 등을 답사 탐방하는 1박2일의 짝 짜여진 일정이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단 및 회원들, 이들은 모두 한국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보수하며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사명감으로 뚝뚝뚝 아주 절친한 동호인들과 함께 답사를 간다고 하니 아직 어린마음이 남아 있는지 백발이 성성한데도 들뜬 마음으로 잠을 설쳤다. 6월30일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해서 이번 답사가 녹록치 않음을 예견하며 약속장소인 협회 앞으로 향했다. 나름대로 서둘렀는데도 조금 늦었는지 거의 도착무렵 협회 유실장으로부터 어디쯤 오냐는 상냥한 음성 of 전화가 왔다. 미안한 마음으로 얼른 버스 안으로 들어섰다. 곳은 날씨에도 즐거운 표정으로 모두들 탑승하고 늦게 들어오는 나를 반갑게 손잡으며 맞이하는 회장단 및 회원들과 정겨운 마음으로 1박2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시내를 벗어나자 협회 이재순회장께서 인사말을 하였다. 특히 이번 답사는 우리끼리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파손되고 마모된 부분의 보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눈에 띄면 우리가 바로잡아 토론을 거쳐 협회에서 발간되는 기능인의 맥에 발표할 정도로 심도있는 문화재 답사가 되도록 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협회의 나 같길을 새롭게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결의에 찬 인사말이자 당부라고 느껴졌다. 마이크를 통해 회원들의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박갑용 상임이사로부터 이번 답사지의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평소에 관심있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 알고있던 것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중원 월악산 미륵사지 (대원사터)

지난 1972년 2월 충북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에서 지방사 연구 단체인 예성 동호회가 자그마한 비석(중원 고구려비·국보 205호) 하나를 발견했다. 이 비석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고 문드러진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40일 뒤 단국대 학술조사단에 의해 국내에 단 하나뿐인 고구려 비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고구려의 남하시기와 범위가 확인되고 역사적인 가치도 갖게 됐다. 이 사건은 해방이후 고고학계의 3대 발견(경주 문무대왕릉, 부여 무열왕릉)중 하나로 손꼽히며 국내 역사학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중원 고구려비는 높이 1.14m, 너비 55~59cm, 두께 37cm의 화강암 자연석에 고졸(古拙: 치졸한듯 하면서도 고아한 멋이 있음)한 서체로 새겨진 비석이다. 사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앞면(10행×23자)과 좌측면(7행×23자)의 글자만 읽을 수 있을 뿐 우측면과 뒷면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981년 국보로 지정되면서 원래 위치에 있던 것을 길 건너편으로 옮겨 보호각을 짓고 주변 2백 여평을 정화했다. 충주는 경주나 부여보다는 못하지만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적지 않은 곳이다. 중원군은 남한강가에 위치해 한성과의 수로교통이 발달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충주호와 송계계곡을 끼고 있는 월악산국립공원은 옛 중원군의 남쪽지역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월악산 송계계곡 덕주사에서 4km쯤 더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재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미륵사지(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사적 제317호)는 동쪽으로는 하늘재, 남쪽으로는 새재로 둘러싸인 험준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산골답지 않게 넓은 분지가 펼쳐져 있고, 그 땅을 가득 채우고 남을듯한 석불과 석탑, 석등, 돌거북, 그리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주춧돌들이 마치 거대한 석조미술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절터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던 도중 세웠다는 설과, 고려 태조 왕건이 세웠다는 설이 있다. 또 절 터 한 편에는 설악산 흔들바위를 연상케 하는 바윗돌이 있는데 이는 온달장군이 갖고 놀던 공깃돌이라고 하니 고구려와도 관련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전설로 절터는 교통과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소백산맥이 가로 막고 있던 과거에는 이 곳 하늘재를 넘나드는 고갯길은 남한강의 수송능력과 합쳐져서 국토의 남북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신라는 일찍이 이곳을 기점으로 북진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고구려 온달장군의 계림령(하늘재)이남의 옛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곳도 바로 이 일대였다고 한다.

미륵리의 대원사터는 어느 시기 어느 세력에 의해 창건되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1977년 발굴 조사로는 통일신라시대의 막새기와가 수습되었

고, 팔각석등과 삼층석탑이 통일신라기의 조각수법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6.6m의 미륵대불과 5층석탑, 사각석등, 당간지주등은 완전한 고려시대의 석조물이어서 통일신라때부터 있던 가람이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음을 알 수 있다. 건물터에서 나온 기왓장에서 본래의 이름이 大院寺였고, 1192년에 지붕의 기와를 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륵사지 대원사 터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석불입상(보물 제96호), 5층석탑(보물 제95호), 석등(지방문화재 제19호), 미륵리 3층석탑(지방문화재 제33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특히 석불은 경주 석굴암과 더불어 국내 석굴사원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원사는 인공으로 돌을 다듬어 높이 17m의 석굴을 만들고 그 위에 목조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헌상 기록이 없어 그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삼국유사」에는 이곳을 미륵대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에도 몽고군을 물리쳤다는 기록과 미륵사지 주변에 병참터축대, 말무덤등 관련 유적지가 있어 고려시대 중창 조성했다는 심증을 굳게 해준다. 모두 5개의 돌로 조성했으며 머리에는 얇은 돌 갓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끼가 끼지않는 미륵불의 얼굴이다. 다른 몸체는 돌이끼가 가득 피었지만 얼굴만은 금방 세수를 하고 나온 듯 깨끗하다.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미륵불은 미소만 짓고 계실 뿐이다.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이며 호서 제일 가람으로 불리우고 있다. 신라 말 당대 제일의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이 속리산을 찾아 읊었다는 시가 있다.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離山”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 하려 한다.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속은 산을 떠나려 한다.”

법주사의 창건은 신라 24대 진흥왕 14년(553) 의신스님이 창건했다고 한다. 「조선불교통사」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에 유학했던 의신스님은 불경을 흰 노새에 싣고 귀국한다. 스님은 귀국 직후 후학을 양성할 목적으로 절터를 찾아 나섰는데, 지금의 법주사 터에 이르러 흰 노새가 발길을 멈추고 울부짖었다. 스님이 노새의 기이한 행적을 이상히 여겨 주위를 둘러보니, 대가람을 이를 만한 곳이어서 이곳에 절을 짓게 된다. ‘法住(법이 머문다)’는 뜻의 절 이름은 이 연기 설화에서 비롯됐다고 전한다. 곧, 노새의 등에 싣고 다니던 경전(法)이 이곳에 머물렀다(住)는 의미에서 법주사라 이름 했다는 것이다. 비록 의신스님의 행적을 찾을 만한 기

록은 없지만 경내에 있는 마애여래상(보물 216호)원편에 새겨진 의신스님과 흰 노새의 희미한 암각화를 통해 이 설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의신스님이 가져온 법은 바로 '정토'였기에 오랜 뒤에도 미륵불이 조각된 것이다. 법주사는 산사답지 않게 너르고 평평한 땅에 자리 잡고 있다. 법주사가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진표율사와 그의 상수제자 영심스님에 의해서 라고 한다.

진표 율사는 영산사에서 미륵보살로부터 「점찰경」 두 권과 간자 1백89개를 전해 받고 금산사를 창건했다고 「금산사 편」에 기록되어 있다. 진표 율사는 금산사에 미륵 장육존상을 조성하고 법주사에도 장육존상을 조성했다고 전한다. 이 장육존상은 조선말까지 실존 했는데, 흥선 대원군이 경북궁 복원을 위해 발행한 당백전의 재료로 사용하기 전까지 산호전에 봉안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산호전 자리에는 장육존상 대신 청동미륵대불이 봉안돼 있다. 금산사, 동화사와 함께 법주사는 법상종의 3대 사찰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석탑이 없고 거대한 목탑이 있다. 너른 마당 중앙에 서 있는 독특한 모습의 5층 목조누각 모양의 팔상전(국보 55호)이 바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목탑이다.

우리나라 탑의 시원은 목탑이었지만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 등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이제 옛 목탑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임란 후 17세기 초에 다시 지은 팔상전뿐이다. 팔상전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해 모신 곳이다. 팔상전 내부는 마루를 깔고 3층까지 떠받치고 있는 중앙 칸의 네 기둥을 막아 벽을 둘러쳤다. 각 면 불단에는 불상과 오백 나한상을 모시고 뒤쪽으로 그림 두장씩을 걸어 마루를 따라 걸으며 참례할 수 있게 했다. 고대 인도에는 존경하는 대상의 주의를 3번 돌며 절하는 예법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발전해 '탑돌이'가 됐다 하며, 팔상전 내부는 탑돌이를 하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있다. 팔상전은 사방 5칸으로 된 맨 아래층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양쪽을 반 칸씩 줄여 5층은 단칸이다. 법주사의 문화재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볼 것은 9세기 중엽에 제작된 쌍사자석등(국보 5호)이다. 석등은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깨우침으로 밝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석등은 여느 석등과는 달리 모난 기둥 대신,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뒷다리에 힘을 불끈 모은 채 앞다리와 주둥이로 불 밝기집(火舍石)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자 중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고대 인도 문자인 산스크리트어의 첫 자와 마지막자인 '아·흠'을 각각 의미 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잇는 영원한 지혜를 상징한다. 석굴암 입구 좌우에 서있는 인왕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강역사상도 바로 이런 '아·흠'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주사에는 팔상전과 쌍사자석등 외에도 반구형의 큰 돌을 깎아 연꽃 무늬를 세겨 연못을 만들고 위에는 난간까지 두른 석연지(국보 제64호)와 받침

부와 몸체가 모두 8각으로 이루어진 정형양식의 사천왕석등, 거대한 석조 등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석물을 볼 수 있다. 또 국내에 몇안되는 2층건물인 대웅보전과 4모지붕을 얹은 원통보전, 다포맞배집형태의 천왕문 등 목조건물의 다양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대웅보전에는 흙으로 빚은 소조좌불 가운데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조선중기의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가운데 주존불이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전각의 명칭은 대적광전이라고 바로잡혔으면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재순 회장께서 당부한 문화재명칭 바로잡기 운동의 일환일것이다. 참고로 1640년경에 통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불상이 세군데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 실측 결과 완주 송광사 불상 5m60cm, 법주사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상 5m50cm, 부여 무량사불상 50m40cm로서 소조 좌불중 가장 큰 불상들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변변치 않은 답사지 설명을 박수 속에 끝내고 나니 넉센스문제의 재미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하루 전에 상경하여 서울 경기팀과 합류한 안강수 이사가 100여개가 넘는 문제들을 수집해와 문제를 맞으면 양말 등을 상품으로 주는등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이 어느덧 첫 번째 집결지인 청풍문화재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충북지회 회원들이 미리 나와 박수로 반갑게 환영하는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공주등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답사 및 탐방에 나섰다. 충주댐의 건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충주호는 주변의 많은 마을들을 수몰 되게 했다.

청풍면 수산리와 황석리 수산면 지곡리에는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물에 잠길 이 유적들을 옮겨 조성한 곳이 청풍문화재단지이다. 모두함께 줄지어 입장을 하고 답사를 시작했다.



먼저 청풍부를 드나들던 관문인 팔영루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조선 숙종 28년(1702) 부사 이기홍이 창건하고 남덕문이라 부르던 것을 고종때 부사 민치상이 청풍명월의 8경을 시제로한 팔영시가 있어 팔영루라 부르고 있다. 건물구조는 높이 2.2m 석축기단을 쌓고 그 중앙에 4각의 문을 내었으며 기단위에 누각을 세웠다. 이곳을 둘러보고 조선시대 시골의 양반가옥과 민가 가옥인 도화리, 황석리, 후산리, 지곡리 고가를 들어섰다. 그중 민가 가옥의 유형인 후산리 고가는 청풍면 후산리에 있던 민가를 옮겨놓은 것으로 'ㄱ'자형의 팔작 기와집으로 대청마루를 기준으로 동남을 향하고 있다. 대청의 우측에 2칸 크기의 건너방과 마루를 높이 하고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두고 있으며, 대청을 좌측으로 옷방이 있고 옷방에서 동쪽으로 꺾어 대청에 좌측으로 후퇴하여 제사방으로 꾸미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보편적인 민가유형이라 한다. 이곳 마루에 앉아 있으니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준다.

청풍 한벽루 (보물 제528호)는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청풍현이 군으로 승



격되자 이를 기념하여 세운 독특한 양식의 관아 부속 목조건물로 연회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종7년(1870) 부사 이직현이 중수했고, 1972년 수해로 건물 일부가 유실되어 1976년 다시 복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루에 올라갈 때 계단 역할을 하는 「익랑」은 현존 건물로써 전무한 양식이고 현판 글씨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이라 하니 그의 자손으로서 더욱 친근감이 간다. 익랑을 통해 2층에서 바라보는 충주호의 전망은 비가 조금씩 내려 흐릿하지만 시원스러움을 주고 있다.

한벽루를 둘러보고 용무차 내려온 중앙관속들의 객사로 사용했던 응청각을



살펴보았다. 그 옆에는 유일하게 단청을 하지 않은 검소한 건물이 보였다. 이곳은 금병헌이라 현판이 걸려있다. 청풍부에 동헌으로서 부사의 집무장소 및 집회장소로 쓰였다 한다. 그 아래에는 제천 금남루가 자리하고 있다. 건물구조는 2층 목조기와집으로 정면3칸 측면 2칸인데 석조 8각 고주석 위에 기둥을 세워 누대를 축조하였으며 2층 누상에는 목조난간을 돌렸고 겹치마 팔작지붕의 누각이다. 관아를 드나들던 문으로 중앙의 문은 부사가 출입

하였고 양쪽의 문은 평민이 출입하였다 한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한강변의 비석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석물군에는 선사시대 지석묘 5점이 있어 고대사회의 장례풍속을 엿볼 수 있었다. 청풍 물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546호) 앞에 이르니 이곳 해설사가 불상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었다. 불상조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흥미를 가지고 듣다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반색을 하며 자세히 공부해 보다 정확한 해설을 하겠다고 하여 불상의 수인 등 시대별로 달라진 상호 등 꽤 깊은 상식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특히 석조각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재순 회장께서 부분부분을 짚어가며 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으며, 불상양식으로 볼 때 고려말에서 고려초로 이어질 때의 귀중한 문화재라고 해설을 해 주었다. 시간상 더 머무를 수 없어 자리를 뜨려는데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 의문때때 문의하겠다고 하여 명함을 교환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능인협회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계획중 일부가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일것이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오늘도 열심히 해설하고 있을 안길상 해설사님 파이팅!

예촌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중원미륵사지(대원사터)로 향했다. 중원군은 남한강가에 위치해 한성과의 수로교통이 발달해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려한 경관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연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있다.

하늘재 초입에 자리잡고 있는 미륵사지(사적 제317호)에 도착하니 장맛비 탓인지 관광객이 별로 없어 우리들만이 호젓하게 답사를 하였다. 석조미륵입상(보물 제96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석조각의 대가인 이재순 회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이곳의 미륵불상은 경주 석굴암과 함께 국내 석굴사원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돌을 다듬어 쌓고 그 위에 목조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몸체는 돌이끼가 가득 피었지만 새로 조성한 듯 깨끗한 얼굴의 미륵불상은 5개의 돌을 엮어가며 조성했으며, 특히 좌대위에 그냥 서있는게 아니라 땅속에서 용출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이번 답사의 의미를 한층 더해주었다. 법화경 견보탑품을



보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다보탑이 땅속에서 솟아 그 속에 계신 다보불이 증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해석이 그와도 상통되는 것을 보면 장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설명을 듣고 미륵불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기념촬영을 하는데 나만



의 생각일까 부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상 왼쪽 뒤 석축위에 구름이 부처님 모습을 만들었다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신비함과 가피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층석탑(보물 제95호)과 석등(지방문화재 제19호) 등을 자세히 살펴며 느낀점들을 충분히 나누었다. 돌거북 앞에는 이곳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있었다.



해설을 듣고 이재순 회장의 보충해설이 이어졌다. 이 거북은 자연석을 최대한 살려 조성했으며, 발모습을 보았을 때 이상의 세계를 향해 헤엄쳐 가는 기상이 잘 표현되어 있고, 새끼 거북이들이 어미등위로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이것은 불법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여 피안에 이르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 해설사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이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기능인협회의 파이팅을 다시한번 외쳐본다.

지금 시간은 3시10분. 아쉽지만 대원사 답사를 마치고 호서제일 가람으로 불리우는 속리산 법주사를 향했다. 법주사는 속리산의 자리한 유서깊은 사찰로 553년(진흥왕 14)에 의신스님이 창건했고 사명을 법주사라 한것은 의신스님이 서역에서 돌아올 때 나귀에 불경을 싣고 와서 이곳에 머물렀다는 설화에서 유래된다. 법주사에 들어오니 거대한 청동대불이 주변을 압도한다. 모두들 두손모아 합장하여 인사하고 먼저 팔상전(국보 제55호)에 참배를 하였다. 5층 목조 누각모양의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목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가지 그림으로 표현해 모신 곳이다. 우리나라 탑의 시원이 목탑이지만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등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이제 옛 목탑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팔상전 뿐이니 안타까우면서도 이 목탑을 통해 거대했던 황룡사 9층목탑의 위용을 짐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세기 중엽에 제작된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을 둘러 볼 때 이곳 해설사를 만났다. 문화재 기능인협회에서 답사 왔다고 말하니 전문가 선생들께 무슨 해설을 하느냐고 해설을 극구 사양하였다. 해설이라기보다는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자의 입이 한쪽은 다물고 한쪽은 왜 벌리고 있는느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좀더 전문적으로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첫 자인 '아'와 끝자인 '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잇는 영원한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고 불교의 전문적

인 해설을 해 주기도 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팔상전은 국보55호이고, 이곳 쌍사자석등은 국보 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 지정되었던 번호는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후에 지정된 것은 그 뒷 번호를 쓰고 좀 더 오래된 것과 후대의 것을 참고하고 뒤에 번호라 해서 앞 번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었다.

나머지 전각들을 둘러보는데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다. 법주사에 워낙 많이 와 봐서인지 대부분의 일행들은 퇴장을 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것



이 있었다. 창건하신 의신스님이 불경을 흰 노새에 싣고 온 모습이 세겨진 희미한 암각화를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는데 내 주변에는 허길량 부회장밖에 없었다. 그래도 걸음을 재촉하여 마애여래상(보물 제216호) 왼편으로 가 암각화를 찾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명 뿐이지만 답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간

절했지만 단체행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주사 청동대불 미륵부처님께 합장 인사 드리고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저녁은 청평명월한우 집에서하기로 예약했다고 한다. 특히 오늘 저녁은 본 협회 충북지부(지회장 이연훈)에서 환영의 뜻으로 대접한다고 하여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재촉하여 식당으로 들어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역시 맛있는것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 같다. 약소하지만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시라는 충북지회 이연훈 지회장의 인정넘치는 충청도 특유의 인사말이 정겹게 끝나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라는 건배속에 저녁만찬은 무르익어갔다.

청주갤러리관광호텔에서 편안하게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다음날 아침 탐방지인 청주 고인쇄 박물관으로 향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던 흥덕사터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

지심체요절」은 줄여서 「직지심경」또는 「직지」라고 불린다. 직지의 뜻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에서 온 말로써,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즉 「직지」는 직접 다스린다, 바른마음, 직접 가르킨다, 정확하게 가르킨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직지심경은 고려말 1377년 경안스님이 부처님과 큰스님들의 말씀 중에서 불교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선”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 상하 두 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서기 1377년(고려 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1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활자본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알려졌던 독일의 “구텐베르크성서”보다 70년 앞선 것이라 한다. 고인쇄박물관은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으로 인쇄하는 과정을 밀납인형으로 재현한 직지금속활자 공방과 인쇄 문화실, 동서인쇄문화실, 인쇄기기실, 고인쇄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직지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기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다음 관람지인 청남대로 향했다. 대통

령의 공식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간다하니 세상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대청댐 부근에 지어진 대통령전용별장으로



으로 “남쪽에 있는 청와대” 라는 의미에서 청남대라 불린다. 1983년부터 대통령의 전용별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총 면적은 184만 4천㎡에 달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을 중심으로 골프장, 그늘집, 헬기장, 양어장, 오각정, 초가정 등이 있고, 5분의 대통령이 88회 471일 이용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별장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시절부터 김해를 비롯해 4군데가 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 모두 폐쇄하고 이곳 청남대 한곳만 남겼다 한다. 청남대 부근은 경호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계절에 따라 제 모습을 바꾸는 조경수 100여종 52,000여그루와 야생화 130여종 20여만본은 청남대의 자랑거리라고 한다. 자연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멧돼지, 고라니, 삿, 너구리, 꿩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먼저 대통령 문화역사관을 관람했다. 이곳은 2011년 6월 확장 개관했으며, 면적 5016㎡로 청남대와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 대통령들의 외교선물, 청남대에서 사용한 물품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체험장이 있어, 누

구나 대통령의 포즈를 잡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이 있어, 서로들 대통령 자리에 옷으면서 앉아보는 재미도 만끽했다. 일행들과 함께 옥상 휴식공간인 하늘정원에 올라 설치된 망원경으로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평소 못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로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도 가졌다.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니 서민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돌탑이 보였다. 이 탑은 청남대 개방기념으로 당시 청원군 문의면 주민수와 같은 5,800개의 돌로 쌓았으며, 문의면 32개 마을이름이 새겨져 있고, 모형은 청남대 주봉인 장군봉을 의미하며, 2003년 4월 18일 개방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지사와 제막하였다 한다. 청남대 본관에 오르는 양옆에 반송들이 잘 가꾸어져 걸어가는 기분이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양 마음새가

경건해 진다. 청남대 본관 앞에서 안내인의 통솔을 받으며 기다렸다 입장하였다.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699㎡ 규모로 1층은 회의실, 접견실, 식당, 손님실이 있고, 2층은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침실, 서재, 거실, 식당, 가족실, 한실 등이 있으며, 이곳이 5분의 대통령이 88회 471일 이용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휴양시설이라고 해설사가 열변을 토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본관을 관람하고 본관 정원 뒤편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5각정과 양어장, 대통령길, 대통령광장을 대통령인양 산책을 하고 점심식사 및 정기이사회의를 하기 위해 청남한정식집으로 향했다.



모두들 산책길이 좀 힘들었는지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재순 회장의 주재하에 심도있는 이사회 의가 열렸다. 정기이사회의를 마치니 오후 2시, 다음은 상수허브랜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수허브랜드가는 길목에 기능인협회 재무이사인 박병두 사장께서 운영하는 (주)대신기와 사무실

및 전시장이 있어 그곳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종합건설회사를 2개나 운영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그 규모가 꽤 크게 보였다. 곳곳에서 박병두 재무이사의



능력과 집념이 어려웠
는 것을 느꼈다. 잘 구
워진 기와와 용조각
이 새겨진 귀면와 들
이 예쁘게 진열되었는
데 눈치빠른 회원들은
어느 틈엔가 귀면와들
을 하나씩 선물 받아
들고 흐뭇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음료수를 들
고 있었다. 준 것보다
만 배로 복을 받는다

는데 그 복들을 모두 받아 더욱 번창하기를 빌며 향기로운 허브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상수허브랜드는 83ha의 농원에서 허브를 키우고 있는 허브전문농원이다.
1,000여종의 허브가 전시되어 있다는 전시장은 동양최대의 최첨단 유리온
실로 365일 허브꽃을 피워내고 있어 상큼한 향기를 맡으며 허브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함께하는 일행들과 야외 산책로를
따라 의자바위, 허브카펫을 지나며 다양한 전시물들을 감상하니 허브의 향

기에 취해 피로감도 풀리고 마치 우리가
천궁에 올라온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
다. 다양한 허브관련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숲에 들리니 나만 이 향기를 맡는게
미안해 꼭 상품을 구입해야겠다는 마음
을 갖게 되니 절묘한 기업운용이 아닐수
없다. 체험프로그램으로 허브포푸리만들
기, 허브비누만들기, 향만들기, 허브인절
미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이들
의 관심을 끌게하고 허브의 성에서는 꽃
밥을 비롯해 허브가 들어간 다양한 요리
를 먹어볼 수 있다.



이번 문화재 답사는 눈과 몸, 그리고 정
신까지도 아주 맑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답사시작 전부터 빈
틈없이 준비하여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한
유명숙 실장님과 답사기간 중 봉사를 아
끼지 않은 한봉석 목조각장 내외분께 고
마움을 표한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한 이재순 회장님과 집행부의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충북지회 이연훈 지회장님과 지회 회원님들!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마음을 함께한 회원님들! 모든분들께 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여~ 영원히 발전하라!.....

사진 유 명 숙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 !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통을 살리자)

조각분과장
이재휴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는 급변하고 있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조각공예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이 세대에 새로운 문화조각공예를 창출해 내자고 굳게 다짐하며 1986년 10월 31일 설립하였다.

24회의 문화재답사와 12회의 회원전을 개최하여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선보이며, 전통조각 공예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은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우리 전통문화쪽으로 는 어두운 면이 드리우고 있다. 무분별한 외세 문화의 범람으로 한국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인사동에도 외래 조각공예품이 난무하여 우리 전통문화조각 공예의 입지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문화가 가장 발달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전통조각공예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문화재조각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회원이 초심으로 돌아가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시대를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각공예를 창출하여 우리 전통문화조각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속에 인지도시킬수 있도록 일심으로 노력 정진해 나갈 것이다.

전통문화수호에 관심 깊으신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격려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조각분과 활동-

대한민국 전통 문화재조각회 이 취임식

2012년 3월 17일 부산 스타일웨딩에서 14대 송근영 회장과 새 집행부 15대 회장 이재휴 회장의 이 취임식이 있었다. 송근영 전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공로패와 표창이 있었으며 현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회

장 취임사는 전통조각과 공예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화에 힘쓰겠다는 취임 인사가 있었다.

정관수정

그동안 오래된 회칙을 현재에 맞게, 정관수정 '목적'을 침묵 회 개념에서 공적인 단체개념으로 변경, 가입 10년후 중아위원회 폐지, 원로위원회 원로위원 7인으로 제한으로 변경, 회원 전시회 때 작품 판매 시 작품 판매대금의 10% 특별회비 의무, 등이 개정되었다.

문화재답사와 체육대회

2012년 6월 2일~3일 1박 2일 회원 53명이 참석하여 경주박물관,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답사와 기림사 스님께 뜻있는 법문도 들었으며 송금영 명예회장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사지에 대한 해설로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 건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4개조로 나누어 축구, 족구, 등 게임으로 즐거운 체육대회가 있었다.

2012년 27차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2월 22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사무실에서 가졌으며 2012년 한해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임원(2012~2013)

회 장 이재휴
수석부회장 윤재선
부 회 장 어윤길, 임형철
총 무 김동철
감 사 김쌍동, 신대섭
재 무 박순규
운 영 위 원 서울권 - 신정철
부산권 - 이재철
중부권 - 류종상
연 락 처 총무: 010-5406-4031
팩스: 031-577-7599
이메일 kt3377@naver.com

한식미장 분과 이야기

우리기능인 협회 내에 한식미장분과가 있으며 약 50여 명의 분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식미장 분과는 2008년 몇몇 한식미장들이 문화재 기능인 교육장에서 자연스럽게 분회 만들 것을 제안하여 그동안의 준비를 거쳐 2010년 1월 23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산하 한식미장분과로 정식 발족하였다. 분과장에는 김진욱, 사무장에는 유종, 감사에는 박태휘 그 외에 각 지역별로 지부장을 두고 있다. 인터넷 카페명:토수들의모임(다음카페<http://cafe.daum.net/hansikmi-jiang>)을 만들어 정보, 기술, 일거리나누기, 교육, 회원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분과 활동을 살펴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식미장 분과장
김진욱



첫째, 품셈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여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그 예로 일정규모 이상과 인원이 소요되는 공사에는 미장편수의 노임을 별도로 산정하고 면적 20㎡를 기본 미장 벽 면적으로 산정하여 미장편수 5인 한식미장공18인, 한식미장조공6인 보통 인부4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소 공사일 때 공사 준비와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 정도의 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 기본요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장편수의 노임이 별도로 있으니 미장공들이 편수들의 노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

답이 없어졌다. 우리 회원들은 품셈작업 시연을 위하여 한겨울에도 비가 오는 장마기에도 한여름 피약벌에서도 잘못된 품셈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참여 하였다. 지역에서 실현을 할 땐 전문위위들과 같이 동행하여 기법은 맞는지 적절하게 품이 들어가는지 점검도 하였고 문화재청에서 검토회의 때는 얼굴을 붉혀가며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내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한식미장공이 많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품셈 자문회의

둘째, 교육활동을 들을 수 있다.

흙의 물성 등 우리가 늘 쓰면서도 소홀 하였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목을 넓히는데 기여 하였다. 흙을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문화재전문위원 그리고 원로 장인분들을 모시고 교육하여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면

셋째,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문화재 관련법의 제, 개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공청회에도 수차례 참여하여 기능인들에게 미치는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알리고 분과 입장에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 하였다. 각각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아직도 노임을 주지 않거나 몇 개월 씩 밀리고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기능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 간에 협력하여 인건비를 받아내는 일도 함께하였다. 이런 활동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적극 협조하였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미장 시험에 있어 자문, 시험출제, 검토, 감독 등 매년 시험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여 원만한 기능자 시험이 되도록 협조하였다.

여섯째 한식미장에 대한 시연

문화재 기능인협회 작품전과 병행하여 경복궁 회랑에서 한식미장방법을 시연하여 외국인 어린이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한국전통건축 방법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한식미장 시연

외에도 많은 활동과 성과가 있었지만 지면상 줄이고 한식미장분과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통구들 교육을 계획 중이다.

2014년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종목에 온돌공이 추가되었다. 사실 한식미장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은 아니다. 그동안 한식미장공이 구들공사를 해 왔는데 온돌분야의 수리기능자 자격이 생기면서 구들 분야에 대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3년도에는 사단법인 전통구들협회와 협조하여 한식미장회원들에게 구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둘째 정부 노임 단가조사에 대한 현실화이다.

현장에서 한식미장공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평균 150,000원정도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임단가를 조사하여 발표할 때 마다 약 2~3만 원정도 낮게 발표된다. 이런 문제는 실제 품과 노임을 대입하여 공사원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미장공사는 설계견적대로 하면 무조건 모자란다. 그래서 다른 공종에서 미장공사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통레이다. 문화재 보수, 복원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노임 조사는 현실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식미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와 교육이다.

문화재 보수 복원 현장에서 수 십년을 일했는데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 2011년의 한식미장시험에서는 한 명의 합격자도 없었고 2012년에도 응시자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시험은 아주 작은 벽체 하나를 만드는데 기본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 전통건축의 벽체 구성이나 미장방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매우 과학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수 십년을 일했어도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막연히 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면상 줄이고 이 기회에 한식미장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미장이면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여 부르면 될 것인데 왜 한식미장과 미장을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장이라 하면 현대건축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종류를 바르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한식미장은 전통건축을 기반으로 한 습식공정 모두를 포함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얼른 보기에 흙이나 회만 바르는 사람으로 보기 쉽지만 외벽기를 위하여 끝질을 하여 중깃을 세우고 외대를 엮는 일, 전돌을 쌓거나 토담을 치는 일, 화방 담을 쌓는 일, 꽃담을 만드는 일, 합각벽에 문양을 넣는 일로 공정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한식미장은 건축에서 기본이 되는 구조, 기능, 미에서 미적인 요소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술성과 창의성, 정성, 고도의 숙련 기능을 갖추어야 한식미장공으로 일할 수 있다. 한식미장을 단시간에 배우거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안 되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안타까운 현실은 전통기법의 단절이다. 시멘트 없이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현대건

축 기술에 밀려 관심 밖에 있어 기법 전승의 단절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전통건축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어느 교수분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벽체의 단청 수명은 벽골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그 연구논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티칸의 모든 씨스틴 성당이나 파올리나 성당에 미켈란젤로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찬사를 보낸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작품은 여러 차례 보수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림 바탕이 된 회벽이 탈락되어 그림까지 다시 보수하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국보인 각황전 포벽이나 불국사의 극락전 등 그 외에도 많은 벽체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림이 미장작업의 부실로 훼손되고 있다. 그 그림이나 단청이 중요하다면 그림의 바탕 작업에 대한 인식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식미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강조하여 보았다.

문화재 보수복원에 있어 한식미장은 전통기법대로 시공되고 계승되도록 한식미장 분과는 전문분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서울.경기지회 재능기부 봉사활동

석공 제 1676호
이사 백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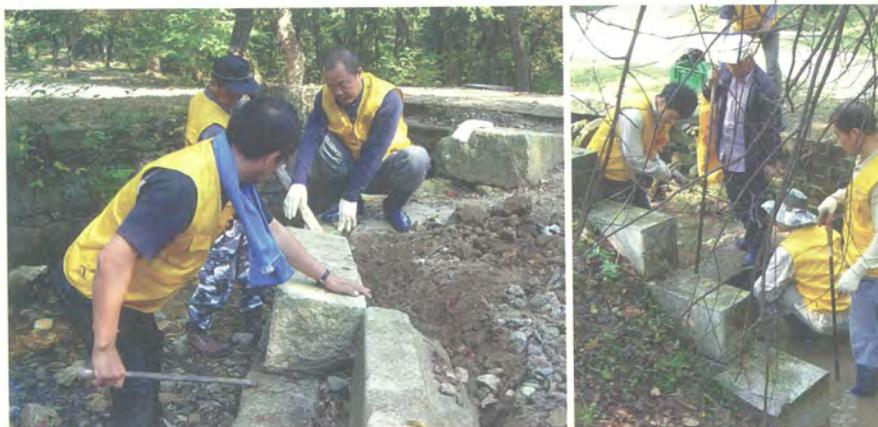
지난 2012년 10월7일 사단법인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서울.경기지회(지회장 백남정) 회원 20여 명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동구릉(세계유네스코)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오랫동안 장마와 자연적 훼손으로 석축이 물러났거나 틈새가 벌어진 석축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일이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님이시고 중요무형문화재 120호이신 이재순 석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뜻 깊고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을 대표하는 동구릉에서의 재능 기부는 석조각 예술인들은 물론 문화재기능인들이 국가와 우리의 문화 역사를 위해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국가에 환원한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늘과 같이 기쁜 일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에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보수해야 할 부분을 함께 돌아보시고 기술지도도 직접해주셨다.



봉사활동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하였으며 석축 보수, 틈새 채우기, 석마 바로 세우기 등을 하였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공구는 조 별로 준비하여 나누어 개인이 지참한 공구를 가지고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였다.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 조인제 소장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조각



가들이 동구릉을 찾아 재능기부라는 뜻 깊은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경내를 순찰하면서 늘 눈에 거슬렸던 계류의 석축들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어 무

엇보다 기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기능인 여러분의 손으로 복원 수리가 되니 더욱 영광스럽다며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서울.경기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답사를 해주셨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봉사활동은 처음 있는 너무 행복하다고 입을 모아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토의하며 즐거워했다.

이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환경일보, 남양주 투데이, 기호일보 등 5개 신문사에서 실었

으며 매우 관심있게 취재하였다.

앞으로 우리 회원들은 분기별로 재능기부 봉사활동 할 것을 의견을 모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 긴급구조대〉의 활동을 계획하며.....

문화재기증인협회

우리 협회 설립 목적은 문화재 애호사상을 양양시키기 위하여 문화재 보전 수리 기능의 계발에 기여하고 회원의 자질향상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전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사업, 학술교양 향상과 수리 기능 보전에 관한 연구사업,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기로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매년 문화재기증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종별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고, 학술교양지 「문화재기증의 맥」도 발간합니다. 더불어 문화재를 보고 배우기 위한 문화재 탐방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회원 모두가 협회의 주인이라는 자긍심도 키웁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셔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수년에서 수 십년간 열정을 갖고 묵묵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사회 누구보다도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이 문화재 보수복원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지혜를 사회에 헌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문화재복원현장에서의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장단을 비롯한 이사진 등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구조대〉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의 〈문화재 긴급구조대〉를 결성하자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비문화재 공사에 우리는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을 도모하는 겁니다.

문화재 보수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잘 관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비문화재는 우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충북지회, 경기남부지회, 광주·전남지회, 경기북부지회가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지회 대전·충남지회등도 결성될 예정입니다.
지회가 활성화되어 지회에서 지회 회원들과 지역을 중심으로
천재지변이나 오래되어 손상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비문화재를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여
보수 복원하다면 우리는 더없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뭔가 사회에 내 재능을 환원하고 싶어도 마땅히 길이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무리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은 재능기부의 길이 열리리라 봅니다.



우리협회 회원의 손길에서 보수 복원되지 않을 문화재는 없을테니까요..
재능을 기부하면서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다보면
재능기부 하는 회원들간에 돈독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열악한 문화재보수현장에서 일하는 문화재기능인들의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우리의 입지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기능인 모두가 환영하며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협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협회 회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더 없는 궁합이 아닐까요?

협회 소개

〈협회 개요〉

▶ 일반현황

- 대표자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보유자)
- 설립일자 1988년 8월 18일
- 설립목적 문화재 보전수리기능의 전승 계발 및 계승
문화재 애호사상 양양
회원 자질향상과 상호간 친목도모
- 주요사업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 발간
국내외 문화재 답사 및 탐방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문화재 보전수리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책건의 등 개선
- 소재지 (110-801) 서울 종로구 계동 102-1 연화빌딩 3층
(전화) 02-3672-8803-4
(팩스) 02-3672-8805
(홈페이지) www.kcca88.or.kr
(이메일) kcca88@hanmail.net

▶ 회원현황

- 회원 6,604명
- 직 종 22개 직종
목공(한식목공 359 / 대목 763 / 소목 99), 석공(한식석공 226 / 가공석공 372 / 쌓기석공 383), 화공 695,
드잡이공 403, 번와와공 546, 제작와공 8, 한식미장공 394,
철물공 24, 조각(조각 16 / 목조각 189 / 석조각 91),
칠공 326, 도금공 132, 표구공 98, 조경공 433,
세척공 84, 보존처리공 452, 훈증공 52, 식물보호공 156,
실측설계사보 268, 박제및표본제작공 35

▶ 회원가입

- 가입자격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합격한 기능인

- 가입조건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한 자(연회비 12만원, 회원증 1만원)
- 입금구좌 기업은행 024-036907-04-017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전통 및 문화유산》

▶ 역대회장

- 초 대~제2대 (1988. 11. 4~) 장영근
- 제3대~제5대 (1992. 8. 26~) 전홍수
- 제6대~제7대 (1999. 1. 15~) 신응수
- 제8대~제9대 (2004. 1. 14~) 최기영
- 제10대 (2010. 2. 4~) 이재순

▶ 협회지 발간

- 회지「옛살림」제1호~제28호 격월간 발간('92. 12. 1~'97. 6. 30)
- 학술교양지「문화재기능의 맥」매년 발간('02년부터~)

▶ 기능인 작품전

- 제1회 문화재기능인 작품전('93. 5. 12~5. 18 종로 공평아트센터)
- 제2회 문화재기능인 및 불교미술인작품전('94. 5. 10~5. 24 종로 공평아트센터)
- 제3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96. 10. 8~10. 27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제4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98. 10. 24~11. 30 예산 한국고건축박물관)
- 제5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0. 10. 23~11. 2 서울역문화관 전시실)
- 제6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2. 10. 2~10. 20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제7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4. 10. 14~10. 31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 내나라여행박람회 우수작가 작품전시('05. 9. 1~9. 4 코엑스 태평양홀)
- 제8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5. 9. 24~10. 12 덕수궁 석조전)
- 내나라여행박람회 우수작가 작품전시('06. 8. 31~9. 3 코엑스 태평양홀)
-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08. 10. 17~10. 31 덕수궁 석조전)
- 제10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10. 10. 7~10. 18 경복궁 흥례문 회랑)
-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문화재기능명장특별전(2011. 5.24~27,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12. 10. 18~10. 22 서울미술관)

▶ 문화재 탐방

- 제1회 일본('01), 제2회 중국 서안, 북경('02), 제3회 전라 충청지역('03), 제4회 중국 곤명, 여강, 대리('05), 제5회 제주도('06), 제6회 태국 방콕, आयुताय('07), 제7회 경주 강릉, 속초('08), 제8회 전라지역('10), 제9회 중국 상해, 오진, 항주, 소주('11), 제10회 충북지역('12)

▶ 문화재기능인 교육

- 매년 교육실시

- 매년 직종별로 교육 실시
- ▶ 인명록 발간 및 산학협력
 - 한국문화재기능인 인명록(Ⅰ) 발간('03. 1. 15)
 - 한국전통문화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체결('04. 12. 21)
- ▶ 정부포상
 -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보존관리부문 대통령상 수상('08. 12. 8)
- ▶ 명칭변경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로 발족('88. 8. 18)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변경('00. 3. 28)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직 종	전화번호	우 편
회장	이 재 순	석 공	631 010-5351-5443	경기 구리시 사노동 434 석조원
명예회장	장 영 근	목 공	205 011-308-7008	서울 종로구 재동 32-17
명예회장	전 홍 수	목 공	608 010-6488-2788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8 한국고건축박물관
명예회장	신 응 수	목 공	152 011-257-9007	서울 종로구 창성동 35 한국전통건축
상임고문	최 기 영	목 공	407 011-279-0225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95-1 전수교육관
원로위원	허 균	목 공	1643 011-811-2892	경북 경주시 충효동 581-1
원로위원	이 의 상	석 공	611 011-227-096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성지A, 546-502
원로위원	정 문 길	와 공	670 011-540-3059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487-1 노당기와
원로위원	김 은 동	와 공	1844 011-509-0108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주)고령기와
원로위원	이 근 복	와 공	815 011-287-445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488-22
수석부회장	윤 창 병	목 공	1376 011-609-2576	광주 서구 농성2동 667-26
부회장	김 범 식	목 공	383 011-515-1126	대구 수성 범어1동 614-100 청구푸른마을A 103-1902
부회장	홍 완 표	목 공	386 010-5269-0898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80-1 성주목재고건축
부회장	김 한 열	석 공	995 011-501-5968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7 보광석재
부회장	허 길 량	조 각	615 010-5259-8523	서울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전시관
부회장	윤 만 결	석 공	875 010-3523-6254	경북 경주시 남산동 1156-246
부회장	박 해 수	목 공	2018 011-462-8450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8-27 한도고건축(주), 한도목재소
부회장	임 동 조	석 공	1396 011-287-1549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358-7 현암빌딩 2층 미성석재
충북지회장	이 연 훈	목 공	1195 011-463-4925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영하리 1구 452-1
광주전남 지회장	김 영 성	목 공	765 010-3615-6789	광주 북구 용봉동 999 쌍용예가 109-1803

직 위	성 명	직 종		전화번호	우 편
상임이사	박 갑 용	도 금	2781	010-5216-4848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솔들로 54-107 준제불교미술원
재정이사	박 병 두	와 공	1957	010-5459-4005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762-5 대신기와
내무이사	김 식 경	석 공	677	011-221-0317	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596-56 보광명석재
교육이사	김 종 양	목 공	1246	010-3725-4872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95-1 전수교육관
기획이사	김 주 성	화 공	474	011-224-6179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656-234 대림A 105-1004
문화이사	이 연 옥	화 공	1088	011-733-2985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3 성원A 107-404
외무이사	황 영 식	소 목	3410	011-747-572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184-17 동부건구
홍보이사	김 대 건	목 공	624	011-222-5125	경기 안성시 당왕동 534 대우A 104-702
감사	이 조 형	석조각	1975	011-251-22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1-9 동강석재
감사	박 인 주	소 목	1786	010-5252-4576	서울 강북구 송천동 703-73 동신공예
총무이사	한 진 석	대 목	2478	010-5355-5456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A 118-504
내무이사	이 상 문	목 공	1901	010-8897-0125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1353 SK@ 122-1304
교육이사	정 재 언	석 공	2575	011-211-519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5 삼성래미안 2차A, 215-1301
기획이사	안 강 수	목조각	1360	011-852-6035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삼정그린코아a 103-1107
문화이사	김 동 철	석조각	1417	010-5406-4031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 석주조각원
외무이사	김 진 옥	미 장	2131	010-9900-1950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181-2
재정이사	권 재 도	석 공	2859	010-5325-1189	경기 하남시 초일동 66
홍보이사	선 동 철	소 목	1789	010-3658-7724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0-2 시영A, 나-212
이사	심 용 식	목 공	1198	010-5257-7152	서울 종로구 계동 79-12 청원산방
이사	송 근 영	조 각	724	016-255-6273	경기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589-8

직 위	성 명	직 종	전화번호	우 편
이사	남궁치연	드잡이 714	011-252-1941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34-3 정립A 503호
이사	주영재	드잡이 1702	011-508-3319	대구 북구 동변동 697 U대회선수촌1단지 102-202
이사	홍경선	목공 975	010-5405-6414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8 반석마을 207-1102
이사	이종한	소목 3409	010-3526-3615	대구 동구 괴전동 197
이사	안병욱	석공 1081	010-3773-1940	서울 중랑구 신내1동 795 새한A 101-104
이사	이재휴	석공 1605	010-3733-2050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7-1
이사	박수한	목공 1650	011-896-5498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454-4
이사	김성규	화공 1696	010-5481-6000	대전 유성구 구암동 621-15
이사	이광복	목공 2236	010-8603-556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085번지 201호
이사	소병진	소목 1917	010-7777-9632	전주 덕진구 팔복동 2가 121-7 금재소목공예연구실
이사	임한빈	석공 1395	010-7123-3231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4-1 동창석재
이사	유재택	미장 2361	010-5189-0581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90-20
이사	오세종	도금 1363	011-350-8788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3-1 삼신A 101-1001
이사	홍성표	드잡이 451	011-474-40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19-59
이사	전연호	화공 524	011-498-0888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804
이사	백남정	석공 1676	010-3794-3227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61-1 미술석재조각원
이사	장홍대	화공 3477	010-6433-5988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402-1401
이사	안배근	석공 1678	011-423-88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주공A, 215-903

직 위	성 명	직 종	전화번호	우편
이사	강 기 중	와 공 497	010-5243-8515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5-3
이사	정 재 원	대 목 2490	011-730-4936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4리 688번지
이사	정 상 인	와 공 4254	011-457-8686	대전 동구 낭월동 529번지
이사	김 쌍 동	목조각 1728	011-9947-1884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192
이사	박 주 향	대 목 3046	010-5365-9853	강원 강릉시 교2동 18-16 대림A 411호
이사	방 대 식	화 공 3792	010-7482-2247	충북 충주시 호암동 221-23 호암리버빌A, 105-1406
이사	김 명 철	미 장 3264	010-8843-104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새원한아름a 111-205
이사	오 재 선	와 공 3867	010-3757-6929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8-4
이사	김 현 자	화 공 3828	010-3894-110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1-39 2층 한국전통불화.단청문양연구소
이사	이 기 목	와 공 4653	011-590-7666	부산 수영구 광안2동 158-30

협회 주요행사 및 회원 동정

(협회 운영관련 회의)

- 01.13. 신년하례회 및 제1회 이사회의
- 01.25. 2011년도 업무및 회계감사
- 02.02. 제24차 정기총회(한국의집)
- 03.29. 제2회 이사회의
- 06.30. 제3회 이사회의
- 08.29. 원로위원 자문요청 회장단회의
- 08.29. 제4회 이사회의
- 12.04. 제5회 정기이사회
- 10.29. 긴급이사회

(계동포럼)

- 01.13. 제4회 계동포럼(발제-전 문화재위원 김동현)
- 03.29. 제5회 계동포럼(발제-단국대선주선기념박물관장 정영호)

(교육)

- 10.29. 미장분과-직종별기능교육
- 12.04. 문화재기능교육(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문화재탐방-충북지회 주관)

- 06.30~7.1. 2012년도 문화재탐방(충북지역)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 03.29. 작품전 요강 확정
- 03.29~ 작품전 운영위원회의 수 회 개최
- 05.30. 작품전 제도개선 계획안 제출
- 09.10. 작품전 1차 심사
- 10.17. 작품전 2차~3차 심사
- 10.18. 작품전 개막식 및 시상식
- 10.18~22. 제11회 문화재기능인작품전

(지회 및 분과 활동)

- 01.09~10 경기남부지회 문화재답사
- 01.11. 충북지회 정기총회
- 01.14. 외공분과 정기회의
- 02.16. 충북지회 송례문 견학
- 03.17. 조각분과-봄 정기모임-이취임식
- 06.02. 조각분과-문화재답사
- 06.21.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영성) 창립총회
- 08.22. 경기북부지회(지회장 허길량) 창립총회
- 10.29. 미장분과 정기회의 및 교육
- 11.22. 광주,전남지회 제1회 "광전 무형문화유산 강연회"
- 11.08. 경기북부지회 정기모임
- 12.22. 조각분과 정기총회

(품셈,수리법,건설업임금실태조사 등)

- 04.06. 문화재청 품셈관련 공청회 참석
- 04.2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회동 간담회
- 05.1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결과 교육 참석
- 07.06~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협조
- 07.1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방문 간담회
- 08.13. 문화재수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 10.05~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협조
- 10.3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회동
- 11.1~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본계획수립 워크숍 참석
- 12.2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방문 회동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 08.06~10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원서접수
- 10.11~18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 11.07.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합격자 발표

(수상·취임 및 무형문화재 선정등)

- 01.30. 이종한(소목 3409호) 대구무형문화재 제17호 "창호장" 보유자 인정
- 02.22. 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신용수(대목 152호) 이사장 취임
- 03.30. 이재순(석공 631호) "대통령상" 수훈
- 05.08. 소병진(소목 1917호) 전북무형문화재 "전주장" 보유자 인정
- 05.22. (사)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최기영(대목 407호)이사장 취임
- 06.26. 경상북도 최고장인선정-김범식(목공 383호), 박원용(석공 1555호)
- 09.10. 김민수(한식미장 5384호)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수상
- 12.11. 임동조(석공 1396호)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

(중개행사 및 작품발표 등)

- 02.01. 신봉곤 연구발표 및 작품전
- 03.22. 김동철(석조각 1417호) “지킴이 길상전” 개인전
- 03.22. 정정교(가공석공 2274호) “정정교 석공예전” 개인전
- 03.29. 박한홍(석조각 1311호) “박한홍 개인전”
- 03.30. 안강수 “봄을여는 향기전” 개인전
- 04.14. 정성길(화공 754호), 이방호(목조각 1492호) 전시 “단각의 어울림”
- 04.14. 중요무형문화재 변화장 이근복 공개행사
- 05.26. 김도래(도금 1501호) “나래짓 하여 도래한 불심” 전시
- 06.05. 중요무형문화재 석장 이의상 공개행사
- 06.13. 보응일십문도 “불모의 향연” 전시
- 06.15.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 공개행사
- 06.16~29. 윤기현(도금 3891호) “아름다운 빛의 선율” 개인전
- 06.26. 승래문 석공사 축성식
- 06.26. 전통공예명품전
- 08.01~05. 김범식(한식목공 383호) 여수엑스포 한국의날 전시
- 11.14~28.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전 “오래된 미래”
- 09.11. 옷칠공예대전
- 09.12. 동국불교미술인회 전시
- 09.17~10.04. 안강수(목조각 1360호) “가을을 여는 향기전” 개인전
- 09.20.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충남지회전
- 09.26. 서울무형문화재 회원전
- 10.16~11.5. 제3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회원 다수 수상
- 10.19. 남양주공예기능협회 “나전칠기기능경기대회및 전통공예공모전”
- 10.24~1.30. 신응수(한식목공 152호) 한중일전통목조건축 대목장의세계 전시
- 10.27.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전홍수 공개행사
- 11.07.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서울경기지회전 “돌사랑”
- 11.19~12.1. 윤석준(박제표본 2457호) 사진전 “기다림의 순간들”
- 11.20.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최기영 공개행사
- 11.22~24. 안강수(목조각 1360호) 만해공원기금마련 개인전 개최
- 11.24.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석재문화인한마당 “화합과 응비”
- 11.27. 전통문화미술인협회 회원전
- 12.05~10.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제13회 협회전
- 12.14. 홍완표(한식목공 386호) 전승발표회및 학술세미나 개최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목표

전통문화교육원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바탕인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 문화재 현장 수요에 적합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양성

전통기능교육(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 분야

- 목 적 : 문화재 수리기능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전통기능 전승 및 보존 기반 구축
- 대 상 : 문화재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등
- 개설과정 : 칠공, 소목, 철물, 도금, 모사

교수진 구성 및 경력사항

구분	인원	교수진	주요경력
칠공	1명	이광웅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나전장)
소목	1명	소병진	전북도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전주장)
도금	1명	박갑용	도금 전문가(도금 2781호)
철물	2명	양현승	대한민국기능전수자(장석/철물 3929호)
		유동열	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자(야장)
모사	1명	윤문자	궁중회화 모사전문의

※ 관련 분야 최고 권위자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위원 등의 특강, 특별실습 지도 실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의 문화재수리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과정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기와 전통의 맥을 잇는 **고령기와**

60년 고령기와의 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주요 납품처

궁궐 경복궁근정전, 근정문, 흥례문, 광화문, 사정전, 만춘전, 경회루, 수정전, 태원전, 자경전, 강녕전, 교태전, 동궁자선당, 비현각, 소주방, 창덕궁인정전, 대조전, 돈화문, 낙선재, 영춘헌, 덕수궁중화전, 윤현궁, 경희궁, 종묘정전
 성곽 수원화성(팔달문, 장안문, 행궁), 남한산성(행궁), 강화산성
 사찰 조계사대웅전, 봉은사, 영화사, 연주암, 용주사, 월정사, 신흠사, 낙산사원통보전, 범주사대웅전, 금산사미륵전, 백양사대웅전, 화엄사각황전, 송광사대웅전, 대흥사, 직지사대웅전, 동화사대웅전, 고은사대웅전, 은혜사대웅전, 부석사무량수전, 봉정사대웅전, 불국사, 석굴암, 통도사대웅전, 설법전, 범어사대웅전, 쌍계사대웅전, 관음사대웅전, 운문사, 동학사, 불영사, 청암사백홍암, 한마음선원(인양, 부산, 김해, 뉴욕), 천태중구인사대웅전, 유물전시관, 관문사, 삼광사
 향교 및 재실 도산서원, 도동서원, 광평대군성역화공사, 안동허희마을, 경주양동마을, 파주고려통일대전 국립현충원
 한옥 국회의사당영빈관, 남산골한옥마을, 롯데월드민속관, 신라호텔영빈관, 성균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이화여대한옥촌, 4.19묘역봉안소, 용인민속촌, 호암미술관, 신라밀레니엄한옥호텔, 영암한옥호텔영산재, 여수엑스포한옥호텔, 영주선비촌,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경북도청신청사, 진주역사, 대순진리회(여수, 포천, 속초, 중국동)



앞기와

숫기와

암막새



숫막새



착고



망와



경주 불국사



남한산성 행궁



해인사 팔만대장경각



110-801 서울 종로구 계동 102-1 연화빌딩 3층

TEL 02-3672-8803-4 FAX 02-3672-8805 Homepage <http://www.kcca88.or.kr>